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 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파나마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경제동향 및 전망 3
3. 한국과의 무역관계/한국-파나마 수출입 현황 5
4. 한국과의 투자관계 7
5.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8
6. 환전 9
7. 기후 9
8. 공휴일 11
9.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11
10. 호텔 12
11. 식당 14
12. 교통/통신/교통,통신 17
13. 유용한 연락처 19
14. 여행시 유의사항 20
15. 관광명소 22
16. 유용한 현지어 표현 24
17. 국토 25

18. 국토/파나마 국기 26
19. 국토/파나마 지도 26
20. 국토/탐험가 발보아, 태평양 발견 27
21. 국민 27
22. 국민/한국인, 중남미인보다 월등히 영리 28
23. 국민/세계 각국 국민 평균 IQ 비교표 31
24. 역사 32
25. 국가조직 35
26. 정치제도 35
27. 정치사회동향 36
28. 국가원수/국가원수(Mr. Martin Torrijos Espino) 36
29. 주요인사 37
30. 행정구역 38
31. 대외관계 38
32. 도량형 40
33. 관공서 관행 40
34. 국제공항 및 항구 41
35. 매스미디어 42
36. 주한 주재국기관 43

37. 물가정보 44
38. 경제발전사 44
39. 경제정책 49
40. 금융통화제도 51
41. 주요산업동향/연도별 주요 산업분야 성장률 52
42. 지적재산권 52
43. 소비자보호 55
44. 수입관리제도 55
45. 관세제도 59
46. 통관절차 60
47. 유통구조 65
48. 국제입찰제도 69
49. 외환관리제도 75
50. 시장특성/시장 규모 및 특성 76
51. 시장특성/콜론 중계무역 시장 77
52. 시장특성/화교상권 78
53.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80
54.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83
55. 투자유치정책 84

56. 외국인투자제한 86
57. 투자진출절차 87
58.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88
59. 공장설립 91
60. 산업단지 91
61. 자유무역지대 95
62. 조세제도 97
63. 사회간접자본 100
64. 노동여건 103
65. 사회보장제도 104
66. 현지 생활여건 106
67.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107
68. 자녀 교육여건 108
69. 진출기업/파나마 진출 한국 기업체 연락처 110
70. 주요경제지표/파나마의 모든 지표 순위 111
71. 주요경제지표/외채현황 112
72. 대외거래지표/대외거래지표 및 국제수지 112
73. 대외거래지표/대외거래 동향 113
74. 대외거래지표/주요 대외거래 지표 114

75. 대외거래지표/콜론자유무역지역 중계무역 현황.....115

76.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116

77.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콜론자유무역지역 주요 품목별 중계무역 현황.....117

78.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118

79.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교역 통계 119

8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품목별 교역 통계 120

81. 대외 투자진출 통계 121

82. 외국인 투자유치통계.....121

83.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투자교류통계 123

84. 물가금융지표/최근 파나마市 소비자물가지수 124

85. 노동통계/파나마의 노동력 현황 125

1. 국가개요

일반 사항

국 명	파나마 (Republica de Panama)
위 치	중미 (콜롬비아 바로 위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협에 위치)
면 적	75,517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1/3)
기 후	열대우림 기후 (건기 : 11월 말 ~ 4월, 우기 : 5월 ~ 11월 말)
수 도	파나마시티
인 구	317만명(2004. 9월)
주요 도시	파나마시티(126만9천명, San Miguelito 31만명 포함) 콜론(16만명), 다비드(12만명) 등
민 족	혼혈(메스티조 등 60%), 흑인(13%), 백인(11%), 인디안(10%) 중국계(5%)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카톨릭(93%), 신교(6%), 기타(1%)
건국(독립)일	1903.11.3 콜롬비아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Mr. Martin Torrijos Espino - 당선일 : 2004.5.2 - 취임일 : 2004.9.1 - 임 기 : 5년
의 회	단원제(의석 77개)
주요 정당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atico (PRD): 41 (여당) Partido Arnulfista: 15 Partido Molirena: 5 Partido Solidaridad: 9 Partido Liberal Nacional: 3 Partido Cambio Democratico: 3 Partido Popular: 1 (여당)

각부 장관	- 제1부통령 Samuel Lewis Navarro - 제2부통령 Ruben Arosemena - 농업 Laurentino Cortizo - 경제재무 Ricaurte Vasquez - 교육 Juan Bosco Bernal - 외교 Samuel Lewis Navarro - 법무 Hector Aleman - 보건 Camilo Alleyne - 주택 Balbina Herrera - 노동 Reynaldo Rivera - 비서실 Ubaldino Real - 건설부 Carlos Vallarino - 통상산업 Alejandro Ferrer - 청년여성가정 Leonor Calderon

(자료원 : 파나마 정부)

2004년 주요 경제 지표

GDP	137억불 (2005. 1사분기 33억불)
실질경제성장률	6.2% (2005. 1사분기 6.5%)
1인당 GDP	4,524불
실 업 률	11.8%
물가상승률	0.4%
화폐 단위	Balboa (美달러貨 사용국으로 명목상 호칭만 발보아로 칭함)
환 율	US$1 = 1 Balboa
외 채	9억불
산업구조	운송통신(16.7%), 부동산(16.5%), 기타(16.2%) 제조업(8.4%),금융중개(8.4%),상업(7.5%) 콜론중계무역(7.4%),파나마운하(5.1%),농목축임업(4.7%) 통신(4.5%), 건설업(4.3%), 에너지상수도(3.3%) 어업(3.0%) 호텔요식업(2.6%), 항만(1.7%), 광업(1.0%)
교역 규모 (콜론자유무역지대 제외)	수출 : 887백만불 (11.10% 증가) 수입 : 3,582백만불 (14.63% 증가)
교 역 품	수출 : 새우, 바나나, 설탕, 커피, 멜론 등 수입 : 원유, 자동차, 가전, 직물 등 2차산품

(자료원 : 파나마경제재무부, 파나마 감사원, WTA)

한 - 파나마 관계

체결 협정	- 문화협정 : 1974.6 서명, 1975.1 발효 - 항공협정 : 1979.12 서명, 1982.10 발효 - 투자보장협정 : 2001.7 서명, 2002. 2 발효 - 사증면제협정 : 2001.7 서명, 2002.2 발효 * 파나마운하 영구중립의정서 가입 : 1980.11.4
교역 규모	- 우리나라의 04년 수출 : 1,264백만불(0.9%) - 우리나라의 04년 수입 : 294백만불(64.1%) - 우리나라의 05년 1~5월 수출 : 594백만불(41.8%) - 우리나라의 05년 1~5월 수입 : 47백만불(-69.4%)
교 역 품	- 수출 : 수송기계, 광물성연료, 가정용전자제품 철강제품, 산업기계 등 - 수입 : 수송기계, 비철금속제품, 광물성연료 기타철강금속제품, 섬유사 등
투자 교류	우리나라의 대파나마 투자 현황 : 66건, 229백만불 (05.2월 현재)
교 민	311명 92세대 (05. 6월 현재) - 교민 : 107명, 36세대 - 공무원.지상사.주재원 등 : 204명, 56세대

(자료원 :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KOTIS, 한국수출입은행)

2. 경제동향 및 전망

민주혁명당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atico : PRD) 출신의 젊은 마르틴 토리호스 (Martin Torrijos) 대통령은 2004. 5. 2일 선거에서 승리한 후 2004. 9. 1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여당이 된 민주혁명당은 의회에서도 다수파를 차지하면서 전형적인 與大野小 정국에 이르게 되었다.

동 정권은 前 미레야 모스코소(Mireya Moscoso) 정권(1999-2004)이 행한 여러 가지 부패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수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로 구성되는 G-3 그룹에 가입하기도 했다.

마르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파나마운하 확장 프로젝트 자금 마련 등이다. 방만한 공공재정을 긴축화함으로써 비금융분야 재정적자 금액을 GDP금액의 2% 선에서 억제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파나마 경제는 2004년 서비스분야의 활발한 성장으로 6.2%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2005년 1/4분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바 있다. 그러나 신정부의 긴축정책으로 2005년 전체 성장률은 3.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까지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5% 선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前 미레야 모스코소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2005년에는 비금융 분야 재정 적자(NFPS) 규모를 GDP 대비 2%에 반드시 묶는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GDP 총액 (십억불)	11.8	12.2	12.9	13.7
실질 GDP 성장률 (%)	0.6	2.2	4.1	5.4
소비자물가 지수 (%)	0.3	1	1.4	2.1
인구(백만명)	3	3.1	3.1	3.2
상품수출 (FOB 백만불)	5,992.40	5,315.10	5,051.30	5,940.50
상품수입 (FOB 백만불)	6,688.60	6,352.20	6,143.30	7,163.80
경상수지 (백만불)	-173.5	-92.3	-408	-469.6
외환보유고 (金 제외, 백만불)	1,091.80	1,182.80	1,011.00	1,076.00
외채총액 (십억불)	8.2	8.3	8.6	9
GDP 대비 외채이자 상환 비율(%)	12.5	19.7	14.1	15.7
대미화 환율	1	1	1	1

(자료원 : EIU, 2005년 5월 현재)

< 파나마 10대 수출대상국 >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3	점유율*	증가율**
	전체	798.75	887.4	299.53	100	38.26
1	미국	402.6	431.48	108.47	36.21	17.34
2	스페인	45.59	45.02	56.41	18.83	168.16
3	네덜랜드	15.38	38.77	27.68	9.24	37.45
4	스웨덴	48.26	57.83	12.62	4.21	-21.19
5	영국	5.95	6.55	11.86	3.96	264.86
6	코스타리카	33.47	36.75	9.05	3.02	-4.71
7	벨기에	24.34	29.54	8.35	2.79	-9.21
8	멕시코	12.06	13.87	7.08	2.37	128.53
9	대만	6.62	11.03	5.05	1.69	104.8
10	이탈리아	9.52	12.33	4.4	1.47	53.08

< 파나마 10대 수입대상국 >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3	점유율*	증가율**
	전체	3,124.88	3,582.01	928.86	100.00	18.92
1	미국	1,066.13	1,031.04	263.95	28.42	8.31
2	콜론자유무역지대	390.60	445.55	104.92	11.30	9.13
3	쿠라사오 아일랜드	89.61	254.84	95.00	10.23	59.51
4	일본	193.23	189.19	48.90	5.27	10.93
5	코스타리카	151.13	177.42	41.25	4.44	-3.23
6	멕시코	119.15	142.85	35.12	3.78	18.33
7	브라질	95.16	116.76	32.45	3.49	35.79
8	콜롬비아	123.19	131.75	27.92	3.01	11.94
9	트리니다드 토바고	19.55	21.31	21.21	2.28	385.81
10	한국	63.80	101.15	21.06	2.27	1.89

< 파나마 10대 수출품>

(단위 : 백만불)

HS	품목명	2003	2004	2005. 1~3	점유율*	증가율**
	전체	798.75	887.40	299.53	100.00	38.26
08	과실과 견과류	157.64	191.01	124.80	41.67	61.51
03	어류, 갑각류	379.77	415.71	104.06	34.74	25.86
07	채소	12.17	9.91	10.03	3.35	258.88
72	철강	5.02	21.16	5.85	1.95	232.57
02	육류	13.39	18.71	5.38	1.80	39.11
17	당류	12.95	10.62	4.77	1.59	1,011.84
09	커피, 차	12.83	11.17	4.70	1.57	53.67
04	낙농품	8.65	11.25	3.94	1.32	72.01
48	지와 판지	11.79	15.69	3.52	1.18	34.66
30	의료용품	14.68	13.17	3.49	1.16	-2.24

< 파나마 10대 수입품>

(단위 : 백만불)

HS	품목명	2003	2004	2005. 1~3	점유율*	증가율**
	전체	3,124.88	3,582.01	928.86	100.00	18.92
27	광물성연료	366.28	522.56	161.37	17.37	41.40
87	자동차 및 부품	342.86	376.71	98.19	10.57	13.61
85	전기기기 및 부품	273.74	304.07	93.33	10.05	42.58
84	기계류	310.49	348.70	85.52	9.21	5.45
30	의료용품	138.70	154.42	36.05	3.88	-3.15
39	플라스틱 및 부품	106.50	122.26	30.47	3.28	5.89
48	지와 판지	101.68	111.39	29.99	3.23	8.27
72	철강	101.86	144.60	28.68	3.09	21.18
21	각종 조제식료품	65.31	67.25	16.77	1.81	-2.50
10	곡물	64.12	63.11	16.09	1.73	328.26

* 2005년 1~3월 전체 수입규모에 대한 국별/품목별 점유율

** 2005년 1~3월 실적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원 : 파나마 감사원, 2005. 6월 현재)

3. 한국과의 무역관계/한국-파나마 수출입 현황

한국과 파나마의 무역관계는 매년 한국이 흑자를 이루고 있다. 對파나마 수출품목 중 선박은 파나마에 실제 수출하는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가 비용이 저렴한 편의선박등록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국가에서 발주했으면서 파나마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파나마로 수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기타 대기업체의 콜론 보세창고 보관용 상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對파나마 수출은 연간 2천만불 정도이다. 파나마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교역관계도 없다.

1. 한국의 對파나마 품목별 수출실적(MTI 3단위 기준)

(단위 : 천불, %)

코드	품목명	2004		2005. 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1,263,797	0.9	593,620	41.8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990,435	-8.5	447,409	41.6
133	석유제품	46,914	181,054.7	51,173	192,947.8
821	영상기기	27,404	64.3	19,952	87.4
741	자동차	37,232	84.1	15,172	68.6
824	가정용회전기기	22,177	11.9	11,222	2.0
612	선재봉강및철근	0	-	7,181	-
320	고무제품	12,459	42.0	5,173	-3.1
823	냉장고	8,167	-29.1	4,929	74.2
613	철강판	20,350	57.0	3,590	-63.1
812	무선통신기기	6,231	46.2	3,353	-31.5

(자료원 : KOTIS, 2005. 6월 현재)

2. 한국 對파나마 품목별 수입현황(MTI 4단위 기준)

(단위 : 천불, %)

코드	품목명	2004		2005. 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293,866	64.1	46,523	-69.4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86,065	70.1	43,742	-70.4
622	동제품	1,318	506.3	1,782	590.2
133	석유제품	2,458	62.8	586	-15.3
621	알루미늄	103	106.5	145	513.2
618	합금철선철및고철	38	-99.1	116	2,281.8
690	기타철강금속제품	7	-	44	-
421	천연섬유사	0	-	36	-
310	플라스틱제품	45	97.7	32	112.2
741	자동차	0	-	11	-
919	기타인쇄물	23	103,372.7	8	-

(자료원 : KOTIS, 2005. 6월 현재)

4. 한국과의 투자관계

한국의 對파나마 투자는 2005년 5월 말 현재 다음과 같다.

<연도별 대파나마 투자 추이>

(단위 : 건, 천불)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0~1990	55	64,206	45	51,932
1991	5	21,480	7	11,030
1992	3	9,400	6	16,240
1993	1	5,857	0	6,057
1994	4	13,191	4	8,541
1995	3	18,795	1	17,426
1996	3	6,955	1	8,850
1997	5	20,628	1	3,900
1998	3	22,245	1	18,125
1999	0	19,650	0	19,199
2000	0	0	0	0
2001	0	17,000	0	17,000
2002	1	4,501	0	4,500
2003	0	21,000	0	21,000
2004	0	5,000	0	5,000
2005. 1~5	0	20,000	0	20,000
누계	83	269,908	66	228,8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005. 6월 현재)

<업종별 대파나마 투자진출현황(누계)>

(단위 : 건, 천불)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17	138,840	16	126,100
농림어업	28	53,383	24	49,358
도소매업	10	61,780	8	44,150
운수창고업	20	15,389	10	8,715
서비스업	8	516	8	477
총	83	249,908	66	208,8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005. 6월 현재)

- o 투자업체 중에는 동원수산, 서진해운, 한국특수선과 같은 해운업체, 삼성전자, LG전자, 한창, 유풍실업과 같은 제조업체가 투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기업등록이 자유로운 파나마의 기업법을 활용하여 실제 투자와는 관계없이 업무 편의상 파나마에 기업을 등록해 놓은 데 불과하며 실제로는 파나마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 진출은 전무한 실정으로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상사지사, 현지투자 판매법인 및 소수 교민업체가 콜론에 진출해 있는 정도이다.

- 현지 법인 : (주)대우, 대우전자, 삼성물산, 삼성전자, LG전자, 선경
- 지사/지점 : 외환은행,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볼보 중공업

o 2001년 7월 Jose Miguel Aleman 파나마 외무부 장관 방한시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 간 서명된(7.10) 한.파나마 사증 면제협정이2001. 8.9.(목)부로 발효해, "조약 제1569호"로 공포되었다. (관보 14868호, 2001.8.4.자)

o 이에 따라 유효한 여권 (외교관,관용,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입국일 부터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 입국 가능하다.

5.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비자>
2001년 7월 Jose Miguel Aleman 파나마 외무부 장관 방한시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 간 서명한 韓.파나마 사증 면제협정이 2001.8.9일부로 발효해, "조약 제1569호"로 공포되었다(관보 14868호, 2001.8.4자). 이에 따라 유효한 여권 (외교관, 관용,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을 통해 파나마나 중남미로 출장을 실시할 경우 미국 경유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국을 경유한 파나마 여행은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캐나다를 통해서는 왕래할 수 있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파나마 向發 항공사 카운터에서 Boarding Pass 교부시 Tourist Card를 $5에 구매 요구할 경우, 비자면제협정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도 구매할 것을 요구할 경우 1인당 1매씩 구입하되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파나마 도착한 후 환불받을 수 있다. 황열병, 말라리아 등 특정 풍토병 예방접종 필요없다.

<출입국 심사 및 통관>
여행자는 담배 25갑, 시가 50개 및 술 3병까지 면세 반입 가능하며 과일, 채소, 식품, 꽃, 동물 등은 검역대상으로 규제한다. 한국에서 오면서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갖고 올 경우 세관직원이 세밀하게 검사하므로 이는 삼가해야 한다.

특히 현지에 처음 부임하는 사람들의 이사짐에 이러한 식품 종류 반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방 접종>
입국시 요구하는 예방접종은 없다.

<외환 신고>
미화 US$10,000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한다.

(자료원 :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현지 실사)

6. 환전

파나마는 1903년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한 이래 미국과의 통화협정에 의거 자체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미국 달러貨를 법정통화(dollarization)로 사용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공식적으로 미달러화를 발보아(Balboa;B/.)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1달러 이하 동전만을 주조하여 미화 동전과 혼용하여 사용 한다. 따라서 당연히 환율은 항상 US$1 = B/. 1 이다.

파나마를 명실공히 국제 금융서비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달러화 이외에 유로화를 함께 사용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남미 다른 나라처럼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없으며 환전 개념도 없다. 파나마가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해외 각국의 100여개 외국은행 영업)로 크게 발돋음한 것은 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환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미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도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가는 저렴하지 않으며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지폐, 동전 모두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단지 단위가 큰 지폐(10달러, 20달러, 100달러 등)는 거스름돈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잔돈으로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고액권 달러화 위조지폐가 나돌면서 이에 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특히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1달러나, 25센트, 10센트 등 잔돈을 반드시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택시 운전사에게 1달러 이상의 큰 지폐를 건내 주면 잔돈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항상 발생한다. 따라서 반드시 잔돈을 준비해야 한다. 50달러, 100달러 지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중남미 다른 나라에서 환전해서 사용하던 화폐(예 :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를 소량 소유하다가 은행에 가서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해 주지 않으므로 파나마에 오기 전에 아예 미화로 환전해야 한다.

7. 기후

<기후>

파나마의 기후는 적도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연중 고온다습하며,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는 열대우림 기후에 가까운 특색을 보인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날씨가 맑고 뜨겁다가도 순식간에 먹구름이 생기고 어두워지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1시간~2시간 가량 집중적으로 내린다. 그러나 카리브에서 볼 수 있는 허리케인 등 폭풍 등은 없으며 비가 온 후에도 즉시 빗물이 증발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말라 버린다. 따라서 홍수로 인한 재해는 발생하는 예는 드물며 그 정도도 크지 않다. 간혹 인근 코스타리카에서 强震이 발생할 경우 그 여진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우려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건기는 11월말부터 4월말까지 5개월 간 계속되며 우기는 5월부터 시작되어 11월말에 끝난다. 높은 기온이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계절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나, 현지인들은 건기를 여름,

우기를 겨울이라고 부른다. 우기에는 습도가 매우 높으나 비가 오지 않는 계절(12월~3월)에는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밤에도 바람이 부는 등 불쾌지수는 높지 않다. 그러나 3월 말 정도가 되면 이미 공기가 후덥지근해지고 습도가 올라가 마치 한국의 장마철과도 흡사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4월, 5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비가 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느끼는 무더위보다는 덜 덥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통상적인 기후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월	강우량(㎜)	평균기온(c)	평균습도(%)	평균기압(㎜b)	평균풍속(㎞/h)
1	47.2	26.7	72.2	1,011.0	15.3
2	4.7	27.1	70.8	1,010.3	15.9
3	26.6	26.4	68.4	1,010.0	15.9
4	86.2	28.2	70.9	1,009.1	13.3
5	216.1	28.5	79.8	1,009.4	9.3
6	180.5	28.5	76.9	1,009.3	8.1
7	154.1	28.6	79.0	1,009.8	8.5
8	235.4	28.9	77.6	1,010.4	8.9
9	308.6	28.0	77.4	1,009.6	8.9
10	277.7	27.7	79.6	1,009.5	9.0
11	253.9	27.5	79.5	1,009.4	10.5
12	82.2	27.0	72.6	1,009.5	15.0
전체	156.1	27.7	75.4	1,009.8	12.4

파나마의 일일 날씨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http://www.kweather.co.kr/weather/newworld/world_s140.html

<출장시 추천복장>

기후가 덥기 때문에 현지인, 특히 남성은 넥타이, 긴 팔 셔츠 등 정장 차림을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으며 직장, 업체, 사무실, 공공기관에서도 가벼운 남방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하복 양복에 긴 팔 소매 와이셔츠가 무난하다. 사무실 내에는 보통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 반팔 소매로는 한기를 느끼며 감기 들기 쉽다.

(자료원 : 현지 실사)

8. 공휴일

<2005년>

일자	공휴일명
1/1	신년 휴일
1/9	순교자의 날(Martyrs' Day)
2/7 - 8	카니발(Carnival – 물의 축제라고도 함.)
3/24 - 25	부활절 휴일(Good Friday, Easter Holiday)
5/1	노동절(Labor Day)
8/15	파나마시 건립기념일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Panama City)
11/2	만성절(Memorial Day)
11/3	콜롬비아로부터의 독립기념일 (Anniversary of Separation from Colombia)
11/4	국기의 날(Flag Day)
11/10	로스산토스 독립항쟁기념일 (Anniversary of 1st Call for Independence in Los Santos)
11/28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기념일 (Anniversary of Independence from Spain)
12/8	어머니의 날(Mothers' Day)
12/25	크리스마스(Christmas Day)

(자료원 : 현지 실사)

9.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GMT 보다 5시간 늦으며 한국보다 14시간 늦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침 9시일 때 파나마는 전날 밤 7시이다. 따라서 업무상 현지와 전화 연락하기는 매우 불편하다. 미국의 뉴욕, 마이아미 등과 시간대가 같으며 미국이 서머타임 실시할 때는 미국보다 1시간 늦다. 파나마는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연중 시각이 항상 같다. 밤, 낮의 길이 차이도 연중 크게 나지 않는다. 일교차도 별로 없다.

세계 각국 시간 비교는 http://www.timeanddate.com/worldclock/ 에서 가능하다.

<근무시간>

파나마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은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업한다. 반면 관공서 근무시간은 기관마다 차이가 나므로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된다. 매년

12월은 휴가를 가는 사람도 많고 기업체도 일찍 퇴근하거나 휴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일을 보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근무시간 : 08:30 ~ 16:30
은행개점시간 : 08:00 ~ 15:30
일반 기업체 : 08:00 ~ 17:00
일반 상점 : 09:00 ~ 20:00

<회계년도>

정부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료원 : 현지 실사)

10. 호텔

<일반호텔>

호 텔	상 세 정 보
HOTEL EL PANAMA Via Espana, P.O.BOX 1753 Panama1,Rep. of Panama Tel : 507-269-5000/269-8023 Fax : 507-223-6080 E-mail : reservas@elpanama.com Website : www.elpanama.com Room Rate : (세금 10% 별도) Single US$95 Double US$95 (KOTRA 할인가격)	. 파나마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의 하나로 도시 중심부에 있다. . Via Espana 쇼핑거리와 한국 식당이 가까이 있다.
CAESAR PARK HOTEL Via Israel & 77 Street, San Francisco P.O.BOX 6-4268 El Dorado, Rep. of Panama Tel : 507-270-0477 Fax : 507-226-0116 Email : info@caesarpark.com Website : www.caesarpark.com Room Rate : (세금 10% 별도) Single US$95 Double US$95 (KOTRA 할인가격)	. 비교적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으로 국제회의나 사절단 상담회 개최시 적합하다. . ATLAPA 전시장 맞은 편에 있어 파나마박람회 참가시 투숙호텔로 이용된다. . 바닷가에 가까이 위치해 전망이 좋다.
MARRIOT HOTEL Calle 52 Bella Vista y Calle Ricardo Arias, P.O.BOX 832-0498 WTC, Rep. of Panama Tel : 507-210-9100 Fax : 507-210-9110/210-9311 Website : //www.marriothotels.com/ptypa Room Rate : (세금 10% 별도) Single & Double US$150	. 최근 98년도에 세워진 새 호텔로 한국 대사관 근처에 있다.

MIRAMAR INTER-CONTINENTAL Plaza Miramar,Avenida Balboa,P.O.BOX 7336 Panama5, Rep. of Panama Tel : 507-214-1000 Fax : 507-223-4891 Email : panama@interconti.com Website : //www.interconti.com/ Room Rate : (세금 10% 별도) Single US$99 Double US$99 (KOTRA 할인가격)	. 파나마 시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나마에서 최고급 호텔이다.
Four Points Hotel Sheraton Calle 53 Marbella y Avenida 5a. B Sur, P.O.BOX 832-0239 WTC, Rep. of Panama Tel : 507-265-3636 Fax : 507-265-3567 Email : reservas.sheraton@ghl.com.co http://www.ghl.com.co/ Room Rate : (세금 10% 별도) Single & Double US$100 (KOTRA 할인가격) * 구 Radisson Hotel	. 무역관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 World Trade Center 단지에 있는 호텔로 무역관을 활용코자 하는 비즈니스 출장자에게 편리하다. . 고급호텔이지만 무역관을 통하여 예약 할 경우 30% D/C된다.

<비지니스 호텔>

호 텔	상 세 정 보
HOTEL CONTINENTAL Via Espana, Ricardo Arias Street P.O.BOX8475 Panama7, Rep.of Panama Tel : 507-263-9999 Fax : 507-263-5143/265-6378 Email : reservas@hotelesriande.com continental@hotelesriande.com Room Rate : (세금 10% 별도) Single US$70 Double US$75 (KOTRA 할인가격)	. 파나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 근처에도 같은 이름의 호텔이 있다. . 따라서 택시를 탈 경우 파나마 시내 Via Espana에 있는 호텔로 가자고 해야 한다.
HOTEL GRANADA Via Espana y Eusebio A. Morales, P.O.BOX 8457 Panama7, Rep. of Panama Tel : 507-264-4900 Fax : 507-264-0930 Room Rates : (세금 10% 별도) Single US$50 Double US$50 (KOTRA 할인가격)	. 무역관을 통하여 예약하면 비교적 경제적인 요금에 투숙할 수 있다.

<아파트형 호텔>

호 텔	상 세 정 보
APARTOHOTEL LAS VEGAS P.O.BOX "D" Balboa, Rep. of Panama Tel : 507-269-0722 Fax : 507-223-0047 Email : hotel@lasvegaspanama.com Website : www.lasvegaspanama.com Room Rates : (세금 10% 별도) Single US$35 Family US$48 (KOTRA 할인가격)	. EL PANAMA HOTEL 뒤에 위치
APARTOHOTEL TORRES DE ALBA Tel : 507-269-7770 Fax : 507-269-3924 Email : alba@sinfo.net Room Rates : (세금 10% 별도) Family US$75 (KOTRA 할인가격)	. EL PANAMA HOTEL뒤에 위치해 있으며 최고급 아파트호텔이다.
APARTA COSTA DEL SOL Tel : 507-206-3333 Fax : 507-206-3336 Email : costasol@sinfo.net Website : www.costadelsol-pma.com Room Rates : (세금 10% 별도) Single US$52 Double US$45.00 Triple US$57 (KOTRA 할인가격)	.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형 호텔이다.

(자료원 : 각 호텔별 홈페이지, 현지 실사)

11. 식당

<식당>

파나마시에는 세계 각국(이태리, 불란서, 한국, 일본, 중국,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 스위스 등)의 식당과 파나마 전통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 등이 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원래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人의 味에 맞도록 음식을 내놓고 있어 가격만 비싸고 큰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파나마의 식단은 그리 다양하지 않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다가 쌀을 기름에 볶은 것, 햄, 소시지, 콩(현지어로는 poroto, lenteja)을 푹 삶은 것이 대부분이다. 100% 가까운 음식에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기거나 익혀서 지방이 매우 높으므로 단백하고 얼큰하고 느끼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성에는 맞지 않는 음식이 대부분이다. 기름을 많이 쓰고, 탄산음료나 주스를 많이 마시고 특히 디저트류는 糖度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자연히 비만 환자가 인구의 100%에 가깝다. 이러한 비만 환자가 많은 것은 파나마 전체적으로도 문제로 대두되는 정도이다. 파나마 어디를 가든지 도처에 중국식당이 있으나 막상 내놓는 음식은 한국인 식성에 잘 맞지 않은 음식이 대부분이다. 일본식당도 파나마 시내에 몇 군데 있으나 매우 비싸며 역시 파나마人의 식성에 맞도록 만든 음식이어서 가격이 매우 비싸다. 한국식당은 한국관(Korea

House), 서울식당(Restaurante Seoul) 두 곳이다.

<한국식당>

- 서울식당
  위치: Via Espana y Calle 46 Venezuela
  전화: 264-2785

- 한국관
  위치: Calle 52 Este, Campo Alegre (Cine Aries 극장 맞은편)
  전화: 223-0176

< 현지식 및 외국 식당 >

- Trapiche
  위치 : Via Argentina, Cangrejo
  전화 : 269-4353
  주요리 : 파나마 전통 음식
  참고 : 파나마의 다양한 토속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파나마 음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야 할 식당이다. 파나마인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한다. 파나마시민 중 이 식당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유명 식당이다.

- Restaurante Boulevard Balboa
  위치 : Avenida Balboa
  전화 : 225-0914
  주요리 : 일반 대중 음식
  참고 : 파나마의 전형적인 대중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며 파나마의 유명 변호사, 정치인 등도 애용하는 식당이다. 평일 들려 보면 파나마의 화이트컬러 직장인 등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식당이다. 파나마 정치인, 고위인사 등도 다수 들리는 식당이다.

- Gaucho's Steak House
  위치 : Calle 48 y Av. Uruguay Casa No. 20V
  전화 : 263-4469
  주요리 : 아르헨티나식 스테이크(parrillada, asado)
  참고 : 가격은 비싼 편이나 아르헨티나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아르헨티나산 고기는 구제역병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는 미국산을 쓴다고 한다. 파나마에서는 가장 좋은 스테이크 식당 중의 하나이다.

- Restaurante Rodizio
  위치 : Via Italia Punta Paitilla, Edificio Posada del Rey,
  Planta Baja
  전화 : 263-0666
  주요리 : 브라질식 스테이크
  참고 : 비교적 가격은 비싼 편이나 브라질식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 Romanaccio
  위치 : Galeria Marbella(파나마무역관 인접)
  전화 : 264-9482
  주요리 : 스파게티, 피자 등 이태리 음식 및 고기, 생선 등
  참고 : 비싸지 않은 가격에 스파게티, 피자, 생선 등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식당이다. 산뜻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음식 맛도 매우 좋다.

- BAHIA BALBOA
  위치 : Avenida Balboa
  전화 : 223-7751
  주요리 : 해산물,석쇠구이
  참고 : 해산물로 유명하며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바다가 보인다.

- BENIHANA
  위치 : Calle 60 E, Obarrio
  전화 : 263-9817
  주요리 : 일식
  참고 : 우동, 회, 통닭구이 등이 좋은 일식 전문점으로 비교적 값이 싸다.

- Fuji
  위치 : Via Brasil #C-32, Urbanizacion Obarrio
  전화 : 223-7868, 223-7869, 223-7780
  주요리 : 일식
  참고 : 우동, 회, 도시락 등이 좋은 일식 전문점으로 다른 일식당에 비해 값이 싸다.

- Nobu
  위치 : Calle 49 y Calle Uruguay
  전화 : 265-1311
  주요리 : 일식
  참고 : 우동, 회, 도시락 등이 좋은 일식 전문점이다.

- EL CORTIJO
  위치 : GRANADA HOTEL 근처 EL CANGREJO 도로상에 위치
  전화 : 269-6386
  주요리 : 해산물 및 양식
  참고 : 파나마의 최고급 식당 중 하나로 아늑한 분위기가 좋다.

- TRES CALINI
  위치 : FELIX MADURO 백화점 뒤편에 위치
  전화 : 269-9951
  주요리 : 이태리요리
  참고 : 파나마에서 이태리요리로는 가장 유명한 식당이다.

- LA CASA DEL MARISCO
  위치 : Avenida Balboa

전화 : 223-7755
주요리 : 해산물
참고 : 실내 장식이 매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

- LAS TINAJAS
위치 : EL EJECUTIVO HOTEL주변의 Calle 51, BELLA VISTA
전화 : 269-3840
주요리 : 파나마전통 요리
참고 : 파나마 고유의 요리법으로 유명하며 파나마 전통무용 공연이 있다.

- Lung Fung(龍鳳)
위치 : Avenida Transistmica
전화 : 260-4011
주요리 : 중국요리
참고 :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대중 중국식당이나 음식 맛은 크게 좋은 편은 아니다.

- MARBELLA
위치 : Avenida Balboa
전화 : 225-9065
주요리 : 해산물,스페인요리
참고 : PAELLA와 해산물로 만든 스프가 일품. 큰 새우요리와 가재요리가 맛있다.

- PORTOBELLO
위치 : EL PANAMA HOTEL 내
전화 : 269-5000
참고 : 전통 프랑스, 라티아메리카 및 파나마 음식을 한다.
- Mexicanita
위치 : Calle 53
전화 : 263-8277
주요리 : 멕시코 음식
참고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멕시코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메뉴는 다양하지 않다.
(자료원 : 현지 실사)

12. 교통/통신/교통,통신

<우리나라와의 교통>

파나마 COPA항공에서 LA-파나마 직항노선을 2000. 6.1.부터 매일 운행함에 따라 파나마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 서울-LA-파나마 직항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즉 미국 CONTINENTAL 항공이 COPA 항공 경영권을 인수하고 516백만불을 투자하여 12대의 보잉 737-200을 구매, 중남미 항공노선을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파나마 출장은 LA를 경유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LA에서 마이아미를 거쳐 파나마로 가거나 멕시코시티, 칸쿤을 거쳐 파나마로 가는 비행편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단체여행의 경우 너무 싼 비행기표에 치중하면 LA-파나마 구간 사이에 여러 도시를 Transit하는 비행편이 될 수

있는데 각 도시 공항마다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너무 힘든 여행이 될 수 있으므로 티켓팅시 중간경유지 여부 및 탑승 연결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욕을 거쳐 가는 경우에는 뉴저지 Newark공항에서 출발하는 CONTINENTAL 항공의 뉴욕-파나마간 직항 노선을 타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Newark 공항이 아닌 케네디공항 등 다른 공항에서 내릴 경우에는 뉴욕이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음 연결 항공편 탑승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 중남미행 비행기로 갈아 탈 때는 2시간 전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중남미행 비행기에 CHECK-IN 해야 짐이 제대로 온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중남미행 비행기에는 오버부킹 사례가 많아 늦게 수속한 사람들의 짐이 같이 오지 못하고 다음 날 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2년 3월 파나마종합박람회 참가하기 위해 도착한 한국 업체 출장자들이 모두 도착했지만 짐은 그 다음 날 도착한 경우가 있다. 또한 미주지역에서 파나마를 경유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파나마공항에서 항공편이 같은 편이더라도 비행기가 바뀐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파나마를 경유하여 L.A.로 가는 CM 448(파나마 COPA 항공)의 경우, 파나마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며 만약 부에노스-파나마간 노선이 연착하면 이미 파나마-L.A.간 CM 448은 출발한 상태로서 파나마에 하루를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투숙하고 다음날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정이 하루씩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중남미 출장 시에는 선진국과 같이 모든 것이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여유 있게 스케줄을 잡고 만약에 파나마 등 경유지에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상시 휴대해야 한다.

미국을 경유해 파나마로 여행할 때 반드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유럽으로 오는 경우 항공료는 2배 가량 비싸진다.

<국내교통>

외국인은 버스 이용이 어려우나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힘들므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미터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나 파나마는 도시 규모가 작아 보통 US$ 1-5정도의 요금으로 웬만한 거리는 다 갈 수 있으며 콜택시의 경우, 호출요금으로 40 센트 정도 더 주면 된다. (팁 제도 없음.)

택시운전사 바가지 요금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호텔택시를 이용할 경우 보통 택시 요금의 3-4배 비싸다. 그러나 일반택시들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택시들이 대다수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택시회사는 America Libre라는 회사로 택시 윗면에 회사명을 달고 다닌다.
한편 콜론자유무역지대로 출장할 경우에도 파나마시-콜론간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왕복 120-130불로 하루 택시를 전세 내는 것이 편리하다. 콜론자유무역지역에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택시는 콜론자유무역지역 출입구까지 이용하고 그 안에서는 걸어 다녀야 한다. 콜론자유무역지역을 출장하는 경우에는 KOTRA 해외세일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이어 상담 주선, 출입절차 간편 등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참고 : 공항-파나마시내 : US$ 25 (편도)
       파나마시-콜론 : US$ 60-65 (편도)

<국제통신>

파나마는 국제전화료가 무척 비싸다. 서울 통화시 1분에 US$4이며 호텔에서는 1분당 US$7씩 받고 있어 전화를 잘못하면 호텔요금보다 전화요금이 훨씬 많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가급적 전화통화를 빨리 끝내고 한국에서 전화를 하게 하거나 Collect Call(교환 106)을 활용하여야 한다. 호텔에 따라 Collect Call도 요금의 30%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화를 하게 하거나 공중전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00)-(82)-(지역번호 : 앞의 0번은 제외)-(국번)-(전화번호)를 하면 된다.

<국내통신>

국내통신요금은 저렴한 편으로 파나마시내의 경우 1분에 2센트이며 콜론시외 전화의 경우 1분에 15센트이다.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셀룰라폰에 전화하는 경우 분당 33센트이며 셀룰라폰을 사용하여 전화하는 경우 분당 약 35센트(요금제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다.

(자료원 : 현지 실사)

13. 유용한 연락처

<한국대사관 및 KOTRA 연락처>

ㅇ 대사관
- 전화 : (507)264-8203, 264-8360, 269-2257
- 팩스 : (507)264-8825
- 주소 : Apdo. 8096, Panama 7, Calle 51E,
  Ricardo Arias, Campo Alegre,
  Edificio Plaza P.B.
  Rep. de Panama
-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panama/
- 이메일 : panama@mofat.go.kr

ㅇ 파나마무역관(Korea Trade Center)
- 전화 : (507)264-8105, 264-7970
- 팩스 : (507)264-0928
- 사서함 : P.O. Box 0832-2250, W.T.C., Panama, Republic of Panama
- 주소 : Oficina 1705, Edificio "World Trade Center",
  Calle 53E, Marbella, Bella Vista, Rep. de Panama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panama/
- 이메일 : kotra@psi.net.pa, kotra1@psi.net.pa

※ 파나마에는 우편배달부 제도가 없어 일반 우편물은 반드시 P.O. Box 주소를 이용해야 함. DHL, Express Mail 등 특사배달의 경우,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배달이 가능함. 따라서 일반 우편으로 보낼 경우는 반드시 P.O. Box를, 특사로 보낼 경우는 실제 주소를 이용하시기 바람.

ㅇ 전화번호 문의 : 102
ㅇ 한인회 : (507) 263-3762
ㅇ 한인교회 : (507) 315-0367, 628-5888
ㅇ 한인 카돌록공동체 : (507) 213-0123
ㅇ 한인골프회 : (507) 210-1122
ㅇ 경 찰 : 104 , 사법경찰 : 262-6077, 경찰 : 232-5090, 232-5957
ㅇ 화 재 : 103
ㅇ 긴급 의료 기관 요청 전화 : Central Telefonica : 263-6060, 269-0333
- 앰블란스 요청 : Cruz Roja 228-2187
- 종합병원 응급실 : Clinica Paitilla 269-5222, 263-7977
- 야간 의사 문의 : 269-5222, 263-7977
- 야간 약국(공휴일 포함) : Arrocha, Shell 주유소(24시간) 각 지역마다 있음.
ㅇ 차량 수리
- 현대 대리점 : 전화 236-7475, 236-1382, Fax 236-7980,
ㅇ 전화 고장시 : Cable & Wireless 888,123
ㅇ 수도 고장시 IDAAN : 223-1340, 229-3419, 3477
ㅇ 전기 고장시 Elektra 800-0111, Edenet Edechi 315-7222
ㅇ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Locksmith) : 225-3224, 0932

(자료원 : 현지 실사)

14.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준비>

ㅇ 의복 준비

파나마는 적도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므로 가벼운 하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에어컨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비즈니스에는 긴 소매 와이셔츠에 하복정장 등을 주로 착용한다.

ㅇ 전기규격

파나마의 전기규격은 안전을 중시하는 미국과 같은 110V 60Hz이다. 일부 호텔이나 아파트에는 220V 단자도 있긴 하나 보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110V/220V 겸용(Free Voltage) 전자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랜스포머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여행여건>

ㅇ 치 안

파나마는 비교적 치안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마약 사용자가 늘어 나고 있으며 노리에가 사태 때 방출된 총기가 완전 회수되지 않아 간혹 시중에 총기가 나돌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파나마 시내는 치안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콜론, 산미겔리토(San

Miguelito) 등 지역에는 치안상태가 나쁘다. 파나마 시내에도 Chorrillo 같은 지역은 현지인도 출입을 꺼리는 할렘으로 접근을 절대 삼가해야 한다. 동양인을 “chino”라고 부르면서 깔보는 습성이 있다.

ㅇ 택 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위치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대부분 찾아갈 수 있다.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우편 주소가 없기 때문에 거리이름과 번지수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건물 옆의 큰 장소, 전화국 옆의 큰 약국, 어느 길모퉁이" 등과 같이 어림 짐작 또는 경험으로 장소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현지인들은 명함에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주소를 표기한다. 시내의 경우 택시비는 US$1 내지 US$3 내외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잡을 수도 있으며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다. 호텔전용시의 경우는 일반 콜택시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나 택시대절 관광 등에 편리하다.

ㅇ 팁 관행

식당에서는 10% 내외의 팁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택시는 팁이 없다.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 줄 경우 가방당 US$1 정도의 팁이 보통이며 투숙호텔에서 침실 청소시 침대 눈에 띄는 곳에 침대당 US$1 정도 놓아 둔다.

ㅇ 식수

연중 비가 많이 오는 나라로 수질이 좋기 때문에 수도물은 식수로 이용한다. 물론 슈퍼마켓에 가면 생수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Panama)라는 말 자체가 “생선과 물이 많다”라는 중미 원주민의 옛날 말이다.

ㅇ 물가

파나마는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수준은 싼 편은 아니다.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는 파나마의 평균관세는 8.25%로 중남미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대부분 공산품 관세가 5-15%이며 농산물 등 식료품은 무관세(자국 생산품 제외)가 많다. 그러나 쌀, 감자 등과 같은 자국 생산 농산물은 관세가 매우 높다. 일반 상품 이외의 서비스 요금(예 : 전화기 수리, 컴퓨터 수리, 인터넷 등)은 한국에 비해 대단히 비싸지만 기술 서비스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

<건강 유의사항>

ㅇ 건기

12월 중순에서 4월중순까지의 건기철 기간에는 직사 광선이 강해 일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ㅇ 우기

4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우기에는 습한 기후에 의한 피부염 및 모기에 의한

dengue(뎅게), 말라리아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병은 걸리고 나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자료원 : 현지 실사)

15. 관광명소

<관광명소>

파나마의 관광정보는 파나마관광청(Instituto Panameno de Turismo : IPAT) 홈페이지 http://www.ipat.gob.pa/ 에서 입수할 수 있다. 파나마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으나 아직 미개발 상태인 것이 대부분이다.

ㅇ 파나마운하(Canal de Panama)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의 하나인 파나마운하는 1881년 불란서가 시공한 이래 미국이 완공한 1914년까지 64억불이 투입되고 25,000여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절토량은 San Francisco 에서 뉴욕까지 만리장성을 쌓기에 충분한 엄청난 대역사물이다.

배를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산정호수로 끌어올리는 3단계 갑문식으로 하루 평균 33척의 배가 횡단하고 있는데 MIRAFLORES갑문(시내에서 20분거리)과 GATUN갑문(50분거리)에서 대형 선박의 운하 통과를 볼 수 있다. 배가 운하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배를 끌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용수는 50만 인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양과 동일하다.

ㅇ 콜론자유무역지대 (Zona Libre de Colon)

전세계에서 홍콩 다음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대서양쪽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파나마시티에서 85KM)해 있다. 자유무역지대에는 현재 1,400여개 무역업체가 중남미 전역을 상대로 수출입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유태인, 아랍계, 중국계 및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 가운데 한국 교포 및 상사지사도 영업 중이다.

파나마 제2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콜론자유무역지대 외부 콜론 시내는 슬럼화해 있어 치안이 불안하고 데모, 시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 여행시 안내자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산블라스(San Blas)

대서양쪽 연안에 있는 350여개의 섬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Kuna 인디안들이 자치제를 이루어 살고 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이어나가고 있는 인디안 부락촌을 볼 수 있다. 파나마시티에서 경비행기로 접근 가능하며 콜론쪽에서는 선박편으로 갈 수 있다.

ㅇ Bambito 와 Boquete

파나마시에서 약 500KM를 서쪽으로 달리면 COSTA RICA와 국경지대인 치리키주의 Bambito와

Boquete에 다다르게 된다. 이곳은 해발 7,000피트 높이 산이 있어 '작은 스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규모 국화재배, 경마사육장, 송어양식장 등이 있고 등산을 즐길 수 있다.

ㅇ Panama Viejo

파나마에 현존하는 스페인시대의 제일 오래된 유적지로서 1519년에 건설되어 식민지 노획물을 스페인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건설된 기지이다. 1671년 영국 해적 Morgan의 침입을 받아 폐허화되었으나 현재 그 잔해가 남아 있어 관광지가 되었다. 위치는 파나마시내 태평양연안에 있다.

ㅇ Los Pueblitos

파나마 시내에 위치한 일종의 민속촌이다. 파나마의 전통 가옥, 복장, 토산품 등을 진열하며 야간에는 민속무용도 공연한다. 입장료는 1인당 1달러이다.

ㅇ Contadora 섬

파나마시에서 60㎞ 거리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관광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호텔 및 민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바다낚시를 할 수 있다. 경비행기로 15분 거리이며 선박편의 경우 5 6시간 소요된다.

ㅇ Coronado 해안

파나마 서쪽 80㎞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아름다운 백사장과 경관이 수려하며, 파나마시에서 가깝고 파나마 부유층 별장이 즐비하게 운집되어 있은 곳으로 호텔, 현대식 콘도, 미니골프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관광지이다.

ㅇ Portobelo 항구와 Isla Grande 섬

대서양쪽 160㎞ 지점, 카브리해안에 위치한 Portobelo항에는 스페인왕조 점령 당시의 요새와 성당 등이 남아 있다. Portobelo에서 작은 배로 15분 거리에 있는 Isla Grande 섬은 해변이 수려한 곳에 스쿠버 다이빙 및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호텔 등 숙박 시설이 있다.

ㅇ Panarail Tourism

파나마운하 근처 Balboa에서 Colon까지 운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최단 거리와 태평양, 대서양, 양대양을 볼 수 있는 기차 여행코스이다.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시 일부 철로가 파괴, 중단되어 오다가 2001.11.27 관광 열차로 개조, 개통됨. 운하 수로와 병행하여 달리는 객차로 바라보는 호수와 밀림의 경관은 한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하루 1회 왕복, 소요시간 1시간(07:15 Balboa 출발 08:15 Colon 도착, 17:15 Colon 출발, 18:15 Balboa 도착)이다.

ㅇ Casco Viejo(San Felipe)

1997년 UNESCO가 Casco Viejo 지역이 1800년초 건축된 도시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여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에는 대통령궁을 비롯하여 주요 관청과 프랑스

대사관, 운하 박물관, 광장, 성당 및 빈민촌이 함께 어울어진 건물들이 건축 당시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슬럼화되어 있어 야간에는 매우 위험하며 낮에도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Museo de Canal

파나마운하의 역사 박물관으로 파나마 운하 공사 당시의 건축 기자재 및 미국의 파나마 운하 인도 조약서 진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소요 시간 약 30분이다.

○ Amador

파나마 시내 정면 태평상 상의 조그마한 섬으로 파나마시내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파나마운하 입구에 위치하므로 과거 미군이 군사요새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관광, 산책로 등 공원지역이 되었다. 섬과 파나마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폭이 약 10M 정도로 양 옆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 야외운동으로 최적의 장소이다. 섬에는 다양한 식당이 있다. http://www.fuerteamador.com/

○ Puente de las Americas(Bridge of the Americas)

파나마운하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길이 3KM의 해상 아치형 다리로 말 그대로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다리 북쪽으로 계속 가면 파나마를 지나 코스타리카, 중미, 멕시코, 미국에까지 이르며 남쪽으로는 파나마 시내와 바로 연결된다.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파나마운하의 선박, 푸른 바다, 항구 등의 모습이 장관이다.

(자료원 : 파나마 관광청, 현지 실사)

16. 유용한 현지어 표현

파나마는 다른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미국과의 관계가 깊은 연유로 영어가 비교적 잘 통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웬만한 기업체 사장, 책임자, 정부부처 담당자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대로 영어로 조금씩 의사를 소통할 수 있다. 이 점은 영어를 아예 무시하는 남미 국가와 매우 다른 점이다. 그러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반아어를 익히는 것이 장려된다.

<인사말>

Hola. 올라 (영어의 Hello에 해당)
Buenos Dias. 부에노스 디아스 (아침 인사)
Buenas Tardes. 부에나스 따르데스 (오후 인사)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저녁 인사이나 밤에 헤어질 때 사용)
Como estas? 꼬모 에스따 (안녕하십니까?)
Mucho gusto. 무쵸 구스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표현>

Muchas Gracias. 무챠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Permiso. 뻬르미소(실례합니다.)
Lo siento. 로시엔또 (미안합니다.)
Disculpe. 디스꿀뻬 (미안합니다.)
Hasta luego. 아스따루에고 (안녕히 가십시오)
Adios. 아디오스 (안녕히 가십시오.)
¿Cuanto vale? 꾸안또 발레(얼마입니까?)
Oiga. 오이가(여보세요.)

(자료원 : 현지 실사)

17. 국토

<위치>

파나마는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협(istmo) 국가로서 북위 7-9도, 서경 77-83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카리브해, 동으로는 콜롬비아, 남으로는 태평양, 서로는 코스타리카와 접한다. 콜롬비아로는 Darien이라는 열대 밀림, 늪지대가 접하고 있어 판아메리카고속도로망이 단절되어 있다.

<면적>

면적은 75,517 ㎢으로 한반도의 약 1/3 크기이다.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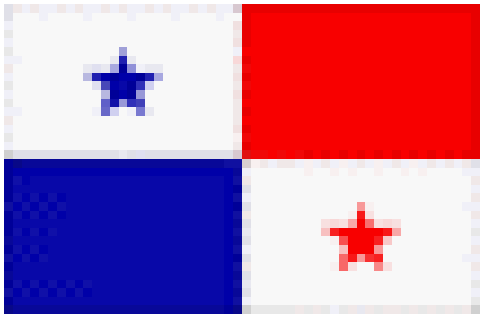
파나마는 지협형태의 국가로 지협폭은 최소 51㎞에서 최대 190㎞이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해안선의 길이는 태평양연안 1,400㎞, 카리브연안 788㎞에 달한다. 주요 산, 강, 호수는 다음과 같다.

산 - Baru 화산(3,475Km)
강 - Bayano(290Km), Tuira(230Km), Santa Maria(180Km), Chiriqui Viejo(142Km),
Changuinola(140Km)
호수 – 파나마운하 Gatun 인공호수(423㎢)

<부존자원>

파나마에는 금, 은, 동, 석탄 등 광물자원의 매장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생산하는 광물은 점토, 석회암, 바다소금(연간 약 2만톤 생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광업 분야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은 크다. Petaquilla 및 기타 지역에 약 3,000만톤의 銅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원 : EIU)

18. 국토/파나마 국기



파나마국기

(자료원 : 파나마 대통령실)

19. 국토/파나마 지도

(자료원 : EIU)

20. 국토/탐험가 발보아, 태평양 발견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후, 스페인은 그 곳에 식민지 에스파뇰라(현재의 산토도밍고 혹은 아이티)를 세웠다. 부랑자들이 금을 좇아 그 곳으로 달려 갔으나 금은 없었다.

에스파뇰라 총독은 땀 흘려 농사를 지을 리 없는 그들을 모아 카리브해 건너 남미 대륙으로 파견할 탐험대를 조직했다. 스페인에서부터 황금을 좇아온 30대 중반의 건달 바스코 누녜스 데 발보아 (Vasco de Nunez de Balboa)도 일원이었다. 탐험대는 파나마해협의 다리엔(Darien)에 중남미대륙 최초의 신도시를 건설했다. 다리엔의 총독이 된 발보아에게 인디언의 한 추장이 큰 바다와 그 곳으로 흐르는 금이 많은 강물이 있는 곳을 알려 줬다.

1513년 9월 1일 발보아는 미지의 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글과 늪지가 가로막고, 적도의 태양이 괴롭혔지만 발보아는 인내하며 나아갔다. 9월 25일, 그들을 가로막은 큰 산을 발보아가 먼저 올랐고, 훗날 잉카제국을 정복한 피사로와 27명의 대원들이 뒤를 따랐다. 정상에 오른 발보아의 눈 앞에 큰 바다가 펼쳐졌다. 발보아가 ‘남쪽 바다(Mar del Sur)’라고 명명했던 태평양이었다.

이로써 乾達 발보아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모두 바라본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됐다.

(자료원 : 현지 실사)

21. 국민

<인구>

파나마의 총 인구는 2004년 기준 317만을 약간 넘었으며 수도 파나마시티에 총인구의 40%에 달하는 약 127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인구 분포를 살펴 보면 제2의 도시인 콜론(Colon)에 16만명, 제3의 도시인 다비드(David)에 12만명, 초레라(Chorrera)에 11만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종족>

파나마의 종족구성은 혼혈(메스티조 및 물라토) 60%, 흑인 13%, 백인 11%, 인디안 10%, 중국계 5%, 기타(유태인, 인도인, 아랍인 등) 1%이다. 중국인이 19세기 중반 철도 건설 당시에 처음 노예로 이민오기 시작해 현재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언어>

파나마의 국어는 스페인어이다. 대부분 일반인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나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중계무역상이나 외국과 자주 거래하는 수입상들의 경우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파나마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는 표준 스페인어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중미 원주민 언어의 영향도 받아 발음, 표현, 단어 용례 등을 볼 때 표준말로는 보기 어렵다.

<종교>

파나마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파나마인은 관습적으로 카톨릭을 믿는다. 종교 구성은 카톨릭 93%, 신교 6%, 기타 1%이다. 그러나 독실한 카톨릭인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대부분이 독실한 유교인이 아니면서 유교의 풍습을 따르듯이 파나마인도 역시 그러한 생활양식, 습관으로서 카톨릭을 따른다.

<국민성>

성격은 다혈질적이다. 특히 돈 문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관한 한 매우 계산적이다. 가족 간의 유대를 중요시하여 친족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친족 간 결혼하는 사람도 많다. 다민족국가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은 없으며 진실되게 대할 경우 믿을 만하다. 그러나 자기 나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을 할 경우, 특히 중남미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다른 나라를 두둔하거나 좋게 말할 경우 잘 반발한다. 시간 관념이 부족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서비스는 친절한 편이나 관공서는 업무처리가 늦으며 매우 관료주의적이고 불친절하게 내방객을 대하는 곳이 많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아직 “고객만족”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물건을 팔고 나면 더 이상 서비스 같은 것은 받기 어렵다.

처음 오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 운전이다. 과속을 잘 하며, 양보를 잘 안해 주며, 보행자를 절대 존중하지 않으며 시내건, 어디건 경적소리를 울리기 예사이다. 따라서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많다. 특히 택시, 시내버스(Diablo rojo : 赤色 魔鬼라는 뜻)는 100% 무보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항상 당하므로 이들 차량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원 : 현지 실사)

22. 국민/한국인, 중남미인보다 월등히 영리

IQ가 높으면 잘 산다-세계 국가별 IQ 랭킹-IQ와 국력은 대체로 富强

몽골족, 투톤족, 한자문화권, 영어권, 동북아, 서유럽, 기독교, 유교권, 온대 지방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리차드 린 교수(얼스터 대학 · 아일랜드), 타투 반하넨 교수(탐페레 대학 · 핀란드) 두 사람이 세계 185개국의 지능지수(IQ)와 국민소득을 비교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IQ 100 이상(17개국)

홍콩	107
한국	106
북한	105
일본	105
대만	104

독일	102
네덜란드	102
이탈리아	102
오스트리아	102
스웨덴	101
스위스	101
룩셈부르그	101
영국	100
벨기에	100
중국	100
뉴질란드	100
싱가포르	100

IQ가 100이상인 수재형 국가는 모두 17개국(홍콩 포함)이다. 동북, 동남아시아 나라가 7개국이고 서유럽 국가는 9개, 그리고 뉴질랜드이다. 한자문화권에 들어 있는 나라는 6개국이다. 영어 문화권 국가는 2개국이다. 몽골 인종의 국가는 3개국이다. 게르만족, 또는 투톤족(앵글로 색슨족 포함) 국가는 6개국이다.

*IQ 90-99(44개국)

스페인 99
폴란드 99
헝가리 99
덴마크 98
미국 98
아이슬란드 98
몽골 98
호주 98
노르웨이 98
프랑스 98
체코 97
캐나다 97
핀란드 97
에스토니아 97
슬로바키아 96
우크라이나 96
우루과이 96
월남 96
러시아 96
벨라루스 96
아르헨티나 96
포르투갈 95
말타 95
몰도바 95
슬로베니아 95
이스라엘 94

루마니아 94
칠레 93
불가리아 93
유고슬라비아 93
아일란드 93
마케도니아 93
그루지아 93
아라메니아 93
사이프러스 92
그리스 92
말레이시아 92
타이 91
코스타 리카 91
브루네이 92
페루 90
터키 90
크로아티아 90
알바니아 90

IQ가 90-99점에 분포한 나라는 44개국이다.

IQ가 90 이상인 나라는 모두 61개국이다. 이 가운데 동북, 동남아시아 국가는 11개국이다. 서유럽 국가는 17개국이다. 한자문화권 국가는 10개국이다. 영어권 국가는 6개국이다. 몽골-투르크족 계열의 국가는 9개국이다. 게르만족(투톤, 앵글로 색슨 포함) 계통은 11개국이다. 즉 머리가 좋은 민족은 몽골(투르크 포함) 및 게르만 계통이다. 머리를 좋게 만드는 문자권은 한자 및 영어 문화권이다. 지역적으로는 동북아시아와 서유럽(미국·호주 포함),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유교문화권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또는 고대부터 문명화되었던 국가사람들이 역시 머리가 좋다. 한국은 인종적으로는 몽골, 문자로는 한자권, 지역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하여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위의 요건을 모두 고려할 때 한국인은 중남미인에 비해 월등히 영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http://www.amazon.com/exec/obidos/ASIN/027597510X/qid=1077121097/sr=2-1/ref=sr_2_1/002-9942588-8684808

23. 국민/세계 각국 국민 평균 IQ 비교표

세계 185개국 평균지능지수(IQ)표

순위	국가名	지수
1	홍콩	107
2	대한민국	106
3	일본	105
	북한	105
5	대만	104
6	오스트리아	102
	네덜란드	102
	독일	102
	이탈리아	102
10	룩셈부르크	101
	스웨덴	101
	스위스	101
13	뉴질랜드	100
	벨기에	100
	중국	100
	영국	100
	싱가포르	100
18	헝가리	99
	폴란드	99
	스페인	99
21	아이슬란드	98
	오스트레일리아	98
	덴마크	98
	프랑스	98
	몽골	98
	노르웨이	98
	미국	98
28	캐나다	97
	체코	97
	라트비아	97
	핀란드	97
	리투아니아	97
	에스토니아	97
34	아르헨티나	96
	벨로루시	96
	베트남	96
	슬로바키아	96
	우크라이나	96
	러시아	96
	우루과이	96
41	슬로베니아	95
	몰도바	95
	몰타	95
	포르투갈	95
45	이스라엘	94
	루마니아	94
47	아르메니아	93
	불가리아	93
	칠레	93
	그루지아	93
	아일랜드	93
	마케도니아	93
	유고슬라비아	93
	카자흐스탄	93
55	브루나이	92
	키프로스	92
	그리스	92
	말레이시아	92
59	코스타리카	91
	태국	91
61	알바니아	90
	크로아티아	90
	페루	90
	터키	90
65	라오스	89
	캄보디아	89
	인도네시아	89
	수리남	89
69	콜롬비아	88
	베네수엘라	88
71	아제르바이잔	87
	브라질	87
	이라크	87
	요르단	87
	시리아	87
	타지키스탄	87
	통가	87
	키르기스스탄	87
	파사모아	87
	투르크메니스탄	87
	멕시코	87
	우즈베키스탄	87
83	버마(미얀마)	86
	필리핀	86
	레바논	86
	볼리비아	85
	쿠바	85
	파라과이	85
	모로코	85
90	알제리	84
	도미니카 공화국	84
	엘살바도르	84
	피지	84
	온두라스	84
	기아나	84
	이란	84
	키리바시	84
	니카라과	84
	파나마	84
	파푸아뉴기니	84
	푸에르토리코	84
	리비아	84
	미이크로네시아	84
	바누아투	84
	튀니지	84
	솔로몬아일랜드	84
	마샬군도	84
108	아프가니스탄	83
	바레인	83
	벨리즈	83
	이집트	83
	오만	83
	사우디아라비아	83
	쿠웨이트	83
	아랍에미레이트	83
	예멘	83
117	방글라데시	81
	인도	81
	몰디브	81
	스리랑카	81
	세이셀	81
	파키스탄	81
	모리셔스	81
124	에콰도르	80
	트리니다드 토바고	80
126	코모로	79
	과테말라	79
	마다바스카르	79
129	바하마	78
	바베이도스	78
	부탄	78
	케이프베르데	78
	네팔	78
	카타르	78
135	잠비아	77
136	앤티가 바부다	75
	도미니카	75
	그라나다	75
	세인트키츠 앤 네비스	75
	세인트루시아	75
	세인트 빈센트	75
142	콩고(브리자빌)	73
	모리타니아	73
	우간다	73
145	보스와나	72
	치드	72
	아이티	72
	지에이카	72
	케냐	72
	레소토	72
	모잠비크	72
	나미비아	72
	남아공	72
	수단	72
	스와질랜드	72
	탄자니아	72
157	코트디부아르	71
	가나	71
	말라위	71
160	부룬디	70
	카메룬	70
	르완다	70
163	베냉	69
	앙골라	69
	토고	69
16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8
	지부티	68
	에리트레아	68
	말리	68
	소말리아	68
171	니제르	67
	나이지리아	67
173	부르키나 파소	66
	가봉	66
	잠바브웨	66
176	콩고(자이레)	65
177	세네갈	64
	시에라리온	64
	감비아	64
	라이베리아	64
181	에티오피아	63
	기니아	63
	기니 비사우	63
184	적도 기니	59
	상투메	59

※자료:리처드 린 홈페이지(http://www.rlynn.co.uk)

24. 역사

<역사>

파나마의 역사는 1) 스페인 정복 이전의 시기(Epoca Prehispanica), 2) 스페인 식민통치 시기(Epoca Hispanica), 3) 콜롬비아에의 연합 시기(Union a la Gran Colombia), 4) 독립 시기(Epoca Republicana) 등으로 나뉜다.

가. 스페인 정복 이전의 시기(Epoca Prehispanica)

스페인 정복 이전 시기는 선사시대에서 시작해 1501년 Rodrigo Galvan de Bastidas라는 사람이 파나마 북동쪽 카리브해의 한 해변을 발견한 때까지이다. 파나마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흔적은 기원전 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 스페인 식민통치 시기(Epoca Hispanica; 1501-1821)

스페인이 파나마를 식민통치한 기간은 320년에 걸친다. 파나마의 발견(descubrimiento), 정복(conquista), 식민화(colonizacion) 등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파나마를 처음 발견한 Rodrigo Galvan de Bastidas는 파나마의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 처음 도착해 Atrato강에서 Nombre de Dios까지 동쪽 연안을 항해했고 이후 콜룸부스가 파나마에 와서 현재의 Bocas del Toro에서 Portobello만까지인 서쪽 해안을 항해했다. Bocas del Toro, Portobello와 같은 현재의 파나마 지명 중에는 콜룸부스가 붙인 것들이 많다. 콜룸부스는 1503년 그의 4번째 항해 중에 파나마의 카리브해 연안지방인 Tierra Firme 에 파나마 최초의 식민 도시인 Santa Maria de Belen을 건설하였으나 곧 인디안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1513년 9월 25일 바스코 뉴네스 데 발보아(Vasco Nunez de Balboa)는 태평양을 발견하였으며 1519년 뻬드로아리아스 다빌라(Pedro Arias Davila)에 의해 구파나마시가 건설되었다.

파나마는 1671년까지 페루에서 스페인으로의 물자 수송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671년 해적 헨리 모르간(Henry Morgan)의 침략으로 구 파나마시는 파괴되었다. 2년 뒤 구파나마시는 지금의 엘카스코 비에호(El Casco Viejo)로 이전하였다. 이 스페인 식민통치시대에는 Santa Maria La Antigua del Darien 설립(1510), Mar del Sur 발견(1513.9.25), Nuestra Senora de la Asuncion de Panama 설립(1519)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파나마 해변에는 주로 Portobelo 시장의 재물을 탐하는 영국 해적들의 침입이 잦았으며 특히 Chagres 지역에 이러한 영국 해적이 많이 출몰했다.

다. 콜롬비아와의 연합 시기(Epoca de Union a Colombia; 1821-1903)

파나마는 1821.11.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지금의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 바 大콜롬비아연합국(Gran Colombia)에 자발적으로 합병했다. 82년 동안 大콜롬비아연합국의 한 연방(departamento)으로 있었으며 파나마는 항상 Simon Bolivar의 중남미 통합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1826년 볼리바르회의(Congreso Bolivariano)가 개최되었으며 La Miscelanea del Istimo와 같은 최초의 신문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大콜롬비아연합국이 해체된 이후에도 파나마는 콜롬비아와 연합국을 계속 유지했으며

新그라나다(Nueva Granada)라는 나라를 구성했다. Justo Arosemena라는 사람이 1855년에서 1885년까지 파나마연방국(Estado Federal de Panama)을 건립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에 파나마 지협철도 및 파나마운하 건설 작업이 이미 프랑스인들에 의해 개시되었다. 그 후 파나마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위치상의 이점으로 인해 영국, 미국이 각각 파나마운하 건설권 획득을 위해 콜롬비아와 협상하게 되었다. Vallarino-Bildack 조약(1848년), Clayton Bolwer 조약, Hay-Paunceforte 조약, Herran-Hay 조약 등이 바로 이러한 영국, 미국의 파나마에 대한 큰 관심을 입증해 준다. 19세기 말엽에 들어서면서 파나마의 시련이 시작된다. 빈부 격차 확대, 특권층의 교육 및 언론 독점 등이 고착화되면서 국가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불안이 심화된다.

1896년에서 1899년 기간 중에는 Abel Bravo, Salomon Ponce Aguilera, Leon A. Soto, Melchor Lasso de la Vega 등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 파나마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했다. 1899년에서 1902년 기간에는 千日전쟁(La Guerra de Mil Dias)이 발발하기도 했다. 이 전쟁은 콜롬비아 정치권 내에 대립하고 있던 보수파와 자유주의자들 간의 전쟁이기도 하고 파나마를 계속 예속시키기를 원하는 콜롬비아와 콜롬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파나마 간의 전쟁이었다.

1903년 11월 3일 파나마는 미국의 도움을 얻어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천명하였으며 최초의 헌법을 제정했다.

라. 공화정체의 독립국 시기(Epoca Republicana; 1903 - 현재)

미주 대륙에서 독립을 가장 늦게 얻은 국가는 쿠바, 파나마, 푸에르토리코로서 이 중 파나마는 1903년에 독립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눈물 투쟁 끝에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얻었다. 독립한지 몇 주 후에 파나마는 미국과 Hay/Bunau-Varilla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파나마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체결된 조약인데 미국에 파나마운하 개발, 사용 및 보호에 관한 양허권과 더불어 운하를 따라 10마일의 폭을 점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파나마는 1904년 최초의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1904년부터 1968년까지 민주헌법 아래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대통령으로는 Manuel Amador Guerrero, Belisario Porras, Juan Demostenes Arosemena, Harmodio Arias, Arnulfo Arias Madrid, Roberto Freancisco Chiari 등이 있다.

1925년에는 미국 United Fruit Company의 자회사인 Tonosi Land Company에 36,000헥타의 토지를 무상 공여해 주었으며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회사에 특혜를 보장하는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도 설립되었으며 1931년 1월 2일에는 최초의 쿠데타를 Arnulfo Arias가 감행했다. 1940년에는 유태인, 중국인, 인도인이 장악하고 있던 일반 상업을 국유화했다.

1964년에 파나마는 Roberto Chiari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상 최초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 사건은 당시 파나마운하 주둔 미군 병사들과 파나마 대학생 사이에 일어난 충돌의 결과였다. 운하 근처의 한 학교에서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려는 것을 미군이 방해함으로 파나마 학생과 미군 병력과의 충돌이 일어났고 22명의 파나마인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파나마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더욱 강력해지게 되었다.

2차대전 직후 파나마의 시민정부는 군대와 대립하는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68년까지는 민주정부가 지속되었다. 1968년 국가방위군 총사령관인 '또리호스(Torrijos)' 장군의 쿠데타로 시민정부가 무너지고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파나마운하의 통제권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어왔으며 13년 간의 협상 끝에 1977년 파나마정부는 미국과 1999년 12월 31일 부로 파나마운하의 완전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또리호스-카터조약(Torrijos-Carter Treaty)을 체결하였다.

1981년 실권자인 또리호스가 비행기사고로 사망 후 노리에가(Noriega)가 실세로 등장하게 된다. 1983년 노리에가 장군이 국가방위군 사령관 취임과 더불어 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으며 1987년 봄 정치적 파동이 노리에가 반대파들을 자극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반대집회 및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 미국정부는 국제원조 중단, 운하사용료 지불 중단, 미국 내 파나마 정부 자산 동결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파나마경제가 최악의 침체상태를 겪게 되었다.

1989년 5월 총선 결과 Endara 후보가 당선되자 노리에가는 선거결과를 무효화시켰으며 이러한 일련의 정치파동으로 파나마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파나마의 친노리에가파는 1989년 12월 15일 노리에가장군을 정부 수반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으며 미국정부는 5일 후인 12월 20일 파나마를 침공, 노리에가정권을 축출하고 엔다라가 파나마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89년 이후 파나마는 민주정권 하에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1994년 5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Pueblo Unido 연합의 Perez Balladares 후보가 득표율 33.3%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편, 파나마군대는 1990년 해산되었으며 1994년 헌법개정으로 군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코스타리카와 함께 군대 없는 국가가 되었다. 파나마가 외국군대에 의해 침공 당할 경우 미국은 파나마운하의 중립성 보호차원에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파나마경찰이 일정 수준의 국가 방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9년 5월 2일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거에서 야당 연합인 Union Por Panama의 Mireya Moscoso 후보가 득표율 45%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어 9월 1일 파나마 최초의 여성대통령에 취임하였다. (Trabajemos juntos por Panama.)

그러나 미레야코스코소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 2004.5.2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이자 중도좌익노선의 민주혁명당(Partido Reolucionario Democratico) 출신의 마르틴토리호스(Martin Torrijos)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4.9.1에는 마르틴토리호스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자료원 : EIU)

25. 국가조직

<행정부>

파나마는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 단임제로 연임은 불가능하나 10년 경과한 후 재출마할 수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 제1, 제2 부통령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으로 구성되며 제1, 제2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사법부>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민.형사부로 구분되어 있다. 대법원은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10년이며 매 2년마다 2명의 법관이 교체 임명된다. 하위법원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의회>

파나마 의회는 단원제로서 정원은 78명이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선거일은 대통령 선거일과 동일하다.

(자료원 : EIU)

26. 정치제도

<선거제도>

대통령 및 2명의 부통령, 77명의 국회의원, 74명의 시장, 587명의 지방의원, 20명의 중미의회의원이 국민의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총의석 71석인 의회의 의원선거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인구 1만명 초과 행정구역 또는 인구 3만명 기준 1개 선거구제도를 두고 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이며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파나마 국민에게 주어진다.

<정당제도 및 현황>

파나마의 주요 정당은 민주혁명당(PRD), 아르눌피스타당(Arnulfista), 기독민주당(PDC), 국민연합(Solidaridad), 공화주의자유운동(Molirena), 국민자유당(PLN), 민주개혁당(Cambio Democratico)등 7개 당이다. 2004년 정권 교체 이후 여당은 민주혁명당이 대표하며 야당은 아르눌피스타당, 국민회의(Solidaridad) 등이 이끌고 있으나 야당인 아르눌피스타는 대통령선거, 의회선거 모두 패배함으로써 매우 침체된 상태이다. 전형적인 여대야소의 예이다. 범여권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은 Partido Popular이다.

(자료원 : 파나마 대통령실)

27. 정치사회동향

<국내 정세>

2004년 6.2%의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2005년 1/4분기에는 6.5%를 기록하였으나 지속되는 실업률, 전기, 원유 등의 가격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으로 인해 2/4분기 실적은 3%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3년까지 저조세를 면치 못하던 콜론 중계무역경기를 비롯, 관광업, 건축업 등의 분야는 활기를 띄고 있다.

<국제 관계>

파나마의 대외관계의 주안점은 무역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중남미 물류 및 운송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에 두고 있다. 對美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항상 미국과의 통상협력 관계 증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2005년 4월 제 3차 협상을 끝으로 싱가포르와의 FTA가 체결되었다. 엘살바도르, 대만에 이어 세번째 FTA인 샘이다. 미국과는 제 8차 협상까지 이어졌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며 9차 협상 일정은 미정이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와의 협상도 시작될 전망이다.

<경제 전망>

파나마의 경제정책 기조 중의 하나는 대외개방이다. 중남미지역 물류 및 항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분야로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국내경제에 있어 빈부격차가 크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을 효율적으로 구사하고 있지 못하다.
파나마는 미달러화를 사용하는 국가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나라이다. 2004년의 경우 0.4%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5년의 경우 약간 올라 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월 253.76불에서 268.32불로 인상되었다.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2005년 하반기 중으로 다시 인상될 전망이나 노-사-정측간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달러화 약세로 파나마의 對日, 對유럽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면이 있지만 파나마의 주종 수출품목이 1차 산품 위주이고 상품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못하기 때문에 미달러화 약세의 효과는 별로 크지 못하다. 더구나 주 수출시장이 인근 안데스공동체 및 중미이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콜론중계무역 경기도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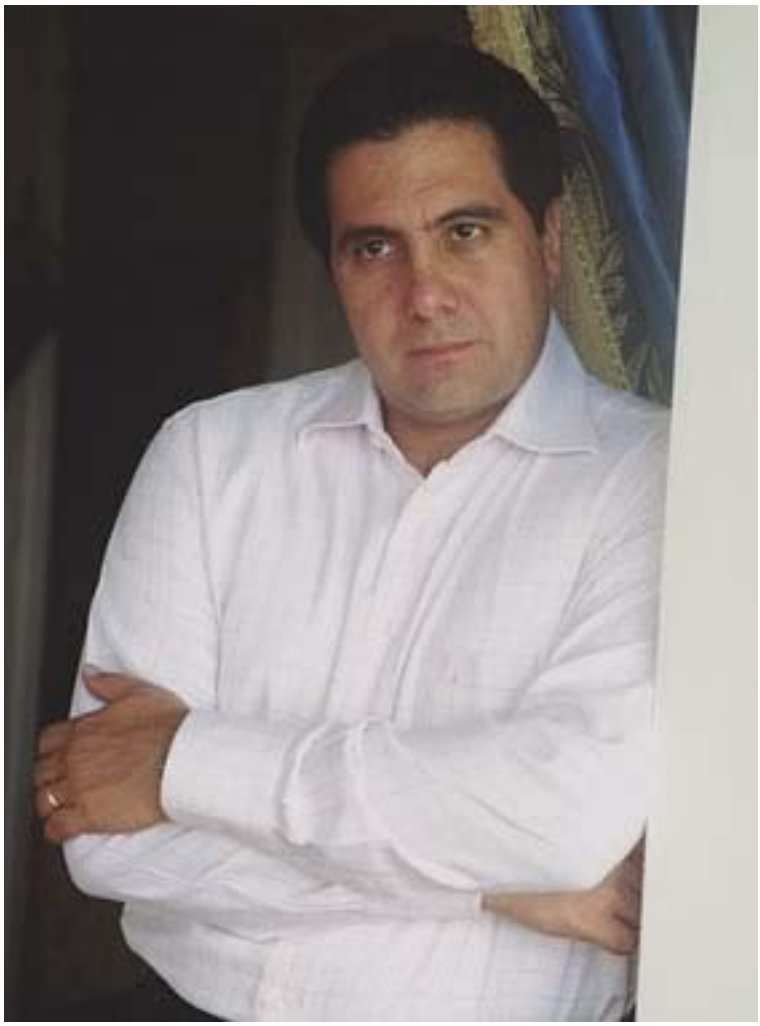
(자료원 : EIU, 파나마 재경부, 파나마 감사원)

28. 국가원수/국가원수(Mr. Martin Torrijos Espino)

ㅇ 직위 : 대통령
ㅇ 이름 : 마르틴 토리호스(Martin Torrijos Espino)
ㅇ 취임일 : 2004.9.1

ㅇ 생년월일 : 1963.7.18
ㅇ 가족 : 부인 비비안 페르난데스(Vivian Fernandez de Torrijos), 1녀 2남.
ㅇ 이력
- 미국 University of Texas A&M에서 정치학 및 경제학 학사 취득
- 前대통령 Ernesto Perez Balladares 정권 당시 법무장관 역임
- 1999년부터 민주혁명당(PRD, 당시 야당) 당수로 취임하면서 1999.5.1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아르눌피스트당(Partido Arnulfista) 미레야모스코소 후보에 패배
- 2004.5.1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자료원 : 파나마 대통령실)



29. 주요인사

국가원수 : Mr. Martin Torrijos Espino
- 취임일 : 2004.9.1
- 임기 : 5년
- 2004.5.2 대통령 선거 당선

각부 장관
- 제1부통령 Samuel Lewis Navarro
- 제2부통령 Ruben Arosemena
- 농업 Laurentino Cortizo
- 경제재무 Ricaurte Vasquez
- 교육 Juan Bosco Bernal
- 외교 Samuel Lewis Navarro
- 법무 Hector Aleman
- 보건 Camilo Alleyne
- 주택 Balbina Herrera
- 노동 Reynaldo Rivera
- 비서실 Ubaldino Real
- 건설부 Carlos Vallarino
- 통상산업 Alejandro Ferrer
- 청년여성가정 Leonor Calderon

(자료원 : 파나마 대통령실)

30. 행정구역

<행정구역 개황>

파나마의 행정구역은 9개의 도(Provincias), 4개의 인디언 자치구(Comarcas Indigenas), 74개의 시(Distritos 혹은 Municipios), 587개의 구역(Corregimiento)으로 나뉘어진다. 지방자치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9개의 도는 Bocas del Toro, Cocle, Colon, Chiriqui, Darien, Herrera, Los Santos, Panama, Veraguas 이다. 파나마의 서쪽 지방에 위치한 치리키, 에레라, 로스산토스, 꼬끌레, 베라구아스 지방이 농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중 치리키 지방이 쌀, 커피, 옥수수, 고기, 우유의 주산지이다. 일반적으로 치리끼 지역 출신인은 다른 지역 출신 파나마인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매우 강하다.

(자료원 : 현지 실사)

31. 대외관계

<외교노선>

파나마 외교노선의 기본원칙은 상호주권 존중, 우의와 평화원칙 준수, 국제협약 및 의무 존중, 친서방관계 유지, 파나마운하 중립 유지, 선린우호 관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지 않고 철저하게 실리 위주의 중립적인 대외관계 노선을 추구한다.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이다. 중남미에 유행하는 어느 특정한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주요 외교정책 및 주요국과의 관계>

ㅇ주요 외교정책 목표
파나마는 파나마운하 운영과 관련된 경제활동 촉진, 파나마운하의 비정치화,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수지 개선 등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ㅇ對美관계
1999.12.31일 파나마운하를 인수함에 따라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미국과는 미군 철수 및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제반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계속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할 입장이다. 2005년 미국과의 FTA 협상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ㅇ對中南美 관계
파나마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여타 중남미국가와 다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예:98년 리오그룹 의장국), 경제적으로는 중미국가와는 경제구조가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미지역 경제 통합에 미온적 입장이며, 오히려 양자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對日本 관계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파나마운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미국의 파나마운하 반환 후 파나마와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파나마灣 오염 제거 사업으로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파나마시 앞바다를 정화하는 작업이다. 일본은 파나마운하 확장에도 적극 참여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의해 2002년에는 JETRO 파나마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정부관료, 기업체, 일반국민의 일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하다.

ㅇ對中國(臺灣) 관계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지위를 잃은 대만은 파나마를 위시한 중미국가에 모든 외교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반환되는 파나마운하 및 미군기지에 대만 기업의 투자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운하 3대 이용국 중 하나인 중국은 96년 무역대표부 설치를 기회로 주요 인사의 파나마 방문을 추진하고, 홍콩 주재 파나마 무역대표부 존속을 허용하는 등 파나마와 외교관계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파나마 측은 대만과의 기존우호 협력관계를 감안, 동시에 2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에는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2004.1.1을 기해 발효했다.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파나마는 SELA(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CEPAL(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Nations) 등 중남미지역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FTAA 사무국 유치 노력>

파나마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영구사무국 유치에도 큰 노력을 쏟고 있다. 사무국을 유치하면 외화를 지속적으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2001년 3월부터

파나마는 FTAA 임시사무국을 2003년까지 파나마 시내 Caesar Park 호텔에 유치했으며 이미 FTAA 협상을 위해 미주지역 협상 관계자 수천명이 다녀갔다. 외화 획득뿐 아니라 국가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에 파나마 정부는 FTAA 사무국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 사무국을 유치할 경우 파나마 앞으로 미주자유무역지역 관련 협상은 대다수 파나마에서 열리기 십상이고 이에 따라 파나마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각종 협상에 참가하고 협상 주최국으로서의 지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파나마 이외에 멕시코, 미국 마이애미도 FTAA 영구사무국 유치를 강력 희망하고 있어 파나마의 갈 길은 순탄하지 않다.
<최근의 대외정책 요약>

소규모 경제를 가진 파나마로서는 대외정책 중 큰 부분을 대외통상 협력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1997년 WTO에 가입한 후 2002년에는 엘살바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2년 4월 발효시킨 데에 이어 다른 여러 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일례로 최근 미주자유무역지대 영구사무국 유치 노력,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들 수 있다. 2004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對이라크戰을 지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2005년의 최대 대외정책 과제인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중이다.

(자료원 : 언론 종합)

32. 도량형

<도량형>

파나마에서는 미터, 인치, 야드, 파운드, 온스, 갤런 등 미국 및 영국형 도량형이 병행 사용된다. 그러나 제품 인증 규격은 미국의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전기규격>

110V, 60Hz를 사용한다. 단, 호텔, 공장, 박람회장, 아파트의 에어컨용으로 220볼트도 사용되고 있다. 전기소켓은 한국에서 쓰는 것과 다른 모양이므로 새로운 연결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원 : 현지 실사)

33. 관공서 관행

<관공서 관행>

대체적으로 친절한 편이나 민원처리 기간이 매우 늦고 관료주의적인 점은 고질적인 병폐이다. 동양인이라고 해서 다른 배타성은 없지만 요구하는 서류, 요건 등을 제대로 충족 하지 못할 경우 매우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한다.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직업공무원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엽관제, 정실주의(파나마에서는 이를 favoritismo, nepotismo라고 부름)가 보편적이어서 공무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물갈이를 대폭 한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는 오후 3시 이전에 업무를 끝내기 때문에 오전에 볼 일을 마쳐야 한다. 가기 전에 모든 서류, 자료, 날인, 서명 등을 100% 구비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작 당사자는 아무리 일이 바쁘고 급해도 서류 하나라도 모자라면 다시 돌려 보낸다. 볼일 보러 온 사람에게 봉사한다기 보다는 명령, 지시한다는 태도가 강하다.

(자료원 : 현지 실사)

34.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토쿠멘국제공항(Aeropuerto Internacional de Tocumen)이 유일하다. 파나마 시내에서 고속도로(Corredor Sur)를 이용할 경우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시설이 낙후되고 크기가 작아 파나마정부는 파나마市 토쿠멘국제공항 확장 및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5. 3월 현재 제3단계 수행 업체를 모집중에 있다. 토쿠멘국제공항을 경영하는 국영기업 토쿠멘국제공항주식회사(Aeropuerto de Tocumen S.A.)는 파나마법률 제23호(2003.1.29)에 의거 2003.6.1부터 가동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 IATA)가 토쿠멘국제공항 확대 작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국제기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토쿠멘국제공항에서 주로 확대하고 보수하는 것은 '활주로', '화물터미널', '공항내부 장비(에스컬레이터, 에어컨시설, 엘리베이터 등)' 등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전반의 비용이 5천만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파나마정부는 채권 발행,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토쿠멘국제공항은 파나마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2004년 240만명의 승객을 운송했으며 9만7천톤의 하물이 거쳐갔다. 2002년 대비 2004년 승객 수는 23.7%, 하물량은 15.8% 증가하는 등 매년 이용률이 늘고 있어 시설을 확장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900m 활주로 2개를 보유하면서 연간 6만건의 비행기 이착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취항 노선은 파나마 국적항공사 1개 및 전세계 35개 항공사이다.

파나마 국제공항 확장 및 개선 프로젝트는 세계의 단계로 나뉘는데, 첫 단계는 현재 미국의 여러 공항 보수 작업을 이행한 바 있는 Leo A. Daly사와 Constructora San Jose(스페인)사와 Constructora Quebec(파나마)사에서 합작으로 진행중에 있다. 첫 단계 예산은 40억달러로, 공항측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비행관리시스템, x-ray 장비, 에스컬레이터 등 공항 시설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단계는 화물터미널 보수가 주를 이룬다.

파나마市 또꾸멘 국제공항은 1947년에 건설돼 1978년에 첫 보수 작업을 거쳤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가동되는 확대 및 개선 프로젝트이다.

Aeropuerto de Tocumen S.A.
P.O. Box 0838-02408 Zona 12, Panama, Republic of Panama
전화 : 507-238-2600
Fax: 507-238-4725
Mr. Julio Ernesto Cordoba, General Manager

<국제항구>

국제항구로는 파나마운하 양대양 초입에 5개 항구가 위치해 있다. 태평양에는 발보아항(Balboa)이 있으며 대서양에는 크리스토발항(Cristobal), 만사니요항(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 : MIT), 에버그린항(Evergreen/Colon Container Terminal), 콜론항(Colon Port Terminal)이 있다.

파나마의 항만 분야는 다가오는 Post-Panamax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파나마의 항만 분야는 전세계에서 도착하는 화물들이 중남미 각국으로 환적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유감 없이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크기가 커져 이른 바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 수주 및 건조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앞으로 이를 수용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파나마운하로는 이미 이러한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수로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수년에 걸쳐 세우고 있으며 2005년 중 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운하 확장이 가지는 중요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는 데에는 국민투표(referendum)을 실시해 전국민의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파나마의 항만 분야도 앞으로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의 환적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항만분야도 변화하는 세계시장 경쟁추세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중미국가 항구에게 고객을 잃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운하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세계 컨테이너화물 교통량이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벌크화물 또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운하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컨테이너선, 크루저, 차량운반선, 유조선, 액체화물선, 벌트선, 냉동화물선 등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능력을 확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파나마 주요 항구 및 파나마운하 시설확장으로 일차적으로는 인프라가 확대되기도 하지만 파나마의 수출 증대를 통해 고용 증대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료원 : 현지 실사)

35. 매스미디어

<방송>

ㅇ라디오 방송 (중계소포함 총 139개)
Cadena Radial Continente, S.A. : 700KHZ

Cadena Nacional-Radio Mia : 96.7MHZ
H2O Stereo : 97.9MHZ

ㅇT.V.방송 : 국내 5개 방송

TVN : Channel 2 (민영)
RPC Television : Channel 4 (민영)
Fe T.V. : Channel 5 (천주교)
Telemetro : Channel 13 (민영)
Sistema de TV Educativa : Channel 11 (국영 교육문화방송)

* Cable Onda(케이블TV 방송국)에 가입하여 미국의 CNN 등 케이블 프로그램 시청 가능
대만의 방송국도 조만간 케이블 TV 방송국을 설립할 예정으로 알려짐.

ㅇ주요 일간지

La Prensa (1980년 창간, 발간부수 : 45,000부) - 최대 일간지
El Panama America (1925년 창간, 발간부수 : 26,000부)
La Estrella de Panama (1853년 창간, 발간부수 : 25,000부)
El Siglo (1985년 창간, 발간부수 : 45,000부)
Critica Libre (1958년 창간, 발간부수 : 40,000부)
El Universal de Panama (1995년 창간, 발간부수 : 10,000부)
El Capital Financiero(경제지)

(자료원 : 현지 실사)

36.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파나마대사관)

국문 국가명	파나마	지역	중남미
영문 국가명	Panama	영문 국가명	Republic of Panama
상주 여부	상주	서반아어 국명	Republica de Panama
공관장명	Dr. Daniel Abrego Echeverria		
신임장제정일	2005-05-17	부임일	2005-05-02

대사관 (Chancery)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6층)
	Tel	02-734-8610/2
	Fax	02-734-8613
	E_Mail	panaemba@kornet.net
근무시간		09:30-12:00 & 13:30-17:00, 주5일 근무
국경일		11월 3일 독립기념일 * 2003.11.3 건국 1백주년 기념일.

(자료원 : 외교통상부)

37. 물가정보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6.00	1인분
	햄버거	2.19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1.30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1,500~2,50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000 미만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2,500 정도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16,8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25센트	1구간
	택시요금	1.00	기본요금
	택시요금	25 센트 25 쎋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운전사와의 흥정으로 조금씩 추가됨. 시내 에서는 보통 1불 25센트~2불 정도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10센트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7~8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12센트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20(전화다이얼업)	1개월 기본료
교 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4,960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6,428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져.오락	골프장 그린피	100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3.75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병원 Clinica Paitilla)	40~50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100~200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59~80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500내외	초임, 학력 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1,000 미만	대졸, 초임

○ 파나마는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장점이 있음

(자료원 : 현지 실사)

38. 경제발전사

<농업, 광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 20세기 이전>

19세기 말까지 콜롬비아 경제는 농업과 광업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었으며, 광대한 영토와, 산악지형으로 교통, 통신의 발전도 지체되어 이 시기까지 콜롬비아 경제는 국가단위의 일관된 경제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지역별 자급자족 경제 및 인근지역과의 물물교환 경제가 19세기 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9세기말 콜롬비아에는 주요 은행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초반에는 주별로 주요도시에 금융기관이 등장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농업은 봉건시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이루어진 금, 은의 채굴 및 수출이 주요 국가재원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경제발전이 지체된 것은 정치불안에 크게 기인하며, 19세기말 개혁, 보수 세력 간 천일전쟁(Guerra de los mil dias, 1899~1902)은 국민의 관심사를 경제에서 정치문제로 돌려놓고, 농촌피폐, 농민의 도시빈민화 등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콜롬비아에 남겨주었다.

<전통 수출상품 위주 경제개발기 : 1904~1930>

천일전쟁 직후 집권한 Reyes 정부(1904~1909)는 국가재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체 제조업에 소요되는 면화생산, 수출상품인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고무등 농업분야에 대한 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주요 수출상품으로 손꼽히는 외화가득 상품이 이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콜롬비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었다.

특기사항으로, 1903년 파나마의 독립과 관련 미국에서는 콜롬비아에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농업은행(Banco Agricola)을 설립하였다. 20세기 초반 콜롬비아 농업의 발전에는 농업은행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Reyes 정부기간 중 국가적인 금융정책 필요성, 국유재정 및 세금관리 필요성 등으로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

20세기 초반 콜롬비아 경제의 번영은 30년대 세계 대공황과 함께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즉 세계공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경색은 콜롬비아 경제의 자금원을 봉쇄, 많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도산을 야기하였으며, 또한 콜롬비아 주 수출상품이던 농산물 국제가격을 폭락시켜 외환유입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또한 많은 공장의 가동중지에 따라 양산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였다.

<수입대체 공업화 시작 및 정부주도 경제발전기 : 1930~1950>

이러한 경제, 사회분위기 속에서 50여년간 집권해 온 보수당 정권이 물러서고 자유당의 Enrique Olaya Herrera 정부(1930-1934)가 출범하였다. Enrique Olaya 정부는 파산위기에 있는 일반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하는 한편 농업부문에 육성자금 지원하고, 아울러 농산물 위주의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정부보호 아래 주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자율 조정 등 정부의 경제개입이 경기회복 및 성장에서 효과를 나타내자, 정부에서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산업현대화를 위한 산업진흥원(IFI),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커피기금 (Fondo Nacional de Cafe), 축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기금(Fondo Ganadero) 등 다양한 정부 주도

경제기구가 설립하였고, 민간기업의 해외차관 도입에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하기도 하였다.

세계 대공황 이후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4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1948년 다시 Violencia로 명명된 정치불안으로 콜롬비아 경제는 전환점을 맞는다. 즉, 정치불안기가 지속되던 1953년 Gustavo Rojas 장군은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으며, 군부정권은 경제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게 된다.

<경제도약기 : 1950 – 1982>

1950년대 이후 82년까지 파나마는 1904년 채택한 민주헌법아래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루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68년 국가방위군 총사령관인 또리호스(Torrijos) 장군의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혼란의 시기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1950년대에 이어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7% - 8%에 달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1970년 687불에서 1982년 939불(1970년 불변가격 기준)로 크게 상승한 시기이기도 했다.

파나마는 1948년 무역의 활성화와 파나마운하 등 물류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고자 콜론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였다. 1952년 콜론자유무역지대의 교역량 규모는 14백만불에 불과했으나 1962년 179.4백만불, 1972년 558.2백만불, 1982년 3,848백만불로 비약적인 신장을 거듭하였으며 GDP 기여율도 5%에 달하는 등 파나마 경제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또한, 파나마경제는 미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고 1970년에 시행한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은행법 덕분에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파나마에 진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남미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파나마는 콜론자유무역지대 중계무역, 중남미 금융중심지로서의 금융산업, 파나마운하 운영사업 등 3차 산업이 일찌감치 발달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어왔는데 1982년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 9.6%, 2차산업 20.8%으로 1, 2차 산업이 취약한 반면 3차산업 비중은 69.6%에 달하였다.

<경제침체기 : 1983 – 1989>

1980년대초 세계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중남미경제 또한 불황을 겪게 되자 무역,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이 경제의 근간인 파나마도 같이 침체의 길을 걷게 된다.

콜론자유무역지대의 교역량 또한 1981년 4,320백만불을 피크로 '82년 3,848백만불, '83년 2,611백만불, '84년 2,870백만불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989년 이후'81년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파나마 경기침체는 정치적 위기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1983년 실권을 장악한 노리에가 장군은 1987년 봄 정치적 파동으로 반대파들을 자극, 대규모 반대집회 및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미국정부는 국제원조

중단, 운하사용료 지불중단, 미국내 파나마정부 자산동결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파나마 경제가 최악의 침체상태를 겪게 되었다.

1983년 0.4%의 경제성장을 한 파나마는 2% - 3%의 성장을 계속 하다 1988년 - 15.6%라는 사상 최악의 경제 마비상태에 직면하였다. 이 기간 중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신규투자나 경제정책은 실종되어 실업율 증가, 경제활동 마비,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경험하였다.

1989년 12월 노리에가 정권이 축출되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나서 파나마경제도 다시 안정된 성장의 길을 가게 되었다.

<경기회복기 : 1990 – 1999>

1989년 미군 침공 이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하게 되자 파나마경제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엔다라정부는 경제현대화 및 개발계획(일명 '경제복구계획')을 채택하여 재정의 안정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콜론자유무역지대의 교역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 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덕분으로 파나마 경제는 '91년 9.4%, '92년 8.25%, '93년 5.5%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외국투자가들이나 해외채권단과의 관계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1994년에 출범한 바야다레스정부에서 더욱 강력하고도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금융, 노동, 조세, 재정 등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수행하였으며 WTO 가입, 외채의 구조조정, 국영기업 민영화 및 관세인하 등 경제 개방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였다.

1990년대 중반기에는 인근 중남미국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중계무역활동 저조, 건설경기 퇴조 등으로 '94년 2.9%, '95년 1.8%, '96년 2.4%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97년 이후에는 투자확대 및 콜론경기회복으로 '97년 4.4%, '98년 4.5%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98년말 이후 중남미 외환위기로 인한 인근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파나마의 중남미 금융센타 및 콜론자유무역지대 재수출경기가 침체되어 '99년에는 경제성장세가 3.3%로 낮아졌다.

<파나마운하 반환과 경제시련기>

2000년 들어서는 파나마경제는 파나마 운하 주둔 미군철수로 인한 외환소득(연간 약 3억불)의 상실과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파나마운하반환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기대 이하 수준을 기록한데다 국제금리상승으로 인한 외채부담 가중,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0년 경제성장률은 2%대로 낮아졌다. 2000년이 파나마 운하 반환을 통한 국가주권의 회복과 파나마경제의 자립기로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개막이 되었다.

<파나마경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1968년에서 1989년가지 파나마는 군부가 정치를 했으며 경제 또한 군부가 통제하는

경제였다. 많은 부문에 있어 정부가 가격을 통제했으며 수입대체화 정책도 시행했다. 1990년에 이르러 파나마정부는 경제개혁 및 현대화를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은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각 이익집단의 첨예한 이익 추구에 끌려가는 감이 있었다. 1994년 9월 Perez Balladares 정부는 야심 가득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은행법, 노동법, 조세코드, 정부 재정 운영 등에서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WTO 가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영기업 민영화, 외채상환 리스케쥴링, 관세율 인하 등의 조치가 이 때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들어선 Mireya Moscoso 정부는 이러한 자유화, 개방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및 2000년에 많은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오히려 인상시켜 내외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오히려 경제개방, 자유화보다는 사회발전 프로그램 등 내치 부문에 더욱 치중하는 느낌을 준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고유의 화폐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및 투자는 조세 및 비조세 수입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에 완전히 좌우되며 대외기채 능력도 중요한 요건이다. 미국 국방성의 추측에 의하면 미군이 파나마에 주둔하면서 매년 직접 기여한 금액은 2억불,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3억5천만불에 이른다.

미군 철수는 파나마의 국민 자존심 회복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현실적인 파나마 경제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99년 최고의 경기를 구가한 후 급격히 파나마 경제는 불황의 길로 접어들어 2001년 경제성장률 1%, 2002년 0.8% 등을 기록했다. 2003년 이후 파나마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되던 1.7%보다 높은 2%로 나타나는 등 수년 동안의 경기침체가 드디어 그 바닥을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004년에는 경제성장률 3.5-4%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운하 수로 확장 문제>

파나마운하관리국(ACP)는 1999년 이후 파나마운하의 경영을 맡고 있으며 통행세 수입 증가로 매년 파나마정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예상과는 달리 파나마운하관리국은 그 운영상의 효율성, 지속적인 투자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4-2006년 기간 중 투자 예상액이 5억불에 이른다. 2004년에만 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억9백4십만불, 2005년 1억9천9백2십만불, 2006년 8천8백7십만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이후 3억불 이상을 준설공사에 투입함으로써 선박통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비 150피트, 길이 1,200피트의 포스트파나맥스급 초대형선박이 통과할 수 있게끔 할 수로 확장이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파나마운하를 확장해야만 한다. 파나마운하관리국은 수년 동안에 걸쳐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이 통과할 확장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프로젝트를 고안해 왔다. 2005년 내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만 4십-8십억불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의 신정권은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외국 업체를 유치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자료원 : EIU)

39. 경제정책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에 의하면 중미에서 올해 그나마 가장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보인 나라가 파나마로 나타났다. 금년 각국별 경제성장률은 파나마 6%, 엘살바도르 1.8%, 온두라스 4.3% 등이며 콜롬비아 3.7%, 도미니카공화국 0.4% 등일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도 파나마의 경제성장률은 4.5%로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파나마는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및 2/4분기에 각각 7%, 6.1%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다음 7월과 8월에는 5.9% 및 5.3% 성장했다.

이러한 2003년까지만 해도 경제난에 허덕이던 파나마가 이렇게 급격히 성장세를 회복한 것은 세계무역 회복에 따른 파나마운하 통행세 수입 증가, 콜론 중계무역 경기 회복, 국제금융 경기 호전 등에 따른 것이다. 항만, 운송 등 물류 분야에서도 활발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4년 9월 1일 출범한 마르틴토리호스(Martin Torrijos) 정권은 정부재정 운영의 합리화, 정부회계 변칙 운용 정상화 및 부패척결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미레야모스코소(Mireya Moscoso) 前정권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부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비금융분야 재정적자를 GDP 대비 상한선인 2%에서 묶지 못하고 그 상한선보다 훨씬 높은 5%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방치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금융분야 재정적자폭을 GDP 대비 2%로 내리는 것은 현정권에 있어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며 공공지출 삭감, 공공분야 종사자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므로 많은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마르틴토리호스 정권의 또 다른 과제는 파나마운하 확장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일이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추산하기로는 80억불의 자금이 필요하며 소규모 경제인 파나마로서는 이 막대한 금액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원조, 국제금융기구 차관, 국제 금융계 起債, 무상공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긴축정책을 기조로 하는 현정권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그 지출은 역시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 없다.

미레야모스코소 정부는 2004. 9월 퇴임 당시 비금융분애 재정적자 폭이 GDP 대비 2.7%인 2억7천7백만불이라고 밝혔지만 마르틴토리호스 정권이 들어선 후 정상적인 회계 원칙을 적용한 후의 적자액은 GDP의 5.3%인 7억3천만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금년 파나마의 재정적자 폭은 5.6%까지 이름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 제정한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의 내용과도 어긋나고 IMF와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계속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문제의 하나는 국가사회보장기금(Caja de Seguro Social) 고갈 문제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도 역시 변칙적으로 운영해 이미 적자가 누적되다 못해 완전 붕괴단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강하다. 현정권이 2006년까지 GDP 대비 GDP 비율을 2.6%선까지로 내리기 위해 초긴축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볼 때 사회보장기금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는 미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 및

통화량은 모두 시중은행 거래에 의해 결정된다. 파나마 은행권은 2002년 및 2003년 경제침체의 여파로 큰 손실을 보았다.

2004년 인플레이션율은 0.4%에 머무른바 있다. 2005년도의 경우 1.5%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실업문제 때문에 임금 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는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달러화를 사용하는 파나마의 수출경쟁력은 강해지겠지만 근본적으로 파나마의 수출 규모가 크지 않고 국내 서비스업이 경제를 주도한다는 점, 파나마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미국이라는 점 등의 요인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유럽으로부터 관광객이 다수 내도하므로 유로화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EU 간의 바나나 분쟁이 미국의 승소로 끝난 후 EU가 수입 바나나에 대해 톤당 230유로의 단일 관세를 2005.1.1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이 조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도서국,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유리하고 중남미의 바나나에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바나나는 파나마 전체 수출액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상품이다.

미국과의 FTA 관련 2005. 2월 제8차 협상을 개최한 바 있으나 아직 민감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 파나마 운하 구매행위에 대한 대미국 업계 인센티브에 대한 동의가 남아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끝낸 후 싱가폴과의 FTA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사무국 유치 관련 파나마는 34개 회원국 중 18개국의 지지를 받아야 하나 아직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최근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 문제로 종전까지의 파나마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2004년 수출은 11.1% 증가한 바 있으며 2005년-2006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인근 남미지역 시장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콜론 중계무역 경기 및 은행분야 활동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나마 정부는 총체적인 서비스 분야 흑자를 2006년까지 18억불로 올려 이를 재정적자 보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파나마 경제의 특징은 환적 등 서비스분야의 비중이 크다는 점인데 이에 따라 중남미 및 세계경제 및 무역 동향이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재수출은 금년 1월-8월 기간 중 32억5천만불로 2003년 동기 대비 9.7% 증가해 인근 지역 중남미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은 29억불로 9.7% 증가했다.

2004년 현재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GDP 총액(십억불)	11.6	11.8	12.2	12.9	13.7
실질 GDP 성장률(%)	2.5	0.6	2.2	4.1	5.4
소비자물가 지수(%)	1.4	0.3	1	1.4	2.1
인구(백만)	2.9	3	3.1	3.1	3.2

상품수출(FOB 백만불)	5,838.50	5,992.40	5,315.10	5,051.30	5,940.50
상품수입(FOB 백만불)	6,981.40	6,688.60	6,352.20	6,143.30	7,163.80
경상수지(백만불)	-689.4	-173.5	-92.3	-408	-469.6
외환보유고 (金 제외, 백만불)	722.6	1,091.80	1,182.80	1,011.00	1,076.00
외채총액(십억불)	7	8.2	8.3	8.6	9
GDP 대비 외채이자 상환 비율(%)	9.7	12.5	19.7	14.1	15.7
대미화 환율	1	1	1	1	1

(자료원 : EIU)

2. 콜론 중계무역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2003.1-8	2004.1-8	증감률
수입	4,451	3,991	2,645	2,903	9.7
재수출	4,821	4,478	2,806	3,250	15.8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3. 파나마 내수시장 수출입

(단위 : FOB 불)

구분	2003년			2004년		
	1/4분기	2/4분기	7-8월	1/4분기	2/4분기	7-8월
수출(FOB US$)	180.4	188	147.7	216.6	228.2	148.9
.참치	43.4	54.6	54.4	59.5	62.6	58.5
.새우	7.7	13.4	20.3	5.9	14	10.2
.바나나	28.9	29.7	19.1	24.1	29.2	19.9
.기타	100.4	90.2	54	127.1	122.5	60.3
수입(CIF)	743.9	737.2	526.7	781.1	877.7	305.9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40. 금융통화제도

<금융시장 개황>

파나마 금융시장은 파나마경제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분야의 하나이다. 파나마는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로서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금융에 유리한 미화를 그대로 공식통화로 사용한다. 파나마 정부는 1998. 3월 새로운 은행법을 제정하여 파나마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나마의 모든 은행들은 바젤협약에 의한 BIS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감사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2004년 현재 110개 이상의 국내외 은행이 있다. 파나마는 1971년 금융시장을 대외 개방하였으며 예금주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국제마약 및 탈세 자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처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파나마는 최근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항상 은행 및 금융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美貨와 유로화를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이 일기도 했으나 아직 확실하게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다.

<은행제도>

1998. 3월 은행법 개정에 따라 파나마에 소재하는 은행은 일반은행(General License Bank) 국제은행(International License or Offshore Banks) 및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로 분류된다. 일반은행은 상업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나마에서 여신 및 수신업무 등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하다. 국제은행은 파나마 비거주자 및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만 예금 수신이 가능하며 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역할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현재 파나마에는 120개에 가까운 은행이 설립되어 있으며 2개 국책은행이 있다. 파나마에 소재하는 모든 은행들은 은행감독원(Banking Supervisory Authority ; Superintendencia de Bancos)의 감독을 받으며 일반은행의 경우, 외국은행과 내국은행 간의 차별이 없다. 현재 은행 관련 단체는 Panamanian Banking Association과 Association for Panamanian Bank 2개가 있다. 한편 파나마에는 예금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은행끼리의 합병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41. 주요산업동향/연도별 주요 산업분야 성장률

(단위 : 1996년 불변가격 기준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업	8.3	1.3	-2	-5.7	-0.1
어업	-20	49.6	32	19.7	12.6
광업	23.9	-10.6	-4.1	18.1	32
제조업	1.1	-7.2	-6.3	-2.8	-1.5
건기.상수도	12	9.3	-4.7	6.6	1.2
건축업	36	1.3	-21.8	-7.1	28.6
상업	-5.8	4.5	2.7	0	3.3
호텔.요식업	10.7	-0.8	10.5	8	7.6
운송.창고.통신	6.7	12.6	2.5	2.1	8.8
금융서비스	5.3	9.7	-2.9	-1.1	-8.1
부동산서비스	6.1	3.6	1	3.2	5.1
GDP 성장률	4	2.7	0.6	2.2	4.1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42.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개황>

파나마는 국제지적소유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

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 위성관련 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적소유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98. 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정부 '98. 3월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적소유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적소유권 관련 법규는 '94. 8월 발효된 지적소유권법(Law 15) 및 '96. 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96년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파나마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적소유권 침해 소송 제기시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파나마정부는 대규모 불법복제 사례를 단속하고 있는데 '98. 9월 Tocumen International Airport에서 환적되는 5백만장의 CD 음반 압수 사례는 중남미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적소유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몇 개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자유 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권>

파나마 공업소유권법에 의거 특허권은 20년간,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15년간 보호되며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파나마국민의 소유권이 최소 30% 이상인 파나마 등록 법인이 특허권 소유자를 경우에는 10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 발효 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특허종류에 따라 외국인은 5-15년, 파나마인의 경우5-20년 간 보호되었다. 파나마의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발효된다.

<상표권>

파나마의 상표권도 공업소유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업소유권법에 발효에 따라 상표권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밖에 동법은 상거래 비밀 보호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파나마는 '94년 세계지적소유권 기구가 제시한 모델에 따라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으로 파나마 저작권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동법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단속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 개념에서 보호된다.

<참고사항>

파나마정부는 지적소유권 침해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대외 천명하고 있으나 파나마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기관들은 아직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나마 사법절차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적소유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수년 동안 파나마의 지적소유권 보호 정도는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았으나 미국 등 선진국 업체들은 아직 파나마의 콜론자유무역지역 등 법률 시행 취약지역에서 위조 상표 유통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파나마정부는 불법 비데오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일부는 아직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또 몇몇 콜론자유무역지역 업체들은 이러한 해적 상표 유통으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아직 해적 상표 환적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1996년 제정 반독점법은 지적소유권 침해시 이를 처리할 법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다라 1997년 이후 2개의 지방법원 및 1개의 고등법원이 특허 및 상표 분쟁 관련 사법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파나마에서 상표 등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미국으로 1999년 및 2000년에는 미국 정부가 파나마 정부와 공동으로 파나마 법조계, 지적소유권 관련 종사를 대상으로 다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파나마는 현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록 등의 제도를 WIPO 규범에 완전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록 및 보호를 한꺼번에 맡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나마 당국은 상표위조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역에서 유명상표 위조사례가 자주 적발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벌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검찰(Ministerio Publico)은 일반 파나마 국내, 콜론자유무역지역 등을 막론하고 판매상품 지적소유권 침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류, 의약품,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식품 등에서 이러한 위조상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류의 경우 Calvin Klein이 그 한 예이다.

파나마에는 2001년 이후 상표위조 관련 고발, 분쟁 사례가 증가해 이의 근절을 위한 입법, 사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단순한 행정조치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시장 산업 및 상업을 보호하고 불공정경쟁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상표위조 등 지적소유권 침해를 행하는 자에게는 수년의 징역이나 수십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파나마는 미국 등으로부터 지적소유권 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상표권 등 보호에 좀 더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소유권 보호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중요한 협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료원 : 파나마 공업소유권법, 외무부)

43. 소비자보호

<소비자 보호>

파나마정부는 소비자보호에 대해 개별 법에서 사안별로 규정하던 것을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1996. 2월 법29호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판매자의 보호, 보증기간,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타 필요한 사안별로 행정부령에 의거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는데 주요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식료품 및 음료의 등록 및 규제에 관한 법령 (Decreto No. 256; '62. 6. 13.)
- 식품위생, 우유품질 및 낙농제품 품질에 관한 법령 (Decreto No. 329; '69. 7. 16.)
- 의약품, 마약류, 식품에 관한 법률 (Law 6; '63. 4. 18.)
- 기초생필품 및 공공요금 안정에 관한 법률 (Decreto No. 60; '69. 3. 7.)

이밖에 파나마정부는 '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독점문제를 심리하는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한편 파나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 안전규격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만족 개념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자료원 : 파나마 행정부령)

44. 수입관리제도

<개황>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달러화를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중계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파나마는 1997년 WTO에 가입한 후 양허관세 수준을 15%로 정했다.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12%인 경우도 있으나 중남미 전지역을 걸쳐 평균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파나마는 사실상 경제를 더욱 넓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개방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 이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이 같은 점을 강력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의약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파나마로 수출하기 위해 파나마 항구로

도착했다가 통관하지 못하고 원산지국으로 되돌아가는 육류 컨테이너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사실상 강화에 대해 많은 국가들, 특히 육류 수출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파나마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WTO 제소까지 예상되기도 한다. 일례로 2001년 우루과이산 쇠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던 업체가 파나마의 강력한 위생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벌금을 지불하고 쇠고기를 그대로 우루과이로 반환한 사례도 있다.

<수입관리제도 관련법규>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감찰법(Codigo Fiscal)이며 법의 제3권 제1편 1장에서 12장까지에서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품의 도착, 하역, 환적 관련규정 (7장)
- 수입품의 세관신고 및 세관검사규정 (8장)
- 수입관련 제세부과 관련 규정(9장)
- 제세의 납부 및 수입품 반환 관련 규정 (10장)
- 수입품의 포기 및 처분 관련 규정(11장)

<수입관리제도 주무기관>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주무기관은 재정경제부의 세관총국이며 동 기관이 파나마의 각 지역 세관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수출입통계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파나마감사원(Contraloria)에 가서 신청해야 하며 거래대상국, 수량, 금액 등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재정경제부 세관총국
Direccion General de Aduanas
주소 : Apartado Postal 7304, Zona 5, Republica de Panama
전화 : 507-232-6672, 6745
Fax : 507-232-6494
http://www.aduanas.gob.pa/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콰라과, 과테말라 등 중미국 및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와 체결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 대상품목의 수입은 파나마 상공부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전담창구(Ventanilla Unica)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공단지법 등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 법령에 따른 기계 및 장비류, 부품 및 반제품, 원부자재 등의 면세 수입에 관한 사항은 파나마 상공부의 공업국(Direccion de Industrias)에서 주관하며 콜론자유무역지대로의 수입 관련 사항은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Administracion de la Zona Libre de Colon)의 상업국(Departamento Commerical)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허가가 있긴 한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얻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지고 거절 당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

파나마의 수입 절차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Import Declaration(통관대행사가 작성해 줌)
- Commercial Invoice(영어 또는 서반아어로 4부)
- Airway Bill
- Bill of Lading(3부)
- Commercial Licence Number
- 농산물일 경우 Phytosanitary Certificate
- 식품일 경우 Certificate of Free Sale

<수입금지품목>

파나마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전투용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및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 (팜플렛,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수입제한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수입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법무부 사전수입승인 필요)
- 다이나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파나마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의 사전수입승인 필요)

<수입쿼타제>

파나마는 96. 12. 26. 행정령 47호로 수입쿼타, 수입사전허가, 수입수량제한 등 일체의 수량규제를 철폐하였으며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한 바 있다

<품목별 보건위생 안전규정>

ㅇ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ㅇ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품.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 파나마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1)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2) 한국의 보건사회부가 발급하고 주한 파나마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여진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 (Power of Attorney)

ㅇ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 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자료원 : 파나마 세관총국, 감찰법)

45. 관세제도

<개황>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며 중미 국가들과는 1970년대 쌍무협정에 의거해 일부 협정 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미와의 특혜무역협정(acuerdo preferencial) 내용은 협정 당사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무관세교역을 목표로 한다.

파나마가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이다. 이들 국가와는 교역가능품목 전부를 무관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동 특혜무역협정의 관세율은 대략 1-10%이다. 한편 인근 중남미지역 경제블럭에 속해 있는 특정국가와는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부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제한된 대상품목에 한해 관세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와는 2002년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대만과도 2003.8.21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2004년 1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NAFTA 회원국인 멕시코, ANCOM 회원국인 콜롬비아와는 부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멕시코와의 협정은 멕시코로부터 GSP를 수혜받는 일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도미니카와는 쌍무 특혜무역협정을 협상 중이다. 2004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94. 12. 12. 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 로 수입관세 상품분류체계를 CCCN에서 HS 방식으로 변경하여 '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의 관세분류를 위한 상품 분류는 21부, 97류, 1,241 Partida, 5,019개 Sub-Partida, 8,298개 Inciso 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99년 WTO 가입에 따라 '98. 1. 1.부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이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에 머물지 않고 2005년까지는 관세를 철폐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관세 자유무역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의 관세율 수준은 쌀, 우유제품, 자동차 3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최고관세율을 15%로 하는 5단계 종가세 관세율 (0, 3, 5, 10, 15%)로 단순화되어 있다. 먼저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품목은 관세율이 5%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 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었던 품목들은 15% 단일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 후 양허관세 수준을 15%로 정했다.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12%인 경우도 있으나 중남미 전 지역을 걸쳐 평균관세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파나마는 사실상 경제를 더욱 넓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99년 정권 교체 이후 현재까지도 제조업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개방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등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파나마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관세 이외에 모든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ITBM) 5%를 부과한다.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맺고 있기 때문에 평균관세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이 2004.1.1부터 발효했으며 2005년 안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원 : EIU)

46. 통관절차

<개황>

수입자는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on de Liquidacio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한다. 세관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 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총국의 확인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Caja de Ahorro, 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참고로 관세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시는 관세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1)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제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실시 (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2)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 - 16: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5일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 없이 정상 근무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대행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국제박람회 (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 통관대행업체인 Auturo y Aurauz, S.A. 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ㅇ수입신고서(Declaracion Jurada)

ㅇ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o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ㅇ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10불)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불 이하이면 무료이고 100,000불 이상은 75불이다.

(인보이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쉬핑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ㅇ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ㅇ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통관관련 단체 및 통관대행 법인>

(1) 통관 관련 단체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
(Union Nacional de Corredores de Aduana de Panama)
P.O. Box 5358 Panama 5 Republic of Panama
Tel 507-214-8917
Fax 507-214-7053
Email uncap@uncap.org.pa
Mrs. Yila M. Harris / President

(2) 통관대행법인

Bullen & Bullen, S. A.
P.O. Box 1060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Tel 507-229-7565
Fax 507-229-1922
Email bulle213@cableonda.net
Mrs. Carolina Bullen / General Manager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 A.
P.O. Box 2653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Tel 507-260-2498
Fax 507-260-2625
Email duyoladu@hotmail.com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 A.
P.O. Box 7319 Panama 5 Republic of Panama
Tel 507-229-4315 / 229-4210
Fax 507-261-1281
Email : albato@grupogardellini.com
Mr. Alberto Gardellini / General Manager

Hugo Arjona y Cia., S. A.
P.O. Box 55-1004 Paitilla Republic of Panama
Tel 507-260-7557
Fax 507-260-2986
Email hugoarjona@cwpanama.net
borisarjona@cwpanama.net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Arturo Arauz, S. A.
P.O. Box 214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Tel 507-264-6575 / 264-2210
Fax 507-263-5989
Email abau@pananet.com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파나마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De La Rosa y De La Rosa, S. A.
P.O. Box 2046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Tel / Fax 279-1183
Email edalar@cwpanama.net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수입품 검사 및 서류 불일치시 제재조치>

수입신고서상에 실제 수입품목과는 다르게 낮은 관세 카테고리의 품목으로 기재하였다가 수입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는다.

ㅇ실수로 판정된 경우

실품목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관세를 산정함과 동시에 실품목 관세율과 서류상 신고품목 관세율 차이의 50%를 CIF 가액에 추가로 추징한다.

ㅇ고의로 판정된 경우

관세법상의 세관기만행위로 간주되어 수입금액 미 10만불 이하인 경우는 수입금액의 1-5배, 수입금액이 미 1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신고서상에 일부 수입품목을 고의로 기재치 않았다가 수입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밀수행위로 간주되어 관세법에 의거, 미 10만불 이하 수입시 수입금액의 1-5배, 10만불 이상은 수입금액 2-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실제 수입품목과는 일치하게 서류상에 기재하였으나 수입가액이나 중량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제수입가액 및 중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미 250-500불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적전 검사제도>

파나마의 경우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ㅇ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ㅇ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등
ㅇ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 (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등)

<기타 통관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세를 조금 아껴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원칙대로 하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된다.

수입상이 자가조세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서를 수입품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47. 유통구조

<유통구조 개요>

파나마는 제조업이 매우 미약한 관계로 유통구조는 수입품 유통이 주종을 이룬다. 파나마의 유통구조는 콜론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된 물품이 일부 파나마 국내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 전달되는 체계와 대형 연쇄점이 물품을 직접 수입 또는 콜론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여 일부 물량을 자사 연쇄 체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二元化한 구조다.

콜론 중계무역상은 대부분 수입업체 겸 도매상으로 외국으로부터 또는 콜론 외국 업체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중남미 다른 국가 바이어에 재수출하거나 파나마 국내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에 공급한다.

파나마의 도매 유통은 대부분 콜론을 통해 수입된 물량 중 일부가 도매상을 통해 파나마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파나마 도매상이 콜론 내 외국기업 현지법인이나 콜론도매상 겸 수입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파나마 도매 유통마진율은 대부분 10% 수준이나 대규모 체인점 또는 수입상이 콜론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마진율이 30% 이상 된다.

소매유통은 비교적 큰 규모의 연쇄점과 일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쇄점은 주로 가정용 전기제품, 의류, 화장품, 문방구류, 완구류, 가구 등을 취급하며 최근에는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전문점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재 판매의 65%는 파나마市가 차지하며 나머지 35% 정도는 David, Colon, Santiago, Chitre 등의 도시 몫이다. 일반적으로 파나마에서는 수입상이 도매상, 소매상까지 겸하는 경우도 많다. 의류, 자동차부품, 컴퓨터하드웨어 부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며 독점에이젼트, 대리점 등의 제도도 널리 이용된다. 주요 수입상 대부분은 파나마 시내뿐 아니라 콜론자유무역지역에 유통채널을 갖고 중계무역에 종사한다.

국내 제품, 수입품 간에 차별은 전혀 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현지에 와서 소매유통업에 종사할 경우 약간의 규제가 있다. 파나마 업체와 독점에이젼트 등의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규정하는 국내법은 없으며 오직 해당 외국 업체와 파나마 국내업체 간의 계약에만 의거할 뿐이다. 따라서 만약의 분쟁 발생 경우나 계약 종료시에 대비해 상호 간의 권리 의무 등을 계약서에 최대한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은 고급 제품에 관한 한 미국 문화와, 산업규격, 제품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 이것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제품이 주도하는 남미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일반 서민의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 제품을 가장 선호한다.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중계무역업체를 방문해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품의 최종 시장 가격은 제품이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유통단계별 마진률은 다음과 같다.

CIF 가격 : US$100.00
수입관세 : US$10.00

합 계 : US$110.00
도매 가격 : US$137.50
소매 가격 : US$171.88

<파나마의 대형유통망>

파나마의 대형유통망이라고 할 만한 업체를 들라면 El Rey, Super 99, XTra, Machetazo, Riba Smith 등 수퍼마켓 체인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업체는 일반 소매상권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 그 외에도 Price Smart라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할인매장이 있으며 미국 등지의 중급품을 일부 판매 시도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을 그리 높지 않다.

위의 4개 수퍼마켓체인이 일종의 寡占 "王國"을 형성해 치열하게 價格戰爭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물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파나마 국내의 수입상, 에이젼트 등을 통해 구입한다. 물론 중국 제품처럼 가격경쟁력이 아주 우수한 경우 드물지만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간에 에이젼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나마의 소매유통은 비교적 큰 규모의 수퍼마켓 체인과 일반 상점으로 구성된다. 수퍼마켓체인은 주로 가정용품, 의류, 화장품, 문방구류, 완구류, 가구 등을 취급하며 최근에는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보다는 100% 가격 경쟁이다. 소비재 판매의 65%는 파나마市가 차지하며 나머지 35% 정도가 David, Colon, Santiago, Chitre 등의 소도시 몫이다. 일반적으로 파나마에서는 수입상이 도매상, 소매상까지 겸하는 경우도 많다.

유통체인의 최종 시장가격은 제품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수퍼마켓 유통단계별 마진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에이젼트 -----> 수퍼마켓체인 : 수입가의 20~30% 마진 형성
수퍼마켓체인의 소매 : 상품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마진 형성(식품 15~20%, 일반 공산품 및 가정용제품 25%, 건축자재 및 부속품 종류 30~40%)

El Rey, Super99, XTRA, Riba Smith, Machetazo 중에서 가장 큰 곳은 Super 99로서 전국 27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이 유통조직에 납품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해 문의한 결과, 구매조직은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각 산하체인의 수요량을 파악해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산하체인이 위치한 지역, 소비자, 소득수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산하체인의 요구에 의해 구매한다. 그러나 산하체인이 恣意的인 결정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산하체인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찾는 물품을 파악해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들 유통업체의 각 제품별 담당자는 대부분 가장 밑바닥 점원에서부터 시작해 그 상품 분야에는 그야말로 잔뼈가 굳은 사람들로 시장상황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학력 수준이 낮고 어디까지나 실무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者들이다. 공급업체 직원에게 저속한

말을 하는 것은 茶飯事이며 그만큼 이들 유통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종의 과점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매자 시장"이 되어 있어서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다.

XTRA는 유태인 자본으로 최저가 중국제품 위주의 판매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4월 중국 광동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방문해 수시로 제품을 물색한다. 품질, 고객만족 같은 美辭麗句는 高邁한 넌센스에 불과하며 1센트를 받고서 팔더라고 싸게 팔 수 있으면 그것으로써 목적은 달성한다는 정책이다. 빗자루를 1불 받고 팔아서 소비자가 사면 되는 것이지 파나마가 무슨 선진국이라고 품질, 디자인을 생각하는냐는 것이 이 업체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이 업체가 공급업체 대할 때에는 제품이나 품질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일단 가격부터 묻는 것이 100%이다.

El Rey, Super 99는 그나마 품질이 조금 나은 제품을 팔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파나마로 치면 중산층이다. 기본적으로 이 두 업체도 역시 가격전쟁을 벌이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나 이 두 업체가 가장 잘 알려진 유통체인업체이다.

Machetazo 는 쿠바인 자본으로 설립된 수퍼마켓인데 역시 XTRA와 비슷한 수준의 물품을 판매한다. 최근에 설립된 Riba Smith는 그나마 고급품을 조금씩 진열하기도 하지만 파나마의 소득분배 구조상 고급제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점유율이 높지 못하다.

이들 대형 유통체인 시장은 한 마디로 구매자(유통체인)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이들 소유주 경제력, 정치 영향력이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회의원, 고위관료, 타 주요 기업체 사장 등이 이들 유통업체와 친척인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실례이다. 다민족 소국가 파나마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민족이라면 유태인을 들 수 있는데 XTRA 사장이 유태인이다.

물품은 항상 공급업체의 책임 하에 직접 수퍼마켓에 배달해 주어야 한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항상 모든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면서 공급업체가 수퍼마켓의 창고까지 인도해 주고 검수를 받는 것이 상례이며 수퍼마켓 체인업체는 이러한 공급업체의 어려움, 노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슈퍼마켓 체인과 비즈니스를 맺을 경우 상시적인 물류(logistics)조직, 운송장비를 갖추어 24시간 구동체체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이다. 보통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 인도시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물품에 조금이라도 瑕疵가 있을 100% 반품에다가 물건 값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금 결제는 100% 외상 결제이다. 수퍼마켓체인 치고 현금으로 즉석 결제해 주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으며 보통 120일, 150일, 길게는 1년, 2년까지 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대금 지불 지연으로 재판을 걸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것도 막대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지닌 이들 업체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법적인 해결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지 업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늦더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늦게 주는 것을 클레임 해보아야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반응이라고 한다. 그것도 최초 납품하는 경우에는 공짜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하다.

이 모든 것이 전통적으로 파나마가 제조업, 산업이 아닌 유통, 물류, 중계무역 등 상업 위주로 살아온 특성에 연유하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아 가격경쟁이 극도로 치열해 공급업체보다는 구매업체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퍼마켓체인에 가보면 일부 원산지가 제한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의 경우 중국 제품 일색이다. 물론 이러한 구매정책으로 소비자가 그만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특히 최근 수년 동안의 경제불황 및 경기부진을 견뎌온 이점도 있다.

파나마에는 우리나라나 선진국 같은 대형 고급품 백화점이 없다. 수퍼마켓을 제외한 파나마의 소매, 잡화, 미니슈퍼마켓 중 90%는 중국인 소유의 비즈니스이다. 19세기 중반 중국인이 파나마 철도 건설 건설 당시 파나마에 건너온 때부터 시작해 이제 3세대, 4세대에 이르면서 중국인 비즈니스는 파나마 경제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중국인 비즈니스는 일상생활용품, 식품 등 상품의 특성상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성업을 이룬다. 파나마 시내 소매상점은 물론이고 산골벽지 밀림의 초라한 구멍가게까지 어김 없이 중국인이 운영한다. 겉보기에 중국인은 파나마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실제로 이들 중국인의 보이지 않는 경제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질시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인구 300만 파나마 전역에 중국인 인구는 5%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는 약 1만개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로 저소득층, 서민, 빈민 등을 상대로 하는 저가품이지만 워낙 底邊의 시장이 넓고 모두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판매는 엄청나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시골 구멍가게를 연상하게 하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중국인 가게에 아무 때나 가서 25센트 동전 한 잎으로 맛있는 빵을 사서 요기할 수 있다. 구멍가게뿐 아니라 차부품 쪽으로도 중국인이 업종을 확대, 중국이나 대만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국 제품에게 큰 경쟁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인 소매 비즈니스와 슈퍼마켓은 그 시장이 다른 면이 많다. 전자는 인구 밀집 저소득층, 벽지, 지방, 변두리, 일반 주택지 등인 반면 슈퍼마켓은 도심지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인 소매상의 특징은 소비자에게도 매우 싼 가격으로 팔지만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평균 30% 정도의 마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출신지역인 중국의 광동지방 친지, 업체 등과 긴밀한 연고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통망을 운영한다.

파나마에 대한 수출유망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나마가 중남미 중계무역지로서 중계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파나마는 중남미에서도 빈부차이가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로 중산층이 매우 엷은 특징을 가진다. 수요계층이 이렇다 보니 소비재의 경우,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유럽, 미국, 일본산 고급 브랜드제품 시장과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중국, 동남아 등 저품질 저가격 시장이 양립해 있다. 한국산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의 바이어가 품질의 우수성은 인정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없어 고급품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서민층 수요에 대해서는 중국, 동남아산 저가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 제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소비자 인식 등에 있어서의 진출 제약 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일본 제품에 버금가는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망 진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시장상황 및 폐쇄성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納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들 유통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중개상을 통해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중개상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 중간 마진이 올라갈 수 밖에 없으므로 가격정쟁력이 취약한 한국제품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파나마나

인근 중남미 현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종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능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유통업체 간의 가격전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지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 제품의 진출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 업체의 경우 파나마 중계무역상이나 유통업체가 잘 찾는 매년 4월의 광동전시회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는 중남미 현지생산을 활성화해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춘 후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최근 한국산 라면이 파나마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활발히 판매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다. 한국산 라면은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 제품보다 맛이 좋으며 가격 또한 매우 경쟁적인 제품으로 알려려 있으며 앞으로도 판매 전망이 좋은 편이다. 이와 같이 소비재, 생화용품, 문구류, 전기제품, 과자, 청소용품 등 위주로 가격경쟁성만 확보한다면 파나마 대형유통망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EIU, 현지 실사)

48. 국제입찰제도

<입찰제도 개요>
파나마의 정부조달은 법률 제56호가 규율하며 방산물자를 제외한 모든 정부조달은 투명한 입찰과정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에 가입한 후 파나마는 다자간정부조달협정(Plurilateral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는 observer government, negotiating accession 위치에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도 미국은 파나마의 정부조달 투명성 제고를 중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입찰 기관>

파나마의 정부조달 분야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파나마 경제제재무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에서 매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통 상품 및 서비스(Catalogo de Bienes y Servicios; CIBS) 품목이고 다른 하나는 각 정부기관이 독자 구입하는 분야이다. 경제재무부 CIBS 대상품목은 매년 1회 실시, 낙찰업체를 지정하고 이 낙찰업체로부터 모든 정부기관이 해당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볼펜 분야에서 Bic 볼펜이 낙찰될 경우 해당 연도에는 모든 정부 기관이 반드시 Bic 볼펜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수요가 많은 품목은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번잡한 절차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이다. CIBS 해당 품목은 연료, 윤활류, 각종 전지(bateria), 튜브 및 타이어, 청소용품, 공중위생용품, 사무용품, 문방구, 가구류, 사무용구(전산장비 제외) 등이다.

CIBS 이외의 제품은 각 정부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연중 따로 구입한다. 정확한 시장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기 공통품목(CIBS)의 경우 최소한 1억-1억5천만불 규모이다.

파나마의 각 정부기관이 경제재무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은 2003년

기준 3억4천3백3십8만7천577불 규모이다. 파나마운하관리국도 연간 1억5천만불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파나마는 WTO 정부조달 미가입국으로서 국제관련에 따른 조달 관행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입찰 지연, 낙찰자 선정에서의 관료주의 팽배 등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 기업의 불만 대상이기도 하다.

파나마의 정부조달시장은 미국에게도 큰 관심사 중의 하나로 올해 미국-파나마 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을 통해 미국은 파나마의 정부조달 분야를 완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국가의 기회균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 업계의 참가를 유리하게 확대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나마정부는 파나마 감사원 홈페이지 내에 전자 정부조달(e-Compras)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정부조달 기관으로는 우선 경제재무부를 들 수 있다. 경제재무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파나마정부 공통품목 및 경제재무부 독자 소요 품목을 파악하고 구입한다. 다음으로 파나마운하관리국은 http://www.pancanal.com/eng/procsales/bidonli.html에서 입찰 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팅해 게재하므로 전세계 누구든지 품목별 입찰 계획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파나마운하관리국은 이 사이트를 통해 2004년부터는 입찰 결과, 가격, 신청업체 등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참가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함을 의미한다. 그 외에 12개의 부(Ministerio)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국립대학, 공기업 등이 있다. 2003년 구매를 가장 많이 한 기관은 공공건설부(Ministerio de Obras Publicas)로 금액이 1억7천6백8십5만7천961불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 수도공사(IDAAN) 구매금액도 1억1천4백8십6만5천235불에 달한다.

파나마운하관리국(ACP)를 제외한 파나마 정부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조달 정보는 이전에는 모두 신문을 통해 공고했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얻는 것이 어려웠고 정보를 입수한 후에도 일일이 해당 부서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 파나마정부도 인터넷을 통해 정부입찰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파나마감사원(Contraloria General)http://www.e-compras.gob.pa/을 통해 2003년 말부터 파나마 정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입찰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신문공고 방식으로 하는 입찰도 다수 있지만 올해 계속 작업을 진행해 2005년까지 전자방식으로 대부분의 정부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파나마 정부 17개 부처, 4개 국립병원, 수도공사(IDAAN), 파나마시청 등 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2003년에는 중앙정부 13개 부처가 실시한 129건의 입찰 정보를 수록한 바 있다. 이전에는 참가업체가 신문에서 입찰을 실시한다는 기초정보를 입수한 후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입찰서류를 300~800달러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번잡한 절차가 상당 부분 불필요하게 된 상태이다.

기초단계의 파나마 전자 정부조달은 금년 안으로 제2단계로 발전한 후 2005년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전자 정부조달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 관련 법률 법률 제56호를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4년 제2단계가 완성되면 이제까지 입수 불가능했던 '가장 많이 낙찰되는 공급업체', '낙찰가격', '해당 품목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부처' 등 많은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문의해 얻을 수 있으며 전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투명한 내용이 모두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입찰 제도>

파나마 정부조달법에 따르면 25만불 이상의 정부조달은 정부조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입찰 참여업계 사전 심사 및 등록제를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품목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입찰기관에서는 관심업체와 조달조건 및 가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입찰 전략>

파나마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즉 정부조달 낙찰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 결여, 관료주의, 업체선정 지연 등으로 주요 프로젝트에 있어 외국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며 원청업체로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기 보다는 현지 정부조달 유력업체와 제휴하여 파트너 또는 하청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파나마운하관리청>

파나마운하관리청(Autoridad del Canal de Panama; ACP)은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운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각종 기자재, 기계, 장비, 소모품 등 다수의 물품을 연중 구매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기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며 아직 한국의 진출 업체는 별로 없다. 입찰 실시 공고에서 최종 낙찰 발표까지의 기간을 보통 1개월 이하로 짧게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입찰 정보 업데이팅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입찰의 대부분은 참여 조건에 제한이 없는 공개 국제입찰 형식으로 진행하며 품목의 특성, 입찰 금액에 따라 파나마 국내 업체에만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업체를 결정한다. 파나마의 일반 정부 조달시장은 관료주의가 극히 심하고 투명하지 못해 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수시로 대규모 구매를 실시하고, 절차가 투명하고 간소해 우리나라의 對파나마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파나마운하관리국 구매입찰 정보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 100% 검색할 수 있고 입찰서류도 이 사이트에서 모두 출력할 수 있다.

ㅇ 검색 방법

파나마운하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pancanal.com/
English 선택(화면 아랫 부분)
procurement & sales 선택
we buy 선택하면 각 정보가 나옴
정보마다 입찰서류가 100% 실시간 on-line 제공되므로 국내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음.

우리나라 업계는 극소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나마운하 입찰에 참가한 경우가 별로 없다. 다른 기관의 국제입찰과는 달리 전세계 모든 업체에게 입찰이 항상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입찰서류도 아주 특별한 경우(예 : 두꺼운 분량의

설계도면이 첨부되는 경우, 특수한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 등) 이외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우리 나라 업계의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는 현지 에이젼트가 없어도 해외에서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금 지불과 관련, 입찰 오퍼 요건대로 적기에 납품만 할 경우 대금 지불은 보통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항상 그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지불하고 있다고 하니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위험도도 그만큼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4년부터는 파나마운하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 결과를 역시 on-line 공개함으로써 내외의 관심을 관심을 끌고 있다. http://www.pancanal.com/eng/procsales/buy.html 의 Bid Abstract - Sealed Bid Online 에 입찰 실시 현황을 100% 공개하며 입찰 실시 시기, 품목, 참가업체명, 참가업체별 가격 경쟁, 낙찰기업체, 낙찰 가격 등 상세한 사항을 모두 검색할 수 있어 입찰 참가 희망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입찰정보를 일일이 클릭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 업체가 보이지 않아 참가가 매우 저조함을 말해 준다.

*** 참고 : 파나마운하관리청 입찰 소개**

파나마운하의 소유권, 경영권 등 모든 권리는 1999.12.31자로 파나마에 이전되었다. 파나마운하가 완공된 1914년 이후 1999.12.31까지 미국정부가 파나마운하를 관리했으므로 파나마운하의 구매행위는 모두 미국정부 규정에 의해 시행했다. 그러나 파나마운하 권리가 파나마에 이전된 후에는 파나마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파나마운하관리청(Autoridad del Canal de Panama)이 독자적인 규범을 통해 필요 물품을 구매한다. 현재 파나마운하의 연간 구매액은 3억불 정도로 추산되는데 미국의 관리 하에 있을 때와는 달리 전세계 모든 기업, 제품에 대해 입찰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구매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입찰(Bid, Licitacion) : 구매금액이 1십만불 이상일 경우

일반구매(Compra) : 구매금액이 1십만불 이하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가 있음.
간이구매(Compra simplificada) : 구매금액이 1만불-1십만불
소규모구매(Compra menor) : 구매금액이 2천5백불-1만불
최소구매(Microcompra) : 구매금액이 2천5백불 미만

상기 구매방법 중 입찰과 간이구매는 반드시 파나마운하관리국 계약사무소를 통한 중앙통제에 의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소규모구매는 파나마운하관리청 각부서 책임자의 재량 하에 실시하며 최소구매는 각부서 직원의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분권적 제도이다.

모든 부서는 부서의 소요자재를 결정해서 단위 구매액이 1십만불 이상인 경우 다음 회계연도(매년 10월 1일에 시작) 구매를 위해 당해 회계연도 3/4분기까지 계약국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여러 부서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계획일 경우 계약국이 이것을 한 데 묶어 한 개의 구매를 실시한다. 이러한 구매부서에 신청을 하기 전에 모든 부서는 시장조사를 실시해 예상되는 최대한 많은 공급업체를 확보함으로써 공급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입찰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예비입찰 구비요건
구매대상 제품 설명
납품 기간, 장소
적기 납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제재조치 내역
낙찰기준(가격, 품질 등)
계약조건(제품검사, 제품승인, 계약수정 요건, 분쟁해결 등)
참가 공급업체가 파나마 국내에 대리점(representation)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 등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참가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구매행위를 널리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홍보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상품이 없어서 특정상표 제품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식 절차를 통한 구매를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긴급상황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에서도 다음과 같은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다.

구매액이 5백불-1십만불 : 계약국의 구매계약담당관이 승인
구매액이 1십만불-5십만불 : 계약국장이 승인
구매액이 5십만불-1백만불 : 파나마운하관리청장이 승인
구매액이 1백만불 이상 : 파나마운하관리청 이사회가 승인

구매 실시 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표한다.

1. 구매액이 5백불-2천5백불 : 파나마운하 해당 실시부서의 오프라인게시판 및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3일 이상 공고

2. 구매액이 2천5백불-1만불
- 파나마운하 해당 실시부서의 오프라인게시판 및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3일 이상 공고.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에서 입찰결과 발표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상이 되어야 함.

3. 구매액이 1만불-1십만불
- 파나마운하 해당 부서의 오프라인게시판 및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5일 이상 공고.
- 동시에 3개 이상의 파나마 일간지에도 각각 다른 일자에 1회씩 공고해야 함.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과 입찰결과 발표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4. 구매액이 1십만불 초과
- 파나마운하 해당 부서의 오프라인게시판 및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10일 이상 공고.
- 동시에 3개 이상의 파나마 일간지에도 각각 다른 일자에 1회씩 공고해야 함.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과 입찰결과 발표일까지의 기간이 20일 이상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입찰서류는 무료로 배포하며 특별한 도면, 자료, 파일 등이 있을 경우에 實費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파나마운하는 입찰을 종료한 후 낙찰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용조사를 한 후에 계약을 맺는다. 그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재정능력을 갖춘 업체인지 여부
2. 업무수행 능력, 비즈니스 약속이행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
3. 파나마정부와의 계약에 있어 자격미달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1만불 이하의 구매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부서에서 직접 구매지시를 내린다.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국에서 구매지시를 내린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액이 1십만불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공개입찰에 의거해 구매를 해야 한다. 파나마운하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입찰서류를 발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기 위해 입찰 참가 예상업체와의 협의를 가질 수 있다. 잠재 참가업체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나마운하가 임의로 입찰서류 상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입찰서류를 공고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수정할 때마다 참가업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준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파나마운하 계약당국과 입찰서류 제출업체 間 회의를 한 차례 가진다. 일단 제출한 입찰서류는 입찰내용이 개정되어 입찰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입찰서류는 파나마운하 사이트, 팩스 또는 개별적으로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찰참가 오퍼가 없는 경우
2. 제출한 오퍼의 위험성이 너무 높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3. 동일한 업체의 본사, 지사, 제휴 업체에서 각각 따로 오퍼를 제출할 경우
4. 파나마운하의 이익에 反하는 오퍼

입찰 결과는 파나마운하 오프라인 게시판 및 인터넷사이트에 5일 이상 게시한다.

입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 입찰(Public Bid based on lowest Price)
- 제품의 품질을 불문하고 가격이 최저인 업체를 낙찰시키는 경우
- 입찰서류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면서 최저가 가격을 제시한 업체 낙찰
- 가격이 유일한 조건이므로 다른 논의, 협상 불필요

2. 협상입찰(Negotiated Public Bid) : 가격뿐 아니라 다른 요건도 고려하는 경우

ㅇ Negotiated Bid with Lowest Price
- 일정 입찰참가 요건을 정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오퍼에 한해 최저가 오퍼 선정
- 필요할 경우 오퍼 제출업체와의 협상 실시

ㅇ Negotiated Bid of Best Value
- 가격/품질 요건을 함께 적용해서 가장 적합한 오퍼를 선정
-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실시할 경우 파나마운하 당국의 사전승인 필요

3. 양단계 입찰(Public Bid with two Stages) : 상기 협상입찰의 두 가지 단계를 모두 실시

ㅇ 제1단계(First Stage)
- 입찰 참가업체는 기술제안서만 제출하고 파나마운하 당국과 협상할 수 있음.
- 소정의 기술요건을 충족하는가를 보는 단계로 Negotiated Bid with Lowest Price에 해당함.

ㅇ 제2단계(Second Stage)
- 제1단계를 통과한 참가업체는 가격을 제출할 수 있음.
- 가장 낮은 가격을 오퍼한 업체가 낙찰
- 모든 참가업체가 기술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가격만이 중요한 Public Bid based on Lowest Price 단계임.

낙찰업체 선정 관련 異見, 紛爭 등의 해결은 파나마운하 계약국장이 담당한다. 이견은 입찰결과를 발표한 후 5일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다. 이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견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견제출업체가 해당 입찰 최종 낙찰가의 5% 금액을 보증금(bond)으로 내걸어야 한다. 이 경우에 1십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명문으로 규정된 바는 아니지만 實益이 없는 이견 제출을 濫發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견을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일단 결정한 후에는 上告할 수 없다. 파나마상공회의소에서 상고에 대한 중재를 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通說은 아니다.

입찰실시채권(performance bond)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재화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총금액의 50%를 요구하는 것이 常例이다. 입찰실시채권은 입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각 입찰서류에서 그 필요 유무를 공고한다.

모든 구매계약은 파나마 국내법 및 파나마운하관리철 규정에 의거해 해석, 적용, 실시한다.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분쟁의 해결에 있어 사법적 해결방법이 부인되지 않는 한 外交的保護를 포기한다는 점을 계약 명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계약을 맺은 기업체는 파나마운하 당국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며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불받는다.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파나마운하당국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파나마운하관리청은 능력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체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배제조치의 유효기간은 최대한 10년이다. 배제조치의 요건으로는 절도, 脫稅, 腐敗, 賂物授與, 不順應 등 여러 가지이다.

49. 외환관리제도

<외환관리제도 개황>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8조국으로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GAFI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른 바 "tax haven"이라는 말도 듣고 있으며 모든 국내외 금융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자료원 : IMF, 현지 실사)

50. 시장특성/시장 규모 및 특성

<시장 규모>

파나마는 콜론중계무역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 제2위, 중남미 제1위의 중계무역기지로서 중계무역을 위한 수입규모가 약 50억불에 이르며 파나마 국내시장용 수입이 약 30억불로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약 80억불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콜론자유무역지역 주요 중계무역상과 파나마시티에 지역본부를 두는 선진국 대기업 현지법인은 그들의 대중남미 판매 물량 중 상당량을 파나마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국 수입상 앞으로 선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상기 수입규모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가 파나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장 특성>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파나마는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의 70%,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중 3대 주요 서비스산업은 파나마운하 운영사업,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중계무역, 중남미 금융중심지로서의 금융산업이다.

반면, 1·2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양식새우와 바나나 재배를 중심으로 한 농림수산업은 GDP의 12%, 제조업은 GDP의 9%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제조업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제조업은 의류, 식품, 건축자재 생산업이 주종을 이룬다.

중남미 최대의 중계무역기지 파나마 자체시장은 인구 3백만명에 불과하여 총수입규모는 U$30억불 내외에 그치는 협소한 시장이나 콜론자유무역지대는 연간 수출입 80억-90억불의 중남미 최대의 중계무역지이다. 우리나라 역시 對파나마 상품수출액의 약 80%(선박 제외)가 콜론을 거쳐 남미 각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

비교적 중남미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법인설립 및 운영의 용이, 콜론자유무역지대

내 영업소득세 면제, 무제한 과실송금 등 자본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대우, 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지역본부가 파나마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각국 상품간의 시장경쟁이 치열한 콜론자유무역지역이 있어 우리 상품의 대중남미진출 근거지 기능을 함과 동시에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파나마에는 외환은행을 비롯한 한국주재상사 및 20개 교포무역업체가 있다. 파나마는 미달러를 법정통화로서 사용하는 국가로 경제 및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중남미 금융중심지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중남미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파나마운하를 통한 태평양과 대서양의 연결통로이자 남북미주 연결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남미해운의 중심지이며 편의국적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 국적 등록 선박 수는 세계1위이다. 중미 지역에서 1인당 소득이 비교적 높은 시장이다. 그러나 부의 편재가 심하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 성향이 대단히 높으며 값싼 제품보다는 고급품 위주의 구매 패턴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의 경우 가격 위주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품의 아성을 깨고 한국, 일본 등의 제품이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자료원 : EIU, 현지 실사)

51. 시장특성/콜론 중계무역 시장

콜론자유무역지역 중계무역은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간 직접 무역 확대 추세로 그 기능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파나마경제 및 중미지역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파나마 국민소득의 7% 정도를 창출해 낼 만큼 파나마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 한편 콜론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중계무역에서 수입 및 재수출 가격 간의 차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콜론 입주 중계무역상들의 판매 마진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국제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며 사치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수입해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수입 및 재수출 규모는 110억달러로 홍콩을 능가하는 등 서반구 최대의 중계무역 기지로서의 역할을 유감 없이 담당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2003년에는 중계무역 규모가 85억달러 규모로 줄어든 상태이다.

파나마에서 약 80㎞ 떨어진 콜론자유무역지역에는 1,800개 중계무역업체가 입주해 있고 3개의 국제항구와 인접해 있어 수출입 업무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콜론지역을 통과하는 유람선 수가 증가하는 것도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실은 유람선으로 관광객 1인당 5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콜론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콜론자유무역지역은 경기부진을 겪고 있으나 이것은 콜론자유무역지역 자체가 불필요해졌다거나 그 경쟁력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주요 거래 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정이 악화된 파급 영향이다. 2003년 이후 콜론 경기도 차츰 회복되고 있으며 2005년 5월 현재 교역 규모는 꾸준히 성장한 바 있다.

(자료원 :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

52. 시장특성/화교상권

<파나마 중국계 비즈니스>

파나마 내의 소매, 잡화, 미니슈퍼마켓 중 90%는 중국인 소유의 비즈니스이다. 19세기 중반 파나마에 철도가 처음 생길 때 철도를 건설하는 데에 종사하기 위해서 온 중국인 노동자가 최초이다. 20세기 초 파나마운하 건설 당시 파나마에 건너온 때부터 시작해 이제 중국인 3세대, 4세대에 이르면서 중국인 비즈니스는 파나마 경제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 비즈니스는 일상생활용품, 식품 등 상품의 특성상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성업을 이룬다. 파나마 시내의 일반 소매상점은 물론이고 산골벽지 밀림의 초라한 구멍가게까지 어김 없이 중국인이 운영한다. 겉보기에 중국인은 파나마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실제로 이들 중국인의 보이지 않는 경제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질시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인구 300만이 안 되는 파나마 전역에 중국인 인구는 5%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는 약 1만개 있다. 주로 저소득층, 서민, 빈민 등을 상대로 하는 저가품이지만 워낙 저변의 시장이 넓고 모두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판매는 엄청나다. 아무 때나 가서 25센트 동전 한 잎으로 맛있는 빵을 사서 요기할 수 있는 곳이 이 중국인 가게이다. 구멍가게뿐 아니라 차부품 쪽으로도 중국인들이 업종을 확대, 중국이나 대만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국 제품에게 큰 경쟁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형 슈퍼마켓체인이 다수 들어서면서 중국인 비즈니스와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후에는 중국인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누려 온 독보적인 지위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2년동안 서구식 대형 슈퍼마켓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상승한 반면 중국인 가게 등 소매업에 대한 선호도는 차츰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파나마라는 나라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차츰 소비자들의 구매방식도 다양화해지고 변화해 가는 것이다.

물론 이들 중국인 소매 비즈니스와 슈퍼마켓은 그 시장이 다른 면이 많다. 전자는 인구 밀집 저소득층, 벽지, 지방, 변두리, 일반 주택지 등인 반면 슈퍼마켓은 도심지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Procter and Gamble 파나마 현지법인 사장인 David Jimenez 씨의 의견이다. 중국인 비즈니스의 특징은 소비자에게도 매우 싼 가격으로 팔지만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평균 30% 정도의 마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출신지역인 중국의 광동지방 친지, 업체 등과 긴밀한 연고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인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중남미 전체적으로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오늘날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제품의 아성을 극복하고 그 수준에 맞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파나마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

파나마에 중국인이 최초로 이주해 온 것은 1854년으로 철도 건설을 위한 인부 조달이었다. 2003년 현재 파나마에 거주하는 중국인 및 그 자손은 12만명으로 파나마 총인구 3백만을 고려할 때 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은 그 고유의 습성을 지키면서도 현지문화에도 잘 적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동양인 가운데에서는 가장 덜 배타적이서 현지인과의 결혼, 현지 기업체 취직 등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도 중국계이다.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파나마뿐 아니라 중남미 어디든 인종주의적 편견 및 멸시의 일차적 대상이 중국인이지만 사실상 이들은 구멍가게, 소형 수퍼마켓, 식품점, 세탁소, 자동차부품 및 정비업 등 분야에서는 이미 그 위치를 완전히 굳히고 있으며 일부는 금융중개업, 보험업, 정치계 등으로까지 진출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인이 중남미인을 보는 각도는 한국인이 보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중국인은 파나마인을 "약고, 무사안일하고, 책임감이 없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여자만 좋아하는" 민족으로 본다. 반면 파나마인이 중국인을 보는 것은 정반대이다. 파나마인은 중국인을 "노랑이이고, 지저분하고, 꾀죄죄하고, 일만 하는" 민족으로 본다.

중국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식당, 소규모 수퍼마켓, 가게, 빵집, 창고, 약국, 세탁소, 철물점, 건자재점, 차수리, 가전제품 수리점 등이다. 이것은 파나마뿐 아니라 중남미 대부분 국가의 중국인에게 해당된다. 최근에는 여행사, 법률자문, 보험중개업, 미장원, 이발소, 고급식당, 동양식품 수퍼마켓, 인쇄소, 한의원, 약국, 鍼術, 비디오 대여업 등 그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파나마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구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째 "전형적인 중국인"이다. 아직 현지 사회에 이민을 온지 얼마 안 되어 전혀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다. 특징으로는 "사귀기 어렵고, 행색이 조잡하며, 서반아어를 못하며, 외부접촉 없이 杜門不出 자기 장사만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 중국인으로 현지인의 가장 큰 모멸과 인종차별의 대상이다. 둘째, "일반적인 중국인"이다. 이들은 "비즈니스 기법을 조금은 알며, 항상 돈 되는 똑같은 물건을 사며, 변화는 싫어하며, 서반아어는 기초만 알며, 세상일이라도 그저 관심 있는 일에는 참가하는" 평균적인 중국인이다. 셋째 "미래 지향적 중국인"이다. 현지인과 매우 근접한 중국인으로 "언어에 문제가 없으며, 현지인 고객과의 사교에 적극적이며, 현지인에 맞는 비즈니스기교를 따르는" 사람이다.

중국계 인구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현지 문화, 역사, 사고방식, 정치, 사회제도 등에 적응하고 있다. 최근 파나마 중국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일간신문 1개, 주간이나 월간 잡지 3개를 구독하며 현지 라디오방송 1개를 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도 외국인학교나 American School 보다는 현지인 학교에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중국인은 이러한 철저한 현지동화 및 적응을 통해 앞으로도 파나마 소매상권을 더욱 굳게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품이 콜론 중계무역시장을 완전 주도할 뿐 아니라 중남미시장 전체적으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날로 높아지는 것도 중국계 인구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의 비중은 중국의 중남미진출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주요 바이어 인터뷰 등 현지 실사)

53.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현지 독점대리점권 부재>

파나마의 많은 업체가 특정 외국 업체와의 장기거래에 있어서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취급하는 현지 대리점일수록 이러한 거래상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말한다. 실제로 외국 유명 상표를 독점적으로 국내 공급하던 업체가 대리점권을 상실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외국 업체가 파나마와의 거래에 있어 현지 대리점권을 쉽게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파나마 국내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L'Oreal 화장품의 예를 보자. 20년 이상 이 화장품은 파나마에서 Ricardo Candanedo 유통업자가 독점 공급해 왔다. 그만큼 Ricardo Candanedo 사장은 L'Oreal상품의 파나마 내 판매에만 노력을 경주했고 다른 상품 판매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L'Oreal 화장품의 시장성과야말로 자신의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었고 L'Oreal 홍보를 위해 자신의 자금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00.12.12 L'Oreal 본사에서 현지 대리점을 회사 경영 전략상의 이유로 다른 업체에게 넘긴다는 서한이 도착했다. 오랜 기간 동안 독점대리점으로 활약할 뿐 아니라 판매촉진을 위해 개인자금 10만달러 이상까지 투자했는데 이러한 내용의 연락을 L'Oreal로부터 받은 것은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과테말라에 있는 L'Oreal 지역본부에서는 Ricardo Candanedo의 대리점권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無情한 L'Oreal의 조치로 Ricardo Candanedo社는 졸지에 은행 대출금, 종업원 월급, 부동산 등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 생기 넘치던 사장님 Ricardo Candanedo의 머리는 하루 아침에 하얗게 쇠었다.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은 Ricardo Candanedo뿐만 아니다. Licores Canavaggio社는 85년 이상 Old Parr 상표를 파나마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했으나 96년 어느 날 갑자기 United Distillers社로부터 현지 대리점 업체를 바꾼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Licores Canavaggio社는 매년 줄잡아 4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Old Parr 홍보에 투자했다. Old Parr 상표는 파나마에서 가장 잘 팔리는 위스키였는데 아무런 사전 연락, 온당한 이유도 없이 하루 아침에 현지 대리점을 바꾼 것이다. Licores Canavaggio社의 매출은 35%나 감소했고 종업원 15명을 해고해야만 했다. Brostella S.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0년 이상이나 현지 공급해 오던 Johnnie Walker를 다른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빼앗긴 것이다.

Impa Doel社도 역시 16년 동안 독점 공급해 오던 Frito Lay, Roche 등의 제품을 다른 업체에게 넘겨 주어야 했다. Sagel社도 Silueta 제품의 대리점권을 박탈당하는 바람에 매출액의 95%가 감소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89년까지만 해도 파나마에서 독점대리점권에 의거한 수입유통 비즈니스는 대단히 호황을 이루었다. 1969년 발표한 내각행정명령(Decreto de Gabinete) 344호 및 1984년 제정한 법률 제33호(Ley 33) 등은 외국 제품 독점 대리점 권한을 취소시킬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파나마 현지 독점대리점권을 바꾸는 것은 매우 높은 비용을 수반했다.

그러나 89년 마누엘노리에가 정권 때 대법원이 이러한 독점대리점권 보호관련 법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외국제품 독점대리점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법률에 보호받는다기보다 독점대리점권은 그야말로 해당 기업체끼리의 순수한 계약 및 신의성실에 입각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 자유경쟁과 시장자유의 원칙을 들어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당시 정권의 압력에 의해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렸다는 설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치로 파나마 기업은 하루아침에 외국제품 유통에 있어서의 법적인 보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외국 업체와 체결하는 독점대리점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 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외국 업체에게 큰소리 치는 시대가 가고 외국 업체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왜냐 하면 독점대리점 변경시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이냐고 까다롭게 굴다가는 외국 업체로부터 "이거 아주 골치아픈 업체구만"이라고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나마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경우에 매우 심각하다. 다수의 유명 외국 기업체는 현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 매장을 차려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파나마 업체가 현지 대리점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 생산업체의 도움이 없이 직접 제품 마케팅을 하는 등 투자해야 하고 마진도 20% 선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자금력 없는 중소업체는 죽을 지경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도 어떤 특정 상표의 독점대리점권을 갖고 있을 때는 그나마 재미가 있었는데 이를 취소당하면 그 매출액이 100%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89년 이후 수입업체 보호를 위한 법령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물결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어떤 한두 개의 특정 상표에만 목숨 걸지 말고 두루두루 상품 지식을 넓혀 거래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파나마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L'Oreal 때문에 빈사 상태에 한 때 놓였던 Ricardo Candanedo도 구사일생으로 다른 상표를 수입할 있게 되었고 Cosmeticos Selectos社도 여러 상표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파나마 업계의 상품수입선 다변화는 생존전략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시에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파나마 업체는 일단 외국 업체와의 상담에서 제품이 마음에 들면 바로 독점대리점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그만큼 대안을 많이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전혀 다른 한국이라는 나라의 업체와 거래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들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파나마 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상품 수출 증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결혼”을 이루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로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파나마의 경우뿐 아니라 사정이 비슷한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

<문화적 금기사항>

특이한 문화적 금기사항은 없는 편이나 매년 2-3 월에 개최되는 `물의 축제' 기간 중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때 당황하여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물세례가 한 해의 재앙을 막아주는 축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물세례 대신 색종이가루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또 국민 중 다수가 흑인 또는 흑인 혼혈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종적 편견, 차별감 등을 절대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주요 유통업은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고 전자제품시장은 인도계, 직물시장은 아랍계, 기타 중소슈퍼점은 중국인계의 점유율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인종, 종교문제 등 민족문제에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파나마 내국인에게 있어서 대미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나 미군 주둔시 파나마 대학생이 미군 관할 구역 내 파나마국기 게양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노리에가 집권시 미군침공 사태 등이 있어 반미감정이 높은 파나마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나마 주권과 관련된 지나친 친미적 언사나 정치·외교적 견해는 삼가해야 한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를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예 : 코스타리카 가니까 날씨가 파나마보다 훨씬 좋더라, 콜롬비아 가니까 여자가 파나마 여성보다 더 이쁘더라, 멕시코 음식 맛이 더 좋더라, 칠레 가니까 매우 발전되어 있던데, 파나마는 왜 그 모양이야?-----등등)

<수입 관행>

콜론자유무역지대는 D/A, D/P 등 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오랜 거래관계를 통한 신용사회의 구축이라는 일면도 있고 또 중남미 경제가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월 이자가 지역에 따라서는 20-30% 였던 곳도 있어 상품단가를 깎아 주는 것 보다는 3-6 개월의 외상을 주는 것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는 훨씬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자제품, 직물 등 콜론자유무역지대 주력 상품은 외상거래가 관례화되어 있다.

그러나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초기에는 T/T, L/C at sight 등 정상거래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정도이다. 일정 기간 거래 후 바이어의 수입 규모나 거래상태를 보아가면서 D/A, D/P 거래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물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좋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필히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파나마 및 콜론자유무역지대 경기부진으로 현지의 유력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신용상태 좋은 바이어라도 반드시 수출보험 활용이 요망된다.

<거래시 유의사항>

D/A, D/P 등 외상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거래 조건은 뒤탈이 많기 마련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부보로 외상거래를 관리함은 물론 계약서나 Confirmed Offer 상에 `분쟁시 우리나라(또는 파나마) 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문구삽입과

양측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귀가 들어간 서류가 있으면 문제 발생시 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내용)가 양국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지니스 에티켓>

상담을 위하여는 사전 약속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며 상담시 복장은 정장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콜론 중계무역상은 영어를 잘 하나 스페인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스페인어로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상담시 유의사항>

파나마 시장은 중계무역의 특성상 품질보다는 가격을 위주로 하는 재수출용 수입시장인 만큼 가격 위주의 상담진행이 효과적이다. 이 쪽의 가격을 보이기 전에 그들의 수입가격을 먼저 물어보면 대부분 선선히 그들의 수입가격을 이야기해 주는 바이어가 많으며 심지어 경쟁수출업체의 오퍼까지 보여 주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품질상 장단점을 솔직히 비교 분석해 주면서 그 가격에 근접하게 또는 경쟁력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상담은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파나마 국내시장을 상대할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협소(인구 3 백만)하기 때문에 필히 소량다품종 수주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중국, 동남아 국가에 가격경쟁이 밀리는 품목이라도 고정거래처를 확보할 수도 있다.

<미국 제품에 대한 향수, 중국 제품 선호>

전통적으로 파나마 운하가 미국에 의해 관리되었고 미국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게 때문에 미국의 문화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 문화, 제품, 규격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웬만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미국을 자주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산업제품, 일반 생활용품 등의 면에서 미국적인 디자인, 산업규격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미국 제품이 전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이다. 미국과의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말로는 미국인을 욕하는 태도와 상반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용품, 소비재 등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제품도 하루 빨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료원 : 현지 실사)

54.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매력도>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 산업 투자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건설 계획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舊하워드공군기지를 개조한 태평양경제구역을 지정했으므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 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기업의 내국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파나마는 제조업이 전체 GDP의 9%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조업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연관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평균임금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통신, 전력 등 산업인프라 요금이 비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예 : 마낄라도라산업)은 적합치 않다. 그러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조립산업 등은 콜론자유무역지대라는 중계무역기지에 대한 마켓팅과 파나마운하 양안 항구를 이용한 대중남미 물류기지 역할을 함께 활용할 경우 장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물류 절감 비용이 제조나 단순조립 시설유지 추가발생 비용 보다 높고 콜론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마케팅 및 공급기간 단축 등이 강점으로 작용해야 성공적인 투자진출이 가능하다.

<제조업 분야 투자시의 인센티브>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기업에 친숙한 분위기>

파나마는 그 지리적 위치. 산업력 취약 등의 요인으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등의 면에서 항상 개방되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 친숙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미국의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률이 낮으며 환율 급변동의 위험도도 없다. 현재 파나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역시 미국 기업들로 Texaco,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Constellation Power, AES, Enron, Coastal Power, Bell South, Northville Industries, Chicago Bridge, Iron, Mobil, Continental Airlines 등이 있다.

(자료원 : EIU)

55.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정책 개황>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 및 주물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98. 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 (외무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진흥기구)와 상공부 산하 무역진흥기관 (IPCE : Instituto Panamen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 VICOMEX)를 신설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엘살바도르,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위해 주력하는 등 FTA를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투자 유치 관련 법규>

파나마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특별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파나마의 투자 유치 관련 법규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54호 ('98. 7. 22. 제정)을 공표하여 동법에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보장에 관한 법 54조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ㅇ 투자 관련 주요 법규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환 법 (법률 54호 ; '98. 7. 22. 제정)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 (법률 28호 ; '95. 6. 20. 제정)
수출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법 (법률 25호 ; '92. 11. 30. 제정)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 (법률 21호 ; '97. 7. 2. 제정)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 (법률 29호 ; 96. 2. 1. 제정)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 (법률 25호 ; '95. 8. 26. 제정)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투자우대제도>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각종 국내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투자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우대제도는 다음과 같다.

ㅇ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 면제

ㅇ 금융업
농목축업 및 관련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ㅇ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법25호 (1992년 제정)에 의해 원자재 및 공장시설재의 수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직간접세 면제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ㅇ 수출입업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 (예, 3%의 특혜관세, 관세환급, 임시 수입통관 등)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ㅇ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

<참고>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업체 경영인의 국적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 막노동자의 경우 외국인이 전체 인원의 1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숙련 기술자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 1998년에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외국인투자시 자본금 규모, 과실송금, 이윤 배당 등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투자한 후 10년 동안 투자시의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료원 : EIU)

56. 외국인투자제한

<투자제한>

파나마는 소매업, 방송 등 일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은 특별제한 및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적인 심사를 통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개발과 같은 공공성 및 수익성이 높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파나마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제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특히 제조업, 건설업, 관광, 보험, 은행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이 없으며 파나마산 부품 및 기자재 사용의무도 없으나 고용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의 현지인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미국은 파나마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흔히 지적하고 있으며 파나마-미국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자료원 : EIU)

57. 투자진출절차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설립이 용이하며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 금지 업종인지 사전 심사 대상 업종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 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차관실 생산투자진흥국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ㅇ 검토사항

- 재력 (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제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3백만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25호('94. 8. 26.) 및 행정부령 제35호('96. 5. 24.)에 의거 상공부의 국내상업총국(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운하반환지역 관리청(ARI)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생산투자진흥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원 : EIU)

58.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지사개설 가이드>

파나마는 중남미국가 중 가장 선진화한 기업법(corporate law)를 갖고 있어 회사 설립이 매우 용이하다. 즉 파나마에는 기업 설립시 주주의 국적 또는 거주지 제한이나 납입자본금의 제한이 없으므로 지사 개설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정관을 신규로 작성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지법인 성격의 지사가 개설되며 본사정관으로 상업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면 자본금 출자 없이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사가 설립된다. 이러한 형태로 현지지사를 설립하고 영업은 다른 중남미국에서 하는 한국업체도 많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투자업체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파나마에서는 은행업을 제외할 경우, 지사나 연락사무소도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현지법인 설립은 다음 절차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상공부상업등기총괄국(Direccion General de Registro Publico)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되며 약 1주일이 소요된다.

1) 현지법인

ㅇ 회사의 설립절차

- 법정대리인 선임(반드시 파나마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 정관(Pacto Social) 작성
- 주식발행
- 출자의 이행
- 정관의 공증
-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Certificado de Registro Publico) 발급

ㅇ 소요비용

- 법정대리인 선임비 : US$800 1,500
- 등기수수료 : US$ 50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 등기세 : US$150

2) 지사/연락사무소

ㅇ 회사설립절차

- 법정대리인 선임(반드시 파나마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함)
- 본사 정관 사본(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확인)을 첨부한 문서(Escritura) 작성
-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Certificado de Registro Publico) 발급

ㅇ 소요비용

- 법정대리인 선임비 : US$600 1,500
- 등기세 : US$150

<사전준비단계>

서울 본사에서 파나마에 지사를 설립키로 결정한 후, 지점 설립을 담당할 직원이 파나마에 입국하기 전에 현지 단기 체재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사전 조사와 본사정관 등 각종 증빙서류의 준비 등이 필요하다.

ㅇ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

- 2-3개월 장기체제용 아파트형 호텔 및 임시사무실
- 사무실 집기 리스트
- 주거 물건 리스트
- 고용할 사무원 등 직원의 채용조건 및 자격기준, 근로기준 등

ㅇ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여권, 국제운전면허, 현지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ㅇ 단기체류 visa로 입국

파나마에 입국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한 후에 이민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에는 장기체류 비자에는 Immigrant Visa, Temporary Visitor's Visa, Special Temporary Visitor's Visa와 Investor's Visa가 있는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Executive Visa라고 불리는 Special Temporary Visitor's Visa나 Investor's Visa 를 신청하게 된다. Special Temporary Visitor's Visa는 외국 본사에서 급여를 최소, 1,000불 이상 송금받는 다국적기업 직원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며 Investor's Visa는 금융, 상업 및 제조업에 투자한 업체 직원에 부여되는 비자이다.

ㅇ 사무실 및 주거 확보

파나마에서는 법인설립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에 사무실 확보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 파나마에 입국한 후 파나마시에 적정 규모의 사무실 및 주택 임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파나마 시내에 적정 규모의 주택 임차 전에는 아파트형 호텔에 투숙이 가능하다.

ㅇ 종업원 확보

현지 지사 개설 후 직원은 주로 신문광고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나마는 우편배달부가 없으므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사서함을 개설해야 한다. 종업원을 채용 후에는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이밖에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세도 원천징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여의 1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도 7.25%를 원천공제하여 기금운영을 담당하는 Caja de Seguro Social에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세 2% 중 고용주가 1.25%를 나머지 0.75%를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ㅇ 후속조치

지사 개설 후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상공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3가지 종류의 영업허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사의 경우, Commercial License Class A 를 발급받아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ㅇ Commercial License Class A : 무역, 도매, 은행, 보험 영업허가

ㅇ Commercial License Class B : 소매, 대리점 영업, 부동산, 레스토랑, 주유소 등 동 영업허가는 파나마 국적 소지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발급된다.

ㅇ An Industrial License : 광산 및 제조업, 건설업 영업허가

영업허가는 법정대리인(변호사)를 통해 상공부 내국상업총괄국(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증(Licencia Comercial) 또는 영업등록증(Registro Comercial)이 발급되는데 소요비용은 법정대리인 선임비 US$400 700, 허가증 발급료 US$50 또는 등록증 발급료 US$10 이 소요된다. 영업허가 또는 등록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임시허가증을 받아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연락사무소 역할만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다.

(자료원 : PAMCHAM)

59. 공장설립

<공장설립>

파나마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대지 및 공장 건물을 구입 또는 신축하는 방법과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 공장시설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과 기반시설을 갖춘 산업단지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나마에는 Panexport Export Processing Zone을 비롯한 여러 개의 수출가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제조업분야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최대 20년 간 대지 임차 후 공장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공장건물 확보와 함께 통신, 전기, 공업용수 배정, 하수 처리시설 등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이 좋다.

파나마의 제조업 투자의 경우, 전기 통신비 등 간접비용이 다소 높으며 낮은 생산성, 숙련 노동력 부족, 파나마 제조업 미발달로 인한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대규모 제조업 투자지로서는 부적합하며 중남미 물류, 해운의 중심지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물류의 집화 및 배분, 단순 조립 및 가공 후 인접국 재수출을 위한 투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원 : PAMCHAM)

60. 산업단지

임금수준, 에너지 비용 등이 높아 파나마 투자여건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니다. 파나마 국내시장에는 그러한 설명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수출가공지역(Zona Procesadora para la Exportacion)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에 투자해 인근 중남미,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외국업체들이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창설되면 우리나라 업계는 미국에서는 중남미 상품과, 중남미 시장에서는 미국 상품과 가격경쟁을 해야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 EPZ)의 근거법규는 1992.11.30일 제정된 법률 제25호이다. 이 법에 의거해 여러 개의 수출가공지역이 설립된 이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가공지역은 보세가공 및 수출을 하기 위해 파나마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외국의 기술과 원자재를 도입해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친 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파나마 국내시장으로 반입하는 데에 매우 적격이다. 앞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고 파나마도 미국과의 FTA를 맺는 등 제반 상황을 볼 때 수출가공지역의 중요성과 역할은 커지는 동시에 외국인업체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가공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은 대부분 단순제조, 조립, 가공,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입주하는 업체들에게는 생산용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포장재, 원료 반입에 대한 조세,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수출에 따른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며 자본 및 자산에 대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파나마 국내의 까다로운 노동법규를 수출가공지역 내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출가공지역은 다음의 6개이다. 다른 지역도 있으나 아직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다. 파나마는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미국과도 맺을 경우 수출가공지역에 대한 외국인 업체들의 투자 관심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및 인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파나마 수출가공지역에의 투자가 적극 권유된다. 물론 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중남미 전체의 현지 시장조사를 해야 하며 사업성, 이윤성 등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Zona Procesadora Ojo de Agua/PANEXPORT

사서함 : P.O. Box 8001, Panama 7, Panama
전화 : 507-273-7008
Fax: 507-273-7008
E-mail: aidaum@pty.com
연락 대상자 : Aida Michelle U. Maduro
크기 및 위치
- 크기 : 31헥타
- 위치 : 파나마 교외 San Miguelito 지역(국제공항에서 20분, 발보아항에서 30분)
  입주업체
- Apothecary Inc.
- Glaxo SmithKline Beecham
- I.M. Export American
- Expert Diesel
- Fenix Trading
- Switzverdan Corp
- Panama Line -
- Via Verde -
- International Paint

- Research Cos. Panama
- Kon Des International
- CUMEPASA
- Techno-Mill
- De Lidia Corp.
- Ebanisteria Cimbaue
- Santa Cruz Beverage Corp.
- IPIC Investment International
- Bluntez Corp.
- Global Parts and Machinery

2. Fort Davis Export Processing Zone(Corporacion Sino Panamena de Inversiones)

사서함 : P.O. Box 2414, Colon, Republic of Panama
전화 : 507-473-0198
Fax: 507:473-0590
E-mail: pharris@ari.gob.pa
Contact: Pablo Harris, General Manager
E-mail: Pharris@ari.gob.pa
  크기 및 위치
- 크기 21헥타
- 대서양 연변의 Colon시에 위치
- 콜론자유무역지역에 인접
- 원래는 대만 업체 전용공단으로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모든 나라 업체에 개방 입주업체
- Moto Mundo, S.A., motorcycle assembling
- Yin-Hsin Plastics, plastic bags manufacturing.
- Oversea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construction contractor.
- INCAP, S.A., glue manufacturing.
- Uniplas Industry,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chairs, mamparas, tables).
- Multipack Industry,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chairs, tables, mamparas).
- TTC Corp.
- Karma Panama

3. Proinexport Tocumen

사서함 : P.O. Box 4182, Panama 5, Panama
전화 : 507-292-5411
Fax: 507-292-5583
Contact: Gabriel Diez, General Manager
크기 및 위치
- 크기 51헥타
- 국제공항에 인접
- 태평양 연변인 발보아항에서 28㎞ 거리
입주업체
- Procesos de Reclicaje
- Vidrios Panamenos

4. Zona Procesadora de Exportacion Albrook, S.A.
사서함 : P.O. Box 1406 Balboa, Panama, Republic of Panama
전화 : 507-263-0021
Fax: 507-223-9712
E-mail: info@albrookpark.com
<http://www.albrookpark.com/>
Contact: Luis Arrieta, President
Diogenes Ardines - General Manager
크기 및 위치
- 크기 5헥타
- 태평양 발보아항과 인접
- 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
입주업체
- Specialty Metal & Services Co.
- Intertek Testing Services Panama, Inc.
- Super Joyas S.A.
- Panama Teledata
- A&P Manufacturing Plant.

5. Mapresca Zone (Corozal)

전화 : 507-317-6025
Fax: 507-317-6022
Contacts: Fotis Lymberopulos, President
Julio Rios, General Manager
E-mail: zpcorozal@cwpanama.net]
<http://www.zpcorozal.com/>
크기 및 위치
- 크기 12헥타
- 태평양 연변 발보아항과 인접
- 24,000 M3 용량의 냉장시설 보유
입주업체
- Procesadora de Alimentos Maty S.A.
- Ocean Supplies Corp.
- Exameron Industries Corporation
- Redemar S.A.
- Transporte Rodaro S.A.
- CBH Construcciones S.A.

6. Schlohbom Zone

주소 : Capira, Panama, Republic of Panama
전화 : 507-248-5677

Fax: 507-248-5677
E-mail: jsaavedra@hotmail.com
Contact: Carl Schlohbom, President
Mamie Arnold, Administrator
크기 및 위치
- 크기 2헥타
- 위치는 파나마시에서 서쪽으로 30~40분 떨어진 Capira 지역에 위치
- 주로 직물 생산
입주업체
- Panama Sam
- Godzilla Import & Export

파나마 수출가공지역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대외무역차관실(Vicomex)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Vicomex)
사서함 : P.O. Box 6-1897, Panama 6, Panama
전화 : 507-360-0600/ or 507-360-0700 Ext. 2307
Fax: 507-321-0278
E-mail: vicomex@mici.gob.pa
담당자 : Susana Tan, Director of Export Processing Zones Ofelia Diaz(담당자)

61.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콜론자유무역지대는 1948년에 설립된 중남미에서 가장 최대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며 세계적으로는 홍콩 다음으로 큰 제2위의 자유무역지대이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파나마의 대서양편에 위치한 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에 인접해 있으며 파나마시로부터의 거리는 80㎞ 이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는 무기류와 석유관련제품을 제외한 모든 일반상품의 수입, 저장, 변경, 재포장, 및 재수출에 있어 파나마 세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주로 아시아로부터 수입되어 중남미지역으로 재수출된다.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홍콩, 일본, 미국, 한국, 대만이며 이들 6개 국가가 콜론자유무역지대 거래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재수출지역은 콜롬비아가 제1위 수입국으로 재수출액의 20-30%를 차지하며 에콰도르, 파나마(국내시장), 베네주엘라 등도 중요한 고객이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인접국 경기부진으로 2001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3년 후반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53년 설립된 파나마 정부의 자치행정기구인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300ha이며 이중 45 ha가 산업단지이다. 콜론 자유

무역지대는 일반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허용되며 수입과 재수출시 모든 세금이 면세된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하는 업체에는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각종 조세납부유예, 파나마인 고용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시 배당세가 면제되며 국세나 지방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파나마운하와 중남미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중남미 소비재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물류유통센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 및 마약유통 기지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지적 소유권 위반상품 거래, 도난 자동차 재수출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규제나 영업허가 없이 정관 및 은행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회사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ㅇ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창고시설 일부를 임차하거나 토지를 임차하여 창고 시설을 건설. 토지임차는 최대 20년까지 가능.
- ㅇ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기존 창고시설을 구입
- ㅇ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중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대리점 계약은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됨.)
- ㅇ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창고시설을 임차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 ㅇ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재수출
- ㅇ 파나마 내수시장에 판매
- ㅇ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품을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하지 않고 직수출
- ㅇ 콜론자유무역지대내 다른 업체에게 판매

한편 바루자유지역(Zona Franca de Baru)이 파나마에 새로이 설치되어 콜론자유무역지역과는 별도로 앞으로 각광을 받는다. 바루는 파나마의 태평양연안에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으로 주변 지역은 농업, 어업에 전통적으로 종사해 왔으나 앞으로 다수의 물류, 중계무역, 가공산업 업체들이 바루자유지역 안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市에서 서북쪽 방면에 있는 바루지역은 코스타리카에 인접한 Chriqui의 Amuelle항(Puerto de Armuelle)에서 약 30분 거리이며 파나마市에서는 비행기로 15분, 자동차로 7~8시간 소요된다. 파나마정부는 건국 1백주년을 기념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바루자유지역을 육성하고 있다. 입주하는 업체는 취급제품에 대해 수출입 등 중계무역, 보세창고 운영, 복합운송, 전시, 포장, 양하역작업, 조립 등 콜론자유무역지역에서와 같이 모든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수출가공지역도 함께 운영해 외국인투자도 환영하고 있다.

바루자유지역은 2003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인근 중미를 비롯한 외국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루자유지역의 주요 기능은 상품 중계무역, 환적, 수출가공산업, 원유 비축 및 중계무역, 관광산업 육성 등이다.

ㅇ Zona Franca de Baru
전화 : (507) 770-9211
팩스 : (507) 770-7205
이메일 : gerencia@barufreezone.com
http://www.barufreezone.com/

(자료원 :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 바루자유지역)

62. 조세제도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정서비스세, Franchise Tax, 교육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 세>

ㅇ 법인소득세

파나마에서는 법인소득이 50만불 이하인 경우 30%, 5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34%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동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상각이 공제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건물 (연 2.5%), 기계설비 (연 5-15%), 사무기기 및 가구 (연 7-10%), 도구 및 소규모장비 (연 10-50%)

ㅇ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 일정액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준(US$)	기초세액(US$)	초과분에 대한 세율(%)
-3,000	0	0.0
3,000-3,250	0	2.0
3,250-4,000	130	4.0
4,000-6,000	160	6.5
6,000-10,000	290	11.0
10,000-15,000	730	16.5
15,000-20,000	1,555	19.0
20,000-30,000	2,505	22.0
30,000-40,000	4,705	27.0
40,000-50,000	7,405	30.0
50,000-200,000	10,405	33.0

200,000 이상		초과 소득액의 30%

ㅇ 판매세

파나마에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시에는 판매세가 부과된다.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판매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단위로 판매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5%의 판매세가 부과되며 주류 및 담배의 수입, 도소매시에는 10%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판매세는 특정품목은 면세되는데 판매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판매세에서 지불한 판매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판매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판매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가격이 고시되며 동 가격에 판매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특정 서비스세

1991년 조세개혁법으로 케이블 TV, 경호수송서비스, 안전금고 임차에 대해서는 5%의 특정 서비스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매월 12일까지 재정경제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영업세

콜론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 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불이며 최저액은 10불이다.

ㅇ 교육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공제하고 근로자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시 소득 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금액을 매월 사회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ㅇ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2만불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 30., 8. 31., 12. 31.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2만불 이하는 면세되며 2만불 이상 5만불까지는 1.75%, 5만불 이상 7만5천불 이하는 1.95%, 7만5천불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ㅇ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표준가격이란 재정경제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년도에 매년 5%의 가치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ㅇ 양도세

파마나의 양도세는 4%-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는 상속세는 없으며 유산상속시에는 양도세가 부과 된다.

ㅇ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32.5%에 상당하는 물품 소비세가 부과된다.

ㅇ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당 4불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가격에 따라 상이한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에는 문건 표시가격 100불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템프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ㅇ 은행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불, 역외금융은행은 1만5천불, 환전소는 600불이다.

ㅇ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보험료세 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재정경제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ㅇ 기타 조세

이밖에도 호텔투숙세, 유류소비세, 시장영업세, 카지노세, 항공권구입세 등의 조세제도가 있다.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불에서 500불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불 정도가 부과된다.

(자료원 : EIU)

63.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개황>

파나마는 개발도상국으로는 비교적 사회간접자본이 잘 발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시간 고속도로는 양호한 편이나 일반 도로사정은 좋은 편이 아니며 인구밀도가 낮은 Darien 등은 도로사정이 열악하다. 파나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개발하는 사회간접자본은 파나마 콜론 고속도로 및 항만, 공항 등이다. 이밖에 파나마정부는 차관 등의 재원을 도입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의 도로망 정비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운하 제2교량 건설이 2003년 완성되었으나 결함이 있어 2004년 말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보수하고 있다.

<전력>

파나마정부는 파나마 전력산업 확충을 위해 '98년 연간 매출이 6억불을 상회하는 국영전력회사를 4개 발전회사, 1개 송전회사, 3개 배전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하였다. 송전회사(ETESA)는 아직 민영화하지 않고 50%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파나마의 전력수요는 연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민영화된 이후 발전회사들의 시설투자가 활발하다. 수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전력을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로 수출하기도 한다. 70%가 수력발전이며 나머지 30%가 화력발전이다.

파나마의 평균전력 요금은 1KWH당 가정용 12센트, 산업용이 그보다 낮은 10-11 센트 수준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전 전력 분야가 국가독점이었을 때에는 서비스는 지금보다 나쁜 대신 요금은 저렴했는데 민영화한 후에는 서비스는 좋아졌으나 요금은 그만큼 올라갔다는 평가이다.

파나마는 코스타리카와 송전망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전력 사정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파나마 발전회사들이 전력을 수출하고 있어 수도인 파나마시티에서도 가끔씩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압도 자주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무실, 산업체, 고층빌딩 등 대형 건물에는 자체의 비상 발전기를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으며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방 소규모 도시의 건물이나 소규모 호텔들도 자체 발전기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소형발전기, 전압안정기, 변압기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파나마 전력의 사용처는 호텔, 사무실, 상가 등 상업용과 정부부문 사용이 58%, 일반 가정용이 29%이며 산업용 13%이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공공서비스감독청(Ente Regulador de los Servicios Publico)을 설치하여 민영화한 전력산업을 감독하고 있으며 공업용 및 상업용에는 낮은 가격, 일반 가정용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파나마의 배전회사는 Empresa de Distribucion Electrica Metro Oeste(EDEMET), ELEKTRA Noreste(ELEKTRA), Empresa de Distribucion Electrica Chiriqui(EDECHI) 등 3개사가 있는데 이 중 스페인의 Fenosa가 투자한 회사가 EDEMET, EDECHI 등 2개사로 Union Fenosa로 불리운다. EDEMET은 파나마시 및 파나마시 서쪽 지역을, EDECHI는 파나마의 북쪽 지역인 Chiriqui지역의 배전을 맡고 있다. ELECKTRA는 파나마시 및 파나마 동쪽 지역, 다리엔 지역 배전을 맡고 있다. 그밖에 Bocas Fruit라는 배전업체도 있으나 배전 분야에서의 비중은 매우 작다. 파나마의 전력 분야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모두 입수할 수 있다.

http://www.mef.gob.pa/politica_energetica/CEE 1970-2001.pdf

<상하수도>

수돗물은 국영회사 IDDAN (Instuto de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Nacionales)에서 관리하며 상수도 수질이 매우 좋아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충분한 수량이 공급되고 있다. 한편 파나마의 연간 강우량이 1,800㎜에 이르고 우기 동안에 순간적으로 폭우가 오는 기후 특성을 대비하여 하수도 시설도 잘 정비된 편이나 복개가 되어 있지는 않다.

<교통>

파마나의 도로망은 총 연장 11,285.2㎞ 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주요 도시가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나 일반 도로상태는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다. 주요 간선도로로는 파나마시로부터 코스타리카국경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91㎞의 Pan American Highway가 있다. 파나마시와 콜론자유무역지대는 왕복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1/2 구간에만 완공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멕시코 건설회사인 ICA가 BOT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뉴욕금융시장에서 기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완공된 1/2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더

이상 뉴욕금융시장에서의 기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파나마시와 콜론자유무역지대를 연결하는 나머지 1/2 구간의 국도는 도로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파나마의 도로포장율은 35%이다.

파나마는 파나마운하로 해운이 크게 발달해 있다. 파나마운하는 길이 80㎞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고 있다. 주요 항구로서는 파나마 운하의 대서양에 위치한 Cristobal 항구, Manzanillo 항구가 있으며 태평양에는 Balboa 항구가 있다. 파나마정부는 현재 항만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환영한다.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이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간을 연결하는 그리고 유럽, 아시아와 미주 전지역을 연결하는 5개의 주요 해저 광통신망의 교차 지점이다. 중남미의 금융중심지로서 달러화 사용국이라는 특성,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없다는 점,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비교적 치안이 좋고 영어 사용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 통신기간시설이 잘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1997년 국영기업 INTEL 민영화 이후 파나마 통신분야는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2003년에는 시내 및 장거리 전화통신분야 모두 자유경쟁으로 개방할 일정이어서 다수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5개의 해저 광케이블망이 모두 파나마 주변에 설치돼 파나마 통신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통신시장 확대의 결과로 IT 등 하드웨어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2001년 이후 파나마는 Network Access Points(NAPs), Telecommunication 및 인터넷, 데이터백업 및 정보보관(Collocation, Data Center) 등 국제통신 및 정보기술산업 중심지로서 이상적인 나라라는 점을 애써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특히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향으로 파나마는 미국과는 무관하고 테러의 대상지역도 아니면서 통신망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 및 중남미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주요 기업체 대부분은 파나마에 지사를 두고 있다. Global Crossing, Teleglobe 등 주요 업체는 파나마에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두고 통신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나마 주변에 해저광케이블망이 집중돼 있고 파나마의 지리적 위치가 북미와 남미의 연결지점이라는 점 때문이다. 최근 파산한 Worldcom이라는 업체도 역시 파나마를 중심으로 활발한 영업을 전개했던 바 있다.

통신장비 수요 대부분은 Cable & Wireless, Telecarrier, BellSouth, UFINET (Union Fenosa-Spain), CableOnda 등 통신사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들이다. 파나마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유망분야로 부상하는 분야가 이른 바 Call Center이다. 이것은 파나마로부터 전중남미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화통신을 연결하는 서비스인데 2001년 10월에 Call Center에 대한 조세 부과 폐지, 근로 조건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전화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공공서비스통제국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Ente Regulador de los Servicios Publicos

주소 : P.O.Box 4931, Panama 5, Panama
전화 : 507-265-3555
팩스 : 507-265-3511
http://www.ersp.gob.pa/

파나마 전화통신 산업은 국가독점 분야였고 1997년에 와서 영국 Cable & Wireless가 참가한 가운데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Cable & Wireless Panama는 파나마 전화통신 민영화가 이루어진 1997년 이후 약 6억달러의 투자를 하는 한편 전화요금은 1997년 당시보다 2배로 인상시켰다. Cable & Wireless Panama는 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등 기본적인 전화서비스에 관한 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2003.1.2을 기해 이러한 독점이 자유경쟁으로 바뀌었다.

(자료원 : EIU)

64. 노동여건

<고용>

파나마에는 특별한 고용절차가 없으며 주로 신문광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하여 서류 접수 후 면접을 통해서 고용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고용계약이 체결된다. 고용계약의 형태에는 무기한계약, 한정기한 계약, 특정 프로젝트 계약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한정기한 계약의 경우에는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기술훈련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최장 3년으로 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기술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계약 체결 당시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ㅇ 한정기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ㅇ 특정 프로젝트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ㅇ 한정기한계약 또는 특정 프로젝트 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력>

현재 파나마의 노동인구 중 80%가 민간부문, 20%가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2005. 6월 현재 실업률은 11.8% 이다. 최저임금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시간당 0.82-1.56불이다. 파나마는 높은 실업률로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나 부와 교육의 편중이 심하다. 노동자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주변국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다. 그러나 파나마 중상류층의 경우, 미국으로의 유학이 보편화되어 있어 학위를 소지한 영어, 스페인어 구사 가능 고급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임금>

파나마의 임금수준은 공장생산직 월 200-350불, 사무직 여직원 월 400-450불, 대졸 남자 사원 월 800-1,200불 수준이다. 다국적 기업 평균 월급은 1,639불, 국내기업은 1,232로 집계되고 있다. 근무능률은 중남미 전체로 보아 중간 정도이나 공통적인 특성으로 느긋한 성격이 일반적이다. 급여는 주로 매월 15일 및 말일에 지급한다.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업적 수당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최저 임금이 보장된다. 최저 임금은 월 263.24불인데 이는 2003년에 인상된 수치이며, 매 2년마다 최저 임금을 검토해야 함에 따라 2005년 하반기 중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이외의 비용으로 매 4개월마다 월급여의 1/3을 지불하는 보너스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외국인고용>

파나마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파나마 노동 및 사회복지부로부터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노동허가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재연장이 가능하다. 파나마정부는 파나마 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무직의 경우 10%, 기술 및 전문직의 경우 15% 이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중 파나마인과 결혼한 사람, 파나마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파나마인으로 간주된다. 단, 파나마에서 단순히 영업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65. 사회보장제도

<현지인 사회보장>

2005. 6. 1일부로 사회보장제도가 개정된 바 있으나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측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9월 말까지 발효가 보류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 6. 1 일 제 17 조 사회보장세(Seguro Social) 개정됨

- 파나마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파나마 국민 및 외국인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함
  . 국제기관, 외교관 및 영사관을 제외한 파나마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개인사업가에 해당됨
  . 임시직 포함함

- 개인사업가는 자진해서 소득에 비례하는 금액을 내며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6 일 이내에 고용주의 책임 아래 가입

- 연봉이 24,000 불 이하인 개인 사업가는 본인의 실제 연봉에 비례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상일 경우 24,000 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부담

- 연봉이 48,000 불 이하인 법인에 속한 근로자는 본인의 실제 연봉에 비례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상일 경우 48,000 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부담

- 사회보장세 부담 비율

  . 고용자(2005. 5. 31 까지 근로자 소득의 11.25% 부담)
  2005. 12. 31 까지 : 근로자 소득의 10.75%

2006. 1. 1~2009. 12. 31 : 근로자 소득의 12.75%
2010. 1. 1 부터 : 13.25%

. 근로자(2005. 5. 31 까지 본인 소득의 8.25% 부담)
2005. 12. 31 까지 : 본인 연봉의 7.25%
2006. 1. 1~2009. 12. 31 : 본인 연봉의 8%
2010. 1. 1 부터 : 본인 연봉의 9%

. 개인 사업가(2005. 5. 31 까지 사회보장세 부담 안함)
2007. 1. 1~2009. 12. 31 : 본인 소득의 11.5%
2010. 1. 1 부터 : 본인 소득의 13%

- 사회보장세 납부 기간

. 2006. 12. 31 까지 : 여자 만 57 세, 남자 만 62 세까지
. 2007. 1. 1~2009. 12. 31 : 여자 만 58 세, 남자 만 63 세
. 2010. 1. 1~2014. 12. 31 : 여자 만 59 세, 남자 만 64 세
. 2015. 1. 1 부터 : 여자 만 60 세, 남자 만 65 세 까지 납부해야 함

ㅇ파나마 사회보장제도 수혜 범위.

- 질병
a. 진단 및 치료, 수술, 약품류, 치과치료 그리고 입원
b. 질병으로 인한 18일 이상의 결근시

* 수혜자 범위
가입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일 경우 25세 미임), 어머니, 60세 이상의 아버지는 위 a.항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임신
. 임신 중, 출산, 산후 건강쇠약과 출산휴가비
. 신청 전 8개월 중 최소 4개월분 보험료를 지불했어야 가능

- 장애
. 질병 또는 육체나 정신적인 장애로 정상근로자 때 받았던 보수의 1/3 이하를 받게 되었을 경우

* 보상 조건
. Comision Prestacion에서 장애자 판정
. 불구자가 되기 전 최소 36개월분 보험료 지불
. 36개월분 보험료 중 18개월 분은 최근 3년 내에 납부

*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일어난 장애 (이 경우 직업위험 보상금 수령)
. 고의로 발생한 장애
. 정년퇴직 연령 후 일어난 장애

- 사망(사망한 가입자의 생존 가족에게 지급 가능)

* 보상조건
. 가입자가 사망전 최소 36개월분 보험료를 지불했어야 하고 36개월분 보험료 중 18개월분은 최근 3년 내에 납부된 것이어야 한다.
. 퇴직 연령이 지났을 경우 사망 전 퇴직 자격이 있었어야 한다.

- 장례보조금
. 가입자의 사망 직전 12개월 중 6개월분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장례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금액 $250.00

ㅇ직업위험 사회보장

직업위험을 커버하는 사회보장제도는 1970.3.31일자 행정명령(Decreto de Gabinete)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사회보장기구(Caja de Seguro Social)가 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사회보장>

파나마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에 의해 가입 여부가 정해지는데 한국인의 경우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재상사 및 교민의 경우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원 : 법령 제 17호)

66. 현지 생활여건

<한국식품 조달여건>

파나마에는 중국인 식품점(Minimax)이 있어 배추, 파, 무, 두부 등 필요로 하는 식품 구입은 가능하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야채시장, 생선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지 생선 생선, 야채 등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중국인 식품점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식품 종류가 많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쌀은 캘리포니아산 또는 일본산 수입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가끔 재고가 없어 쌀구입에 곤란을 겪을 때가 있다. 따라서 한국 식품은 현지에서 구하지 않고 한국에서 아는 사람 등을 통해 가져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생필품 조달>

각종 생필품 구입은 El Rey, Super99 등 대형 슈퍼마켓이 잘 발달되어 있어 어려움이 없다.

<레져여건>

외국인을 위한 레져시설이나 특별한 문화시설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파나마시티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주말을 즐기기에 그런대로 좋은 대자연이 펼쳐져 있다.

- 골프 : 파나마시내 중심에서 20분 내외 거리에 2개의 코스가 있으며 회원 가입 용이
- 테니스 및 수영 : 호텔 스포츠클럽, 해변, 아파트, 풀에서 테니스 및 수영 가능
- 낚시 및 잠수 : 콜론(파나마에서 90분거리) 지역에는 천혜의 바다낚시,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안이 있음.

- 여행 :
. Cerro Azul : 시내에서 1시간 거리로 해발 3,000ft고지. 기온이 15도로 시원
. Coronado : 시내에서 90KM 거리에 있는 해안지대로 수영,골프, 숙박시설 겸비
. El Valle : 시내에서 2시간 거리로 시원한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동식물원, 폭포, 승마 등을 즐길 수 있음.
. Contadora : 비행기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태평양상의 관광휴양지로 호텔시설이 있고 낚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음.
. Chiriqui :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7시간 걸리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로 등산과 이국적인 꽃과 커피농장을 볼 수 있음. 무더운 파나마에서 벗어나 한국의 가을철과 비슷한 기후와 고요함을 즐길 수 있음.

<병원.약국>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비로 보통 U$3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며 약은 약국에서 별도로 구입하여야 한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 수준이나 의료시설은 좋은 편이다.

<치안상태>

치안은 안정되어 있으나 일부 빈민층이 사는 지역이나 야간에는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미군의 침공 이후 총기 소지자가 많아 간혹 총기사고도 발생한다. 최근 경제가 불황을 계속하면서 강도, 도난 등의 사고가 빈발한다.

(자료원 : 현지 실사)

67.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주택임차>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나 일반 주택은 도난에 문제가 있어 아파트(벌레 및 방범을 고려하여 6층 이상 유리)입주가 편리하며 상사 직원들은 주로 Paitilla, O'Barrio, Marbella 지역에 살고 있다. 주택계약은 주재국 주택관련 법에 의한 계약서(소정양식)로 작성되며 일부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부속계약서를 첨부하게 된다.

ㅇ입주시 유의사항

최근 신축한 아파트도 많으나 1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화장실 배수관계, 출입문, 에어컨 설치 여부 등 각종 시설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집 안 구석구석 조그마한 탈이 자주 난다.

ㅇ계약 종료시 원상회복관계

본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외에 사용에 의한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으며 주택 이전을 원할 시 통상 1개월 전 서면통보를 하면 된다.

<은행구좌 개설>

파나마는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로 100개 이상의 외국은행 지점이 진출해 영업 중이며, 한국외환은행도 진출해 있어 은행구좌 개설은 쉽게 할 수 있다. 현재 외환은행은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현지 타국 은행지점(Citibank등)이나 파나마 시중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 부임한 주재원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한도액 만큼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사화물>

현지 TV 및 VCR은 한국과 같은 NTSC방식이며 전기는 110볼트를 사용한다. 주택 임차시 가구 포함 여부는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서울에서 쓰던 가구를 가져 오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자동차 딜러가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외국차가 진출해 구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판매가도 적절한 편이다. (EF소나타 소매가 : 14,000불 수준)

이삿짐 발송은 보통 Door-to-Port로서 파나마의 하역항에서 자택까지 운송료(US$100-200) 및 통관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중간에 이삿짐 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자료원 : 현지 실사)

68. 자녀 교육여건

<자녀 교육여건>

한국인 초중고생 자녀는 주로 ISP(International School of Panama)와 발보아아카데미(Balboa Academy)에 다니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스페인어와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인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이 이 학교에 다닌다. 발보아아카데미는 미군이 주둔하던 당시 미군 자녀들을 위해 운영하던 학교(Fort Clayton에 위치)였으나 이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SEK International Institution, Saint Mary School, The Oxford School, Oxford Internationl School등 bilingual school이 있다.

3세-5세의 어린 자녀들의 경우 상기 학교 유치원에 다니거나 Happy Kids 등 파나마 시내에 있는 유치원에 다닌다.

1. 초·중·고 교육

ㅇ 학제 개요
- 초등교육(Primaria) : 6 년
- 중등 교육(Secundaria) : 6 년
  * 의무 교육 연한 : 9 년

ㅇ 교육비 : Balboa Academy의 경우에는 입학 기부금 4,000불에 분기당 1,500불(중학교 이상, 국민학교는 분기당 1,240불)이고 ISP의 경우 입학기부금 6,000불에 분기당 1,500불 내외임.

ㅇ 학교 선정 시 유의 사항
- 두 학교 공히 시설 및 교육의 질이 높으며, 차이점은 ISP에서는 서반아어와 파나마 역사 등 사회 과목 이수가 필수인 것임. 그러나, 졸업 후 미국 또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면제되므로 한국인에게는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음. 두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수도 비슷함.

ㅇ 입학 절차
- 소정의 서류 제출, 인터뷰, 간단한 영어, 수학 수준을 확인하는 시험 실시

ㅇ 필요 서류
- 전학교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여권사본 및 예방접종 증명서

ㅇ 유치원 : 상기 학교 내 유치원 및 Pre School이 있음

ㅇ 한글학교 : 대만학교 건물을 임차, 운영하는 토요 한글학교가 있음
- 학생수 65여 명, 수업료 월 35미불

2. 대학교

ㅇ 학제
- 파나마 국립대학교(학생 45,000명) 및 국립공과대학(학생 11,000명)의 두 개의 국립대학교와 카톨릭계 사립대학교인 Universidad Santa Maria La Antigua(학생 5,000명)가 있음. 학제는 4년제이며,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6년제임.

ㅇ 교육비
-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전공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한학기 등록금이 45미불이고 사립 대학은 과목당 33미불 정도.

ㅇ 입학 요건
- 고교 졸업자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불합격시 대학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과하여야 함. 이 과정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과 필수 교양과목을 이수하든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외국 유학생을 위한 특별 강좌(파나마 역사,

미국-파나마 관계 등 3과목)를 이수하여야만 정식으로 등록이 가능함.
(자료원 : 현지 실사)

69. 진출기업/파나마 진출 한국 기업체 연락처

기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금호 타이어 Kumho Tires	264-1576 223-9700 269-6654	ynb@cableonda.net Kumhopty@cableonda.net yangkijin@cableonda.net
Daewoo International	269-4533 269-4186 269-4811	yckim@sinfo.net pedrosong@cableonda.net
Daewoo Electronics	360-2140 360-2141 360-2142 430-2533 430-2534	thlim@dwe.co.kr parkbumsuk@web.dwe.co.kr rcd44pp@web.dwe.co.kr
삼성물산 Samsung	210-1588 210-1598	hyojin0116.kim@samsung.com
외환은행 K.E.B.	269-9966 264-4224	panaseo@naver.com gerona05@yahoo.co.kr jaeslee@keb.co.kr danieltv@keb.co.kr koexpa@cwp.net.pa
Hankook Tire	263-3008 263-3027 263-3006	shpark@hanta.co.kr hanta@cableonda.net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Free Zone	210-1122 210-1170 430-7200 430-7210	yj_park@samsung.com hs.jin@samsung.com paul.yhchoi@samsung.com acab.kim@samsung.com hc_lim@samsung.com younghwang@samsung.com marcelo.an@samsung.com hyunsil.moon@samsung.com ahn.sae@samsung.com kunmo.jung@samsung.com hong0517@cwpanama.net
삼성SDS	210-1122	minskang@samsung.com
LG전자 LG Electronics	210-6010 210-6015 210-6080 210-6050	davidpark@lge.com 20344kch@lge.com buenoskwak@lge.com wykim1020@lge.com

	210-6000	minseongug@lge.com
	210-6061	yimdongun@lge,com
	210-6085	tlee@lge.com
	210-6095	janghoon@lge.com
	210-6090	essna@lge.com
	210-6051	calvinpark@lge.com
	210-6019	miguelheo@lge.com
	210-6000	sshong17@lge.com
	210-6051	dsmin@lge.com
	210-6016	juanbaek@lge.com
	210-6029	choisim@lge.com
	264-6419	
Free Zone	430-5070	jsps@lge.com
	430-3810	
LG AD.	210-6040	shparkd@lge.com
효성 Hyosung	214-8968 214-8969 214-8971	kskim1@hyosung.com

(자료원 : 현지 실사)

70. 주요경제지표/파나마의 모든 지표 순위

<2003 파나마 각종 지표 순위>

지표	단위	지표값	순위	세계비중(%)
명목 GDP	억불	129	84/183	0.04
PPP 기준 GDP	억불	193	99/166	0.04
명목 GNI	억불	127	84/208	0.04
1인당 GNI	불	4,250	77/208	-
PPP 기준 1인당 GNI	불	6,310	99/208	-
교역 규모	백만불	3,885	111/206	0.03
수출	백만불	905	127/206	0.01
수입	백만불	2,980	97/206	0.04
1인당 수출액	불	303	116/192	-
무역흑자	백만불	-2,075	168/206	-
서비스수출	백만불	2,389	52/78	0.14
서비스수입	백만불	1,219	61/78	0.07
무역의존도	%	30.00	162/172	-
수출의존도	%	7.00	163/172	-
수입의존도	%	23.00	135/172	-
반덤핑 조사 (누계, 1995-2003)	회	2	33/37	0.08
미국의 주요국별 수출	백만불	1,848	42/210	0.26
미국의 주요국별 수입	백만불	301	92/196	0.02

일본의 주요국별 수출	백만불	5,417	19/207	1.15
일본의 주요국별 수입	백만불	105	74/182	0.03
중국의 주요국별 수출	백만불	1,480	37/200	0.34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	백만불	29	103/156	0.01
맥주 생산	1,000 M/T	135	62/152	0.10
쌀 생산량	1,000 톤	250	47/112	0.04
경작면적당 쌀 생산량	Kg/ha	29,412	61/112	-
소사육두수	1,000두	1,550,000	82/203	0.11
돼지사육두수	1,000두	305,000	92/185	0.03
닭사육두수	백만두	14,000	96/202	0.08
과학기술부문논문수	편	145	91/167	0.01
전자정부지수	-	1.38	70/133	-
PC 보급대수	100명당	4	88/163	-
인터넷 호스트수	1,000명당	23	69/173	-
인터넷 이용자수	1,000명당	414	99/182	-
이동전화 가입자수	100명당	27	68/181	-
네트워크 준비지수	100점 만점	3	58/102	-

(자료원 : KOTIS)

* 2005. 6월 현재 가장 최신 자료임

71. 주요경제지표/외채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외채총액(백만불)	5,568.10	5,604.09	6,262.81	6,349.05	6,502.48
명목GDP(백만불)	11,456.30	11,620.50	11,807.50	12,215.60	12,887.50
외채/GDP(%)	48.60	48.23	53.04	51.97	50.46
외채/수출(%)	64.47	59.57	66.76	74.66	77.62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72. 대외거래지표/대외거래지표 및 국제수지

경상수지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경상수지	**-173.5**	**-92.3**	**-408.0**
수출	**7,996.9**	**7,566.9**	**7,607.9**
상품	5,992.4	5,315.1	5,051.3
서비스	2,004.5	2,251.8	2,556.6
수입	**-7,791.1**	**-7,624.8**	**-7,437.3**
상품	-6,688.6	-6,352.2	-6,143.3
서비스	-1,105.5	-1,272.6	-1,294.0
순소득	**-602.4**	**-284.0**	**-819.0**
이전수지	**226.1**	**249.6**	**241.3**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경상수지	**-173.5**	**-92.3**	**-408.0**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636.4**	**-136.3**	**178.4**
은행	186.6	-411.9	-447.8
정부	35.1	-6.7	229.7
기타	414.7	282.3	396.5
착오 및 누락	**-478.5**	**228.6**	**229.6**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73. 대외거래지표/대외거래 동향

<수출>

2003년 수출은 2002년 대비 8.6% 증가한 36억불에 달함으로써 2002년 수출이 2001년 대비 3.4%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큰 대조를 보였다. 수출이 파나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이다. 이 중 상품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인 8억불이다. 수출별로는 수산물, 새우, 바다가재, 어분, 참치 등 수산물, 과일, 육류, 커피 등도 주요 수출품들이다. 2004년에도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가장 중요한 수입품인 원유를 제외한 일반 산업제품 수입은 2002년 대비 6% 증가했다.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2	2003	증감율
수입액 합계	2,896.5	3,069.2	6.0
원유	345.7	355.6	2.9
기타 수입	2,550.8	2,713.6	6.4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파나마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증감률	2003	증감률
수출액(FOB 백만)	809.5	755.7	-6.6	808	6.9
석유제품	57.2	46.7	-18.4	4.9	-89.5
바나나	122.2	109.4	-10.4	105.2	-3.9
새우	70.1	58	-17.3	57.6	-0.7
참치	148.1	169.5	14.5	261.9	54.5
기타	411.9	372.1	-9.7	378.4	1.7
수입액(CIF 백만)	2,963.60	3,069.90	3.6	3,069.10	0
원유	184.4	290.2	57.3	346.7	19.5
기타	2,779.20	2,779.70	0	2,722.40	-2.1

상품교역 수지	-2,154.10	-2,314.20	7.4	-2,261.10	-2.3

(자료원 : EIU)

<콜론자유무역지역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1	2002	증감률	2003	증감률
수입	4,759.50	4,451.30	-6.5	3,990.50	-10.4
재수출	5,410.10	4,820.60	-10.9	4,478.20	-7.1
수지	650.6	369.3	-43.2	487.7	32.1

(자료원 : EIU)

74. 대외거래지표/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천불)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2/2001 증감률(%)	2003/2002 증감률(%)
상품 수출	809,537.0	755,748.0	807,975.0	-6.6	6.9
석유제품	57,176.0	46,678.0	4,894.0	-18.4	-89.5
바나나	122,158.0	109,411.0	105,187.0	-10.4	-3.9
새우	70,083.0	57,992.0	57,566.0	-17.3	-0.7
새우유충	9,291.0	8,032.0	4,488.0	-13.6	-44.1
어류	148,079.0	169,520.0	261,938.0	14.5	54.5
커피	11,112.0	9,227.0	12,138.0	-17.0	31.5
의류	14,281.0	13,315.0	11,163.0	-6.8	-16.2
쇠고기	11,447.0	14,261.0	9,549.0	24.6	-33.0
기타	365,910.0	327,312.0	341,052.0	-10.5	4.2
서비스 수출					
파나마운하통행세	573,584.0	606,080.0	690,299.0	5.7	13.9
여행객입국(천명)	1,214.0	1,301.0	1,430.0	7.2	9.9
관광 수입	484,155.0	526,084.0	584,686.0	8.7	11.1
선상 소비	134,341.0	101,994.0	0.0	-24.1	0.0
수입액	2,963,584.0	3,069,912.0	3,069,147.0	3.6	0.0
자본재	514,702.0	489,411.0	0.0	-4.9	0.0
원유	425,984.0	221,682.0	0.0	-48.0	0.0
석유제품	184,417.0	290,152.0	346,711.0	57.3	19.5
식품	317,949.0	353,233.0	0.0	11.1	0.0
기타 소비재. 원자재	1,520,535.0	1,715,434.0	0.0	12.8	0.0
콜론자유무역지대					
수입물량(천MT)	788.6	755.4	763.9	-4.2	1.1
재수출물량(천MT)	732.5	704.9	683.1	-3.8	-3.1
수입액(백만불)	4,759.5	4,451.3	3,990.5	-6.5	-10.4
재수출액(백만불)	5,410.1	4,820.6	4,478.2	-10.9	-7.1
수지(백만불)	650.6	369.3	487.7	-43.2	32.1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 별도의 단위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천불임

75. 대외거래지표/콜론자유무역지역 중계무역 현황

<콜론의 대상국별 중계무역 동향>

(단위 : 천불)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중계무역 규모(I+R)	8,977,308	9,764,225	9,992,906	9,062,331	8,587,216
수입(I)	4,039,065	4,464,635	4,606,958	4,218,473	4,004,049
일본	295,453	317,148	251,602	203,149	191,611
미국	427,938	432,352	444,339	393,984	380,505
대만	364,694	506,470	595,866	536,135	511,491
홍콩	1,139,432	1,315,705	1,311,909	1,113,124	946,201
싱가폴	36,487	26,514	22,562	34,928	24,793
태국	58,857	90,950	81,446	58,331	40,900
한국	212,070	171,266	169,038	167,840	117,282
중국	161,366	197,293	283,956	411,634	540,176
영국	52,948	35,912	41,704	44,646	55,286
스위스	103,910	87,028	73,437	85,988	79,903
독일	31,588	35,508	41,021	39,718	42,870
프랑스	73,166	87,348	92,493	94,350	93,966
이태리	273,492	218,968	165,191	126,044	98,728
콜롬비아	41,654	37,715	37,319	37,317	45,347
기타	766,010	904,458	995,075	871,285	834,990
재수출(R)	4,938,243	5,299,590	5,385,948	4,843,858	4,583,167
브라질	141,701	164,722	146,783	79,904	93,861
파나마	419,076	374,041	341,271	395,444	390,604
베네수엘라	554,987	802,729	1,035,108	576,923	379,868
아루바	39,334	43,086	87,878	61,201	33,287
에콰도르	127,609	198,368	372,361	459,786	42,749
콜롬비아	1,008,528	867,753	777,097	741,666	122,789
산안드레스제도	26,857	17,687	14,654	15,712	1,992
멕시코	146,856	274,075	227,788	143,372	4,782
미국	271,959	268,941	201,715	209,821	13,507
볼리비아	22,462	17,974	16,269	11,041	590,162
칠레	129,378	112,801	92,688	77,373	15,051
과테말라	215,912	241,893	262,443	274,821	43,201
코스타리카	221,943	233,528	225,967	236,302	43,928
페루	62,045	71,735	81,792	79,140	11,295
엘살바도르	144,775	165,338	144,796	151,307	26,215
아르헨티나	52,230	43,814	30,520	5,184	1,694
파라과이	80,920	84,702	40,919	26,590	1,811
온두라스	136,865	137,757	140,217	143,768	34,122
니카라과	147,643	137,611	123,568	124,441	34,074
쿠바	235,723	235,140	200,942	158,713	39,593
기타	751,440	805,895	821,172	871,349	2,658,582

(자료원 : 콜론자유무역지대 통계청)

<콜론의 품목별 중계무역 현황>

(단위 : 천불)

구분	2001		2002		2003	
	수입	재수출	수입	재수출	수입	재수출
합계	4,606,958	5,385,948	4,218,473	4,843,858	4,004,049	4,583,167
음향송수신기,TV, 통신장비	501,652	572,339	459,063	552,642	348,367	397,163
의류(내의 제외)	786,123	844,906	719,882	697,899	618,168	687,916
시계류	120,083	136,433	109,957	99,180	76,191	87,666
향수, 화장품, 치약	154,981	205,962	141,912	170,110	118,739	176,996
녹음기, 녹화기, 음향기기	136,473	157,003	125,546	140,232	162,886	172,441
신발, 운동화	337,771	408,117	309,288	337,075	315,921	305,132
합성섬유직물	165,470	180,063	146,571	150,361	119,343	123,535
의약품	96,370	166,860	88,243	137,821	443,424	572,224
내의	159,051	142,264	145,639	117,500	148,801	130,417
귀금속, 보석	153,633	161,340	121,515	114,774	94,405	92,275
음향기기, 영상기기	27,437	24,398	44,178	55,619	87,699	77,485
주류, 맥주	65,545	74,405	100,659	88,126	83,075	85,042
담배	30,339	31,458	23,647	27,576	26,246	26,685
침장제품	89,817	89,758	59,232	63,040	45,399	44,056
기타	1,782,213	2,190,642	1,623,141	2,091,903	1,315,385	1,604,134

(자료원 : 콜론중계무역지대 통계청)

76.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 파나마 10대 수출대상국 >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3	점유율*	증가율**
	전체	798.75	887.40	299.53	100.00	38.26
1	미국	402.60	431.48	108.47	36.21	17.34
2	스페인	45.59	45.02	56.41	18.83	168.16
3	네덜랜드	15.38	38.77	27.68	9.24	37.45
4	스웨덴	48.26	57.83	12.62	4.21	-21.19
5	영국	5.95	6.55	11.86	3.96	264.86
6	코스타리카	33.47	36.75	9.05	3.02	-4.71
7	벨기에	24.34	29.54	8.35	2.79	-9.21
8	멕시코	12.06	13.87	7.08	2.37	128.53
9	대만	6.62	11.03	5.05	1.69	104.80

10	이탈리아	9.52	12.33	4.40	1.47	53.08

< 파나마 10대 수입대상국 >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3	점유율*	증가율**
	전체	3,124.88	3,582.01	928.86	100.00	18.92
1	미국	1,066.13	1,031.04	263.95	28.42	8.31
2	콜론자유무역지대	390.60	445.55	104.92	11.30	9.13
3	쿠라사오 아일랜드	89.61	254.84	95.00	10.23	59.51
4	일본	193.23	189.19	48.90	5.27	10.93
5	코스타리카	151.13	177.42	41.25	4.44	-3.23
6	멕시코	119.15	142.85	35.12	3.78	18.33
7	브라질	95.16	116.76	32.45	3.49	35.79
8	콜롬비아	123.19	131.75	27.92	3.01	11.94
9	트리니다드 토바고	19.55	21.31	21.21	2.28	385.81
10	한국	63.80	101.15	21.06	2.27	1.89

* 2005년 1~3월 전체 수입규모에 대한 국별/품목별 점유율

** 2005년 1~3월 실적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원 : 파나마 감사원, 2005. 6월 현재)

77.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콜론자유무역지역 주요 품목별 중계무역 현황

(단위 : 천불)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9
총합계(A+B)	**10,184,900**	**11,664,010**	**11,197,100**	**8,977,308**	**9,764,225**	**9,992,906**	**9,062,331**	**6,134,591**
수입(A)	**4,661,300**	**5,389,982**	**5,211,900**	**4,039,065**	**4,464,635**	**4,606,958**	**4,218,473**	**2,915,833**
일본	398,883	387,115	539,826	295,453	317,148	251,602	203,149	138,809
미국	614,000	715,263	601,940	427,938	432,352	444,339	393,984	282,117
대만	339,644	414,143	376,318	364,694	506,470	595,866	536,135	351,710
홍콩	1,181,859	1,463,558	1,339,183	1,139,432	1,315,705	1,311,909	1,113,124	692,842
싱가폴	102,344	140,151	97,760	36,487	26,514	22,562	34,928	19,432
태국	85,512	91,899	87,462	58,857	90,950	81,446	58,331	28,318
한국	306,612	275,513	269,920	212,070	171,266	169,038	167,840	84,350
중국	105,618	147,865	203,269	161,366	197,293	283,956	411,634	398,940
영국	75,728	78,630	68,633	52,948	35,912	41,704	44,646	41,937
스위스	79,478	96,844	121,445	103,910	87,028	73,437	85,988	61,169
독일	40,311	46,004	36,688	31,588	35,508	41,021	39,718	32,957
프랑스	93,814	89,806	87,651	73,166	87,348	92,493	94,350	65,405
이태리	293,389	361,346	409,156	273,492	218,968	165,191	126,044	69,636
콜롬비아	40,846	46,498	39,902	41,654	37,715	37,319	37,317	30,808
기타	903,262	1,035,347	932,747	766,010	904,458	995,075	871,285	617,403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9
재수출(B)	**5,523,600**	**6,274,028**	**5,985,200**	**4,938,243**	**5,299,590**	**5,385,948**	**4,843,858**	**3,218,758**
브라질	441,239	397,060	312,389	141,701	164,722	146,783	79,904	70,667
파나마 내수시장	371,147	399,438	407,194	419,076	374,041	341,271	395,444	268,456
베네수엘라	271,314	609,863	699,602	554,987	802,729	1,035,108	576,923	209,888
Aruba제도	35,967	43,294	43,152	39,334	43,086	87,878	61,201	25,287
에콰도르	421,604	463,335	271,364	127,609	198,368	372,361	459,786	237,719
콜롬비아	1,485,217	1,673,589	1,342,481	1,008,528	867,753	777,097	741,666	468,794
SanAndres제도	31,195	34,435	42,077	26,857	17,687	14,654	15,712	10,996
멕시코	60,568	104,965	116,919	146,856	274,075	227,788	143,372	80,060
미국	280,559	288,633	325,702	271,959	268,941	201,715	209,821	144,644
볼리비아	45,530	38,769	35,845	22,462	17,974	16,269	11,041	8,468
칠레	192,924	189,754	166,746	129,378	112,801	92,688	77,373	108,714
과테말라	129,026	199,104	244,796	215,912	241,893	262,443	274,821	228,415
코스타리카	145,393	182,188	221,928	221,943	233,528	225,967	236,302	168,947
페루	103,606	102,113	124,129	62,045	71,735	81,792	79,140	61,787
엘살바도르	144,812	118,242	138,679	144,775	165,338	144,796	151,307	118,998
아르헨티나	83,250	76,717	86,196	52,230	43,814	30,520	5,184	10,790
파라과이	219,025	216,352	185,889	80,920	84,702	40,919	26,590	16,848
온두라스	76,420	97,977	129,104	136,865	137,757	140,217	143,768	115,171
니카라과	114,677	140,822	140,621	147,643	137,611	123,568	124,441	88,459
쿠바	214,566	203,624	258,688	235,723	235,140	200,942	158,713	155,322
기타	655,561	693,754	691,699	751,440	805,895	821,172	871,349	620,328

(정보원 : 파나마감사원) * 업데이팅 : 2004.12.27

78.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 파나마 10대 수출품>

(단위 : 백만불)

HS	품목명	2003	2004	2005	점유율*	증가율**
	전체	798.75	887.40	299.53	100.00	38.26
08	과실과 견과류	157.64	191.01	124.80	41.67	61.51
03	어류, 갑각류	379.77	415.71	104.06	34.74	25.86
07	채소	12.17	9.91	10.03	3.35	258.88
72	철강	5.02	21.16	5.85	1.95	232.57
02	육류	13.39	18.71	5.38	1.80	39.11
17	당류	12.95	10.62	4.77	1.59	1,011.84
09	커피, 차	12.83	11.17	4.70	1.57	53.67
04	낙농품	8.65	11.25	3.94	1.32	72.01

48	지와 판지	11.79	15.69	3.52	1.18	34.66
30	의료용품	14.68	13.17	3.49	1.16	-2.24

< 파나마 10대 수입품>

(단위 : 백만불)

HS	품목명	2003	2004	2005	점유율*	증가율**
	전체	3,124.88	3,582.01	928.86	100.00	18.92
27	광물성연료	366.28	522.56	161.37	17.37	41.40
87	자동차 및 부품	342.86	376.71	98.19	10.57	13.61
85	전기기기 및 부품	273.74	304.07	93.33	10.05	42.58
84	기계류	310.49	348.70	85.52	9.21	5.45
30	의료용품	138.70	154.42	36.05	3.88	-3.15
39	플라스틱 및 부품	106.50	122.26	30.47	3.28	5.89
48	지와 판지	101.68	111.39	29.99	3.23	8.27
72	철강	101.86	144.60	28.68	3.09	21.18
21	각종 조제식료품	65.31	67.25	16.77	1.81	-2.50
10	곡물	64.12	63.11	16.09	1.73	328.26

* 2005년 1~3월 전체 수입규모에 대한 국별/품목별 점유율

** 2005년 1~3월 실적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원 : 파나마 감사원, 2005. 6월 현재)

79.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교역 통계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증가율
1990	547	18.6
1991	624	14.1
1992	1,842	195.1
1993	1,081	-41.3
1994	1,968	82.0
1995	2,246	14.1
1996	3,195	42.2
1997	1,918	-40.0
1998	2,021	5.4
1999	1,813	-10.3
2000	1,247	-31.2
2001	1,719	37.9
2002	1,184	-31.1
2003	1,252	5.7
2004	1,264	0.9
2005. 1~5월	594	41.8

<연도별 수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증가율
1990	98	109.8
1991	16	-83.5
1992	370	2,183.3
1993	279	-24.6
1994	600	115.1
1995	406	-32.3
1996	548	34.8
1997	440	-19.7
1998	27	-93.9
1999	85	220.0
2000	28	-66.6
2001	142	398.4
2002	143	1.0
2003	179	25.0
2004	294	64.1
2005. 1~5월	47	-69.4

(자료원 : KOTIS, 2005. 6. 29 현재)

8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품목별 교역 통계

<한국의 對파나마 품목별 수출실적(MTI 3단위 기준)>

(단위 : 천불, %)

코드	품목명	2004		2005. 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1,263,797	0.9	593,620	41.8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990,435	-8.5	447,409	41.6
133	석유제품	46,914	181,054.7	51,173	192,947.8
821	영상기기	27,404	64.3	19,952	87.4
741	자동차	37,232	84.1	15,172	68.6
824	가정용회전기기	22,177	11.9	11,222	2.0
612	선재봉강및철근	0	-	7,181	-
320	고무제품	12,459	42.0	5,173	-3.1
823	냉장고	8,167	-29.1	4,929	74.2
613	철강판	20,350	57.0	3,590	-63.1
812	무선통신기기	6,231	46.2	3,353	-31.5

<한국의 對파나마 품목별 수입실적(MTI 3단위 기준)>

(단위 : 천불, %)

코드	품목명	2004		2005. 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293,866	64.1	46,523	-69.4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86,065	70.1	43,742	-70.4
622	동제품	1,318	506.3	1,782	590.2
133	석유제품	2,458	62.8	586	-15.3
621	알루미늄	103	106.5	145	513.2
618	합금철선철및고철	38	-99.1	116	2,281.8
690	기타철강금속제품	7	-	44	-
421	천연섬유사	0	-	36	-
310	플라스틱제품	45	97.7	32	112.2
741	자동차	0	-	11	-
919	기타인쇄물	23	103,372.7	8	-

(자료원 : KOTIS, 2005. 6월 현재)

81. 대외 투자진출 통계

파나마는 중남미 소규모 개발도상국으로 산업, 특히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의 대외 투자진출은 별로 없다. 최근 제조업계의 상황 악화로 인해 인근 중미로 생산시설을 옮겨 수출산업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은 가끔씩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微微한 편이다. 특히 의류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있다. 앞으로 대만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는 외환 거래, 해외송금 등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對外 투자 통계가 없다.

82. 외국인 투자유치통계

파나마는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절대보장하고 있어 국별,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금융업 및 파나마 운하지역, 콜론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통계만을 가끔 집계하여 비공식 발표하고 있다. 對파나마 외국인투자는 1990년대 10년 동안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과 1998년에 활발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다. 파나마정부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 외국인투자 누적액은 50억3천7백만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63억5천3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단위 : 백만불)

형태별 투자	1995	1996	1997	1998	1999
총 계	266.7	410.4	1,255.8	1,206.1	22.3
파나마운하지역	31.1	17.7	52.3	88.9	-358.3
일반 상업은행	87.5	158.2	156.8	40.0	-50.3
역외금융은행	-13.5	11.7	28.5	-51.2	28.1
콜론자유무역지대	67.0	77.9	103.8	98.5	87.8
기 타	94.6	144.9	914.4	1,029.9	315.0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omision Economica Latina y el Caribe; CEPAL)에 의하면 2002년 對파나마 외국인투자는 3억5 천만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對파나마 외국인직접투자는 1998년 12억9천6백만불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對파나마 외국인투자가 이같이 저조한 것은 경제정책 일관성 부족, 부패, 사법적인 면에서의 안정성 결여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 기업이 파나마로의 발걸음을 다른 나라로 돌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법규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중미국가보다 높은 점, 전력 등의 비용이 높은 점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불리한 점이 되고 있다. 이제라도 파나마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내 민간투자 진작을 위해 뭔가 구체적인 정책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나라들이 경쟁력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외국인투자에 있어 현재의 파나마 정부는 이렇다 할 만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강하다.

2004년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앞으로 국가개발기금 지출도 승인되어 있어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실시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對파나마 외국인투자가 다소나마 활기를 띠지 않을까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외국인투자 분야는 은행, 콜론자유무역지역이다. 세계무역의 전반적인 증가에 따라 중계무역지 콜론자유무역지역으로의 투자가 매우 활발한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콜론 내 업체 설립이 쉽고 조세 등에서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

2000년 한해만 해도 콜론자유무역지역에는 147건의 신규투자가 있었으며 이중 신규 업체 설립이 43건이고 나머지가 주식 확대 등에 해당한다. 콜론으로의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98년이다. 콜론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역시 미국 및 일본으로 각각 투자 누적액이 5천9백만달러, 2천8백만달러에 이른다. 국별 신규투자 점유율은 1990년 일본 42.1%, 미국 26.2%, 스위스 3.8%, 베네수엘라 0.6%, 콜롬비아 0.5% 였으나 2000년에는 일본 36.6%, 미국 31.5%, 한국 10.4%, 스위스 3.5%, 아르헨티나 2%, 베네수엘라 1.4%, 콜롬비아 0.3% 등으로 바뀌었다. 對콜론 외국인투자 주요 분야는 중계무역 분야인 도소매 유통업이다.

對파나마 외국인투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것은 1992년이고 1997~2000년에는 국영기업 민영화, 정부 컨세션사업 등의 붐을 타고 항만, 전화통신, 전력, 도로건설 분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업체는 미국, 영국, 멕시코 업체들이다. 민영화 등 대형

프로젝트가 모두 끝나고 1998년 이후에는 더 이상 투자유인 부족으로 외국인투자가 많이 둔화되었으며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83.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투자교류통계

한국의 對파나마 투자는 2005년 5월 말 현재 다음과 같다.

<연도별 대파나마 투자 추이>

(단위 : 건, 천불)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0~1990	55	64,206	45	51,932
1991	5	21,480	7	11,030
1992	3	9,400	6	16,240
1993	1	5,857	0	6,057
1994	4	13,191	4	8,541
1995	3	18,795	1	17,426
1996	3	6,955	1	8,850
1997	5	20,628	1	3,900
1998	3	22,245	1	18,125
1999	0	19,650	0	19,199
2000	0	0	0	0
2001	0	17,000	0	17,000
2002	1	4,501	0	4,500
2003	0	21,000	0	21,000
2004	0	5,000	0	5,000
2005. 1~5	0	20,000	0	20,000
누계	83	269,908	66	228,8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 대파나마 투자진출현황(누계)>

(단위 : 건, 천불)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17	138,840	16	126,100
농림어업	28	53,383	24	49,358
도소매업	10	61,780	8	44,150
운수창고업	20	15,389	10	8,715
서비스업	8	516	8	477
총	83	249,908	66	208,8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투자업체 중에는 동원수산, 서진해운, 한국특수선과 같은 해운업체, 삼성전자, LG전자, 한창, 유풍실업과 같은 제조업체가 투자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기업등록이 자유로운 파나마의 기업법을 활용하여 실제 투자와는 관계없이 업무 편의상 파나마에 기업을 등록해 놓은 데 불과하며 실제로는 파나마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 진출은 전무한 실정으로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상사지사, 현지투자 판매법인 및 교민업체가 진출해 있는 정도이다.

- 현지법인 : (주)대우, 대우전자, 삼성물산, 삼성전자, LG전자, 선경
- 지사/지점 : 외환은행,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볼보중공업

2001년 7월 Jose Miguel Aleman 파나마 외무부 장관 방한시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 간 서명된(7.10) 한.파나마 사증 면제협정이2001. 8.9.(목)부로 발효해, " 조약 제1569호"로 공포되었다.(관보 14868호, 2001.8.4.자)

이에 따라 유효한 여권(외교관, 관용,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입국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 입국 가능하다.

84. 물가금융지표/최근 파나마市 소비자물가지수

구 분	2002년(%)	2003년(%)	2003/2002 증감률(%)
합 계	115.5	117.4	1.4
식품.음료	112.1	113.5	1.2
의류.신발	113.2	114.5	1.1
임대.연료.전기에너지	125.8	129.5	2.9
가구.악세서리. 전기용품.가정용품	114.4	116.4	1.7
의료용품.건강제품	124.5	122.6	-1.5
운송.통신	113.4	114.5	1.0
오락.문화	121.5	122.1	0.5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08.6	111.6	2.8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

85. 노동통계/파나마의 노동력 현황

<파나마의 15세 이상 인구 고용 및 실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A+B)	**1,907,188.00**	**1,949,717.00**	**1,992,844.00**
경제활동인구	1,153,950.00	1,221,914.00	1,248,156.00
피고용인구	984,223.00	1,049,525.00	1,081,135.00
실업인구	169,727.00	172,389.00	167,021.00
비경제활동인구	753,238.00	727,803.00	744,688.00
경제활동비율(%)	60.50	62.70	62.60
실업률(%)	14.70	14.10	13.40
도시인구(A)	**1,310,584.00**	**1,345,432.00**	**1,380,882.00**
경제활동인구	808,647.00	854,632.00	875,271.00
피고용인구	671,087.00	714,028.00	738,974.00
실업인구	137,560.00	140,604.00	136,297.00
비경제활동인구	501,937.00	490,800.00	505,611.00
경제활동비율(%)	61.70	63.50	63.40
실업률(%)	17.00	16.50	15.60
비도시인구(B)	**596,604.00**	**604,285.00**	**611,962.00**
경제활동인구	345,303.00	267,282.00	372,885.00
피고용인구	313,136.00	335,497.00	342,161.00
실업인구	32,167.00	31,785.00	30,724.00
비경제활동인구	251,301.00	237,003.00	239,077.00
경제활동비율(%)	57.90	60.80	60.90
실업률(%)	9.30	8.70	8.20

(정보원 : 파나마감사원)

<파나마 경제분야별 고용현황>

(단위 :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984,223**	**1,049,525**	**1,081,135**
1차산업	**179,522**	**183,747**	**189,511**
농목축임업	166,567	171,494	178,699
어업	11,168	10,642	9,482
광업	1,787	1,611	1,330
2차산업	**246,589**	**258,443**	**269,055**
제조업	88,433	96,305	94,459
전기.가스.상수도	9,625	8,643	9,282
건축	70,494	71,800	79,393
운송.창고.통신	78,037	81,695	85,921
3차산업	**281,207**	**305,526**	**315,573**
도소매	181,798	193,178	197,582
숙박요식업	42,360	47,871	52,126
금융중개	22,745	22,499	21,340
부동산	34,304	41,978	44,525
기타 서비스	276,905	301,809	306,996

(자료원 : 파나마감사원)